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435-102009



# 2010

## 식품산업동향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7221

# 2010 식품산업 동향분석





# 제 출 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4.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품정보원

과제수행책임자 : 나혜진(한국식품정보원 책임연구원)

연구참여자 : 이상호(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박윤성(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김창훈(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전덕수(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조성호(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김언경(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조미애(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곽덕환(한국식품정보원 연구원)

사경환(밸류에드 연구원)

박미근(밸류에드 연구원)

이정미(밸류에드 연구원)

이정우(밸류에드 연구원)

최나영(밸류에드 연구원)

고성한(밸류에드 연구원)





## 목 차

---

### 제 1 부 국내 식품 산업 동향

제 1 장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	3
제 1 절 일반경제와 식품산업 .....	5
제 2 절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 .....	12
제 2 장 국내 식품산업 동향 .....	29
제 1 절 음식료품 제조업 .....	31
제 2 절 외식산업 .....	51
제 3 절 식품유통업 .....	68
제 4 절 식품 수출입 .....	83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	100
제 3 장 국내 식품산업 전망 .....	115
제 1 절 적용기법 .....	117
제 2 절 출하액 및 부가가치 전망 .....	122
제 3 절 수출입 전망 .....	125
제 4 절 민간 소비지출 전망 .....	128
제 5 절 취업 및 고용전망 .....	130
제 6 절 2010 식품산업 주요 트렌드와 전망 .....	132

## 목 차

### 제 2 부 해외 식품 산업 동향

제 1 장 세계 식품 시장 규모 .....	141
제 1 절 세계 식품 시장 .....	143
제 2 절 세계 식품 기업 현황 .....	145
제 3 절 세계 식품 수출입 동향 .....	146
제 4 절 세계 식품 트렌드 .....	147
제 2 장 미국 식품산업 동향 .....	151
제 1 절 음식료품제조업 .....	153
제 2 절 외식산업 .....	161
제 3 절 식품유통업 .....	165
제 4 절 식품수출입 .....	170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	176
제 3 장 일본 식품산업 동향 .....	179
제 1 절 음식료품제조업 .....	181
제 2 절 외식산업 .....	189
제 3 절 식품유통업 .....	193
제 4 절 식품수출입 .....	197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	202
제 4 장 유럽연합(EU27) 식품산업 동향 .....	207
제 1 절 음식료품제조업 .....	209
제 2 절 외식산업 .....	218
제 3 절 식품유통업 .....	222
제 4 절 식품수출입 .....	226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	234

## < 표 목 차 >

<표 1-1> 2009-2010 일반경제동향 .....	6
<표 1-2> 2009년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	7
<표 1-3> 음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 ...	11
<표 1-4> 푸드시스템 범위 .....	13
<표 1-5> 2008년 푸드시스템 .....	14
<표 1-6> 산업연관분석표의 생산자가격 평가표 .....	16
<표 1-7> 푸드시스템에서 부문별 최종소비지출(2008년) .....	17
<표 1-8> 음식료품 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 비율(2008년 경상가격) ....	20
<표 1-9>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원료 이용 비율(2008년 경상가격) .....	22
<표 1-10> 외식산업 식재료 투입구조 (2008년) .....	23
<표 1-11>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관관계 .....	25
<표 1-12> 생산유발계수 .....	26
<표 1-13>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 .....	32
<표 1-14>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	39
<표 1-15>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	40
<표 1-16>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현황 .....	41
<표 1-17>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	42
<표 1-18> 매출액 규모별 식품산업 업체 현황 .....	43
<표 1-1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	44
<표 1-20> 사업장 종업원 규모별 업체 현황 .....	45
<표 1-21> 식품산업 품목군별 종업원수 현황 .....	45
<표 1-22> 음식료품제조업 생산지수(2005=100) .....	48
<표 1-23> 음식료품 가동률 지수(2005=100) .....	48
<표 1-24> 식품산업 성장성 분석 .....	49
<표 1-25> 식품산업 수익성 분석(2009) .....	50
<표 1-26> 외식비 지출 현황(평균) .....	51
<표 1-27> 외식산업 경영성과 지표 .....	53
<표 1-28>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업체 매출 현황 .....	54
<표 1-29> 주요 피자업계 매출 현황 .....	55
<표 1-30>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매출 현황 .....	56
<표 1-31> 주요 위탁급식업체 매출 현황 .....	57

## < 표 목 차 >

<표 1-32>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	58
<표 1-33>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	59
<표 1-34>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	60
<표 1-35> 매출액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9) .....	61
<표 1-36>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9) .....	62
<표 1-37> 음식점업 업종별 업체수 추이 .....	63
<표 1-38>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	64
<표 1-39> 음식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	66
<표 1-40>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영업비용 현황 .....	67
<표 1-41>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연간급여액 현황 .....	67
<표 1-42> 월별 매출 증감률 추이 .....	68
<표 1-43> 연간 매출 증감률 추이 .....	68
<표 1-44>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추이 .....	69
<표 1-45> 백화점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추이 .....	69
<표 1-46>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	71
<표 1-47>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매출액 현황 .....	72
<표 1-48>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	73
<표 1-49> 편의점 현황 .....	74
<표 1-50> 편의점 식품부문 매출액 구성비 .....	75
<표 1-51> 사이버 쇼핑몰 취급범위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	76
<표 1-52>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	76
<표 1-53> 식품 소매업 판매액 .....	77
<표 1-54>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	78
<표 1-55>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	79
<표 1-56>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	80
<표 1-57>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	80
<표 1-58>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	81
<표 1-59>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	82
<표 1-60> 가공식품 수출입 물가 지수(2005년=100) .....	86
<표 1-61>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 .....	88
<표 1-62> 라면 국가별 수출 비중 .....	89

## < 표 목 차 >

<표 1-63> 소주 국가별 수출 비중 .....	90
<표 1-64> 커피크리머 국가별 수출 비중 .....	91
<표 1-65> 장류 수출 현황 .....	92
<표 1-66> 고추장 국가별 수출 비중 .....	92
<표 1-67> 간장 국가별 수출 비중 .....	93
<표 1-68> 인삼가공식품 수출 현황 .....	94
<표 1-69> 김치 국가별 수출 비중 .....	94
<표 1-70> 조제김 국가별 수출 비중 .....	95
<표 1-71> 천일염 국가별 수출 비중 .....	96
<표 1-72> 탁주 국가별 수출 비중 .....	97
<표 1-73>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 .....	99
<표 1-74> 전국 전가구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	102
<표 1-75> 전국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앵겔계수(2인이상) .....	105
<표 1-76> 도시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앵겔계수(2인이상) .....	106
<표 1-77> 전국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인이상)(2009) .....	107
<표 1-78> 도시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인이상)(2009) .....	108
<표 1-79>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2인이상)(2009) .....	109
<표 1-80>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2인이상)(2009) .....	109
<표 1-81> 전국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	112
<표 1-82> 도시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	113
<표 1-83> 가구유형별 월평균 1인당 음식료품비 지출 현황(2008) .....	113
<표 1-84> 연령별 분포 .....	118
<표 1-85> 기관별 분포 .....	119
<표 1-86> 직급별 분포 .....	119
<표 1-87> 학력별 분포 .....	120
<표 1-88> 전문 분야별 분포 .....	120
<표 1-89> 분야별 전망 .....	121
<표 1-90> 출하액 및 부가가치 전망 .....	122
<표 1-91> 국내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수출입 전망 .....	125
<표 1-92> 국내 식품산업 민간소비지출 전망 .....	129
<표 1-93> 국내 식품산업 취업자 수 및 고용 전망 .....	131

## < 표 목 차 >

<표 2-1>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 순위(2010) .....	144
<표 2-2> 세계 주요 식품제조기업의 국가별 분포 현황 (2009년) .....	146
<표 2-3>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2009년) .....	147
<표 2-4>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153
<표 2-5>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	155
<표 2-6>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현황 .....	156
<표 2-7>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추이 .....	157
<표 2-8>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현황 .....	159
<표 2-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현황 .....	160
<표 2-10> 미국의 외식산업 성장 추이 .....	161
<표 2-11> 미국의 외식산업 업태별 사업체수 비중 .....	162
<표 2-12> 미국의 외식산업 업태별 종사자수 추이 .....	163
<표 2-13> 미국의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구성비 추이 .....	164
<표 2-14> 미국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	165
<표 2-15> 미국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	166
<표 2-16>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	167
<표 2-17>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	168
<표 2-18>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	169
<표 2-19> 미국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	173
<표 2-20> 미국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	175
<표 2-21> 미국 전가구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	176
<표 2-22>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181
<표 2-23>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	186
<표 2-24>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	187
<표 2-25>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8) .....	188
<표 2-26> 외식산업 성장 추이 .....	189
<표 2-27> 일본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	193
<표 2-28> 일본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	194
<표 2-29>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	195
<표 2-30>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	196

## < 표 목 차 >

<표 2-31> 일본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	201
<표 2-32> 일본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	202
<표 2-33> 일본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	203
<표 2-34>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	204
<표 2-35>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	205
<표 2-36> 일본 전가구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	206
<표 2-37>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9
<표 2-38>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	214
<표 2-39>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6) .....	217
<표 2-40> 외식산업 성장 추이 .....	218
<표 2-41>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	220
<표 2-42>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	221
<표 2-43>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	221
<표 2-44> 유럽연합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	222
<표 2-45> 유럽연합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	223
<표 2-46>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	224
<표 2-47>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	225
<표 2-48>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	225
<표 2-49>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 현황 .....	229
<표 2-50>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2009) .....	231
<표 2-51>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현황 .....	232
<표 2-52>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입 상위 20개 품목(2009) .....	233
<표 2-53>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	238



## < 그림 목 차 >

<그림 1-1>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추이(2000 ~ 2010년) .....	8
<그림 1-2>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변동추이(2000 ~ 2010년) .....	9
<그림 1-3> 국내 주식시장 동향 .....	10
<그림 1-4> 국내 경제구조 .....	12
<그림 1-5>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 (2008) .....	15
<그림 1-6> 식품 형태별 최종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 .....	19
<그림 1-7> 음식료품 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 변화 추이 ...	21
<그림 1-8> 외식 산업 식재료 원료 부문별 이용 비율 변화 추이 .....	24
<그림 1-9> 농축수산물의 흐름 연계도 .....	26
<그림 1-10> 식품가공산업의 흐름 연계도 .....	27
<그림 1-11> 외식산업의 흐름 연계도 .....	28
<그림 1-12>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성장 추이 .....	31
<그림 1-13>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2009년) .....	32
<그림 1-14> 음식료품제조업 임금 및 노동생산 변동추이(2005=100) ...	47
<그림 1-15> 외식업 성장 추이 .....	52
<그림 1-16> 소매유통 업체별 매출액 성장 추이(2005=100) .....	70
<그림 1-17> 대륙별 한국 식품 무역 현황(2009) .....	83
<그림 1-18>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	84
<그림 1-19> 가공식품의 수출입 물가 변동 추이(미\$ 기준) .....	85
<그림 1-20>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동향 .....	87
<그림 1-21>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동향 .....	98
<그림 1-22> 연령별 추계인구 구성비율 추이 .....	101
<그림 1-23>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구성변화 추이 .....	101
<그림 1-24>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9) ...	103
<그림 1-25>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9) ...	104
<그림 1-26> 전국 전가구 가구당 신선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	110
<그림 1-27> 전국 전가구 가구당 가공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	111
<그림2-1> 세계식품시장규모추이 .....	143
<그림2-2> 세계식품시장대륙별비중(2010) .....	144
<그림2-3> 세계식품시장에서의상위기업시장점유율(2009) .....	145
<그림2-4> 글로벌식품소비트렌드 .....	148

## < 그림 목 차 >

<그림 2-5> 유럽식품개발트렌드변화(2007-2008) .....	149
<그림 2-6> 10대R&D활성화품목(2007-2008) .....	149
<그림 2-7> 국가별식음료산업매출액대비R&D비율 .....	150
<그림 2-8> 미국음식료품제조업출하액및부가가치추이 .....	154
<그림 2-9> 미국의연도별가공식품무역수지변동추이 .....	170
<그림 2-10> 미국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수출현황 .....	171
<그림 2-11> 미국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수입현황 .....	174
<그림 2-12> 미국의음식료품비지출추이 .....	177
<그림 2-13> 미국의소득수준별음식료품비지출비중(2008) .....	178
<그림 2-14> 일본음식료품제조업출하액및부가가치추이 .....	182
<그림 2-15> 일본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출하액구성비추이 .....	184
<그림 2-16> 일본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부가가치구성비추이 .....	185
<그림 2-17> 외식산업업종별사업체수구성비추이 .....	190
<그림 2-18> 외식산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구성비추이 .....	191
<그림 2-19> 외식산업업종별종사자수구성비추이 .....	191
<그림 2-20> 외식산업종사자규모별종사자수구성비추이 .....	192
<그림 2-21> 일본의연도별가공식품무역수지변동추이 .....	197
<그림 2-22> 일본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수출비중추이 .....	198
<그림 2-23> 일본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수입비중추이 .....	200
<그림 2-24> 음식료품제조업국가별출하액현황 .....	210
<그림 2-25> 유럽연합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출하액비중(2007) .....	212
<그림 2-26> 유럽연합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부가가치비중(2007) .....	213
<그림 2-27> 유럽연합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사업체수비중(2007) .....	215
<그림 2-28> 유럽연합의음식료품제조업부문별종사자수비중(2007) .....	216
<그림 2-29> 유럽연합주요국가별매출액비중(2007) .....	219
<그림 2-30> 유럽연합의연도별가공식품무역수지변동추이 .....	226
<그림 2-31> 유럽연합국가별수출현황(2009) .....	227
<그림 2-32> 유럽연합국가별수입현황(2009) .....	228
<그림 2-33> 유럽연합가계지출현황(2005) .....	234
<그림 2-34> 유럽연합국가별음식료품비지출비중(2005) .....	235
<그림 2-35> 유럽연합주요국가별식품류별지출비중(2005) .....	236
<그림 2-36> 유럽연합국가의식료품품목별지출비중(2005) .....	237



제 1 부

.....

국내 식품산업 동향



---

# 제1장

##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



## 제1장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 제 1 절 일반경제와 식품산업

2009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제조업, 건설업 둔화 등 내수 경기의 침체와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0.2%의 상승세 둔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도에 국내총생산(GDP) 2009년 1/4분기 이후 8분기째 연속 성장하며 2002년 7.2% 성장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1%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의 119.7에서 2010년 1분기 129.8, 2분기 141.0, 3분기 139.0, 4분기 146.6으로 성장추세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는 연간 상승률이 2009년 2.8%, 2010년 2.9%로 2008년의 2.8% 상승률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물가의 경우, 2009년에는 전년도 0.2%와 동일한 0.2%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개선 흐름이 둔화되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복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서비스업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 교육, 운수업의 감소세 지속으로 개선 정도가 둔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에는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회복세가 지속되어 3.8%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화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2009년 3월 1,457원에서 2010년 10월 1,122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010년 11월의 중국 건축과 유럽의 재정위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에 기인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2010년 12월에 1,147원으로 반등하였다.

시장금리는 2009년의 경기회복, 금리 인상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콜금리는 2010년 2.2%로 2%대와 국고채수익률 2009년의 4.0%, 2010년 3.7%의 동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현재 생활형편 CSI지수는



2009년에 88에서 2010년 연간 94로 회복되었고, 외식비 지출 전망 CSI도 2009년 83에서 2010년에 93으로 회복 추세로 보인다.

<표 1-1> 2009-2010 일반경제동향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경제성장률(%)('05년기준)						
GDP성장률	0.2	8.1	7.2	4.4	4.8	6.1
GNI성장률	1.9	9.6	5.6	4.5	3.0	6.0
산업생산지수('05년기준)	119.7	129.8	141.0	139.0	146.6	139.1
제조업	120.0	129.6	142.5	140.3	147.6	140.0
식료품 제조업	99.0	99.1	104.8	106.6	107.8	104.6
음료 제조업	99.3	91.9	110.1	112.0	100.1	103.5
서비스업생산지수('05년기준)	129.5	132.8	136.9	135.8	142.8	137.1
경상수지(백만\$)	32,790.5	263.3	8,568.0	9,411.2	10,945.3	28,213.6
상품수지	37,866.0	4,785.4	12,183.3	12,287.5	12,647.8	41,904.0
서비스수지	-6,640.5	-4,201.1	-2,106.0	-3,219.8	-1,702.5	-11,229.4
물가수지('05년기준)						
생산자물가	110.9	113.1	114.9	115.5	117.0	115.1
소비자물가	112.8	114.6	115.6	116.6	117.6	116.1
수출입물가지수('05년기준)						
수출물가	109.2	104.0	106.8	107.9	107.0	106.4
수입물가	137.7	137.9	144.4	147.2	150.5	145.0
환율(원/\$, 평균)	1,276.4	1,144.1	1,163.5	1,185.6	1,132.8	1,156.3
콜금리(연리 %)	2.0	2.0	2.0	2.3	2.4	2.2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조사,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

국내외 경기 회복 기조로 2008년의 가계소득은 339만원에서 2009년 343만원, 2010년에 36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가계소비 지출 역시 2008년의 212만원, 2009년 215만원, 2010년 22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식료품 소비 지출은 2008년 59만원에서 2009년 58만원, 2010년 61만원으로 가계소득 증가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식비 지출은 2008년 28만원, 2009년 28만원, 2010년 29만원으로 28~29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t;표 1-2&gt; 2009년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가계소득(천원)	3,432	3,728	3,545	3,660	3,620	3,632
(전년대비 %)	1.2%	7.4%	7.6%	6.1%	2.4%	5.8%
가계소비지출(천원)	2,149	2,338	2,209	2,309	2,308	2,287
(전년대비 %)	1.7%	9.5%	6.7%	5.4%	4.2%	6.4%
식료품(천원)	581	577	604	643	627	612
(전년대비 %)	-1.1%	4.4%	3.6%	10.3%	7.5%	5.3%
외식(천원)	275	270	300	289	285	286
(전년대비 %)	-2.2%	8.1%	5.0%	2.8%	0.5%	4.0%
현재 생활 형편 CSI	88	95	95	94	92	94
외식비 지출 전망 CSI	83	91	94	94	94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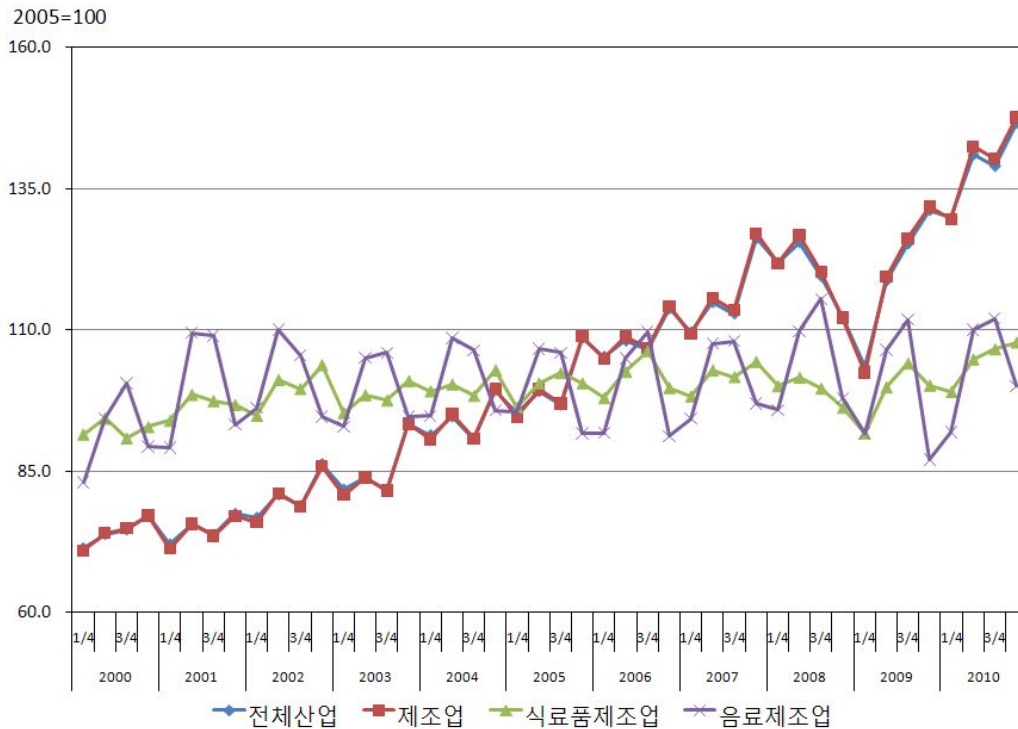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조사,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

※ 2009년 소득 및 지출부문의 항목분류 개편으로, 「가계동향조사(신분류)」의 2008년 이전 자료는 「가계동향조사(구분류)」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세계 경제의 회복 추세로 내수 시장이 회복하면서, 2009 상반기부터 제조업은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음식료품 제조업도 2009년 1분기 하락에서 2009년 2분기부터 증가하여 회복세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2010년 12월에 전월대비 비금속광물 (-5.7%), 식료품(-2.1%)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5.9%), 자동차(6.4%) 등의 수출 호조로 전달과 비교하여 2.8% 증가했다. 2009년 동기월 대비에서도 비금속광물 (-3.8%), 기타운송장비(-2.9%)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9.6%), 기계장비(20.3%) 등의 호조로 9.8% 증가했고, 2010년 연간으로는 2009년 대비 16.7% 증가했다.

<그림 1-1>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추이(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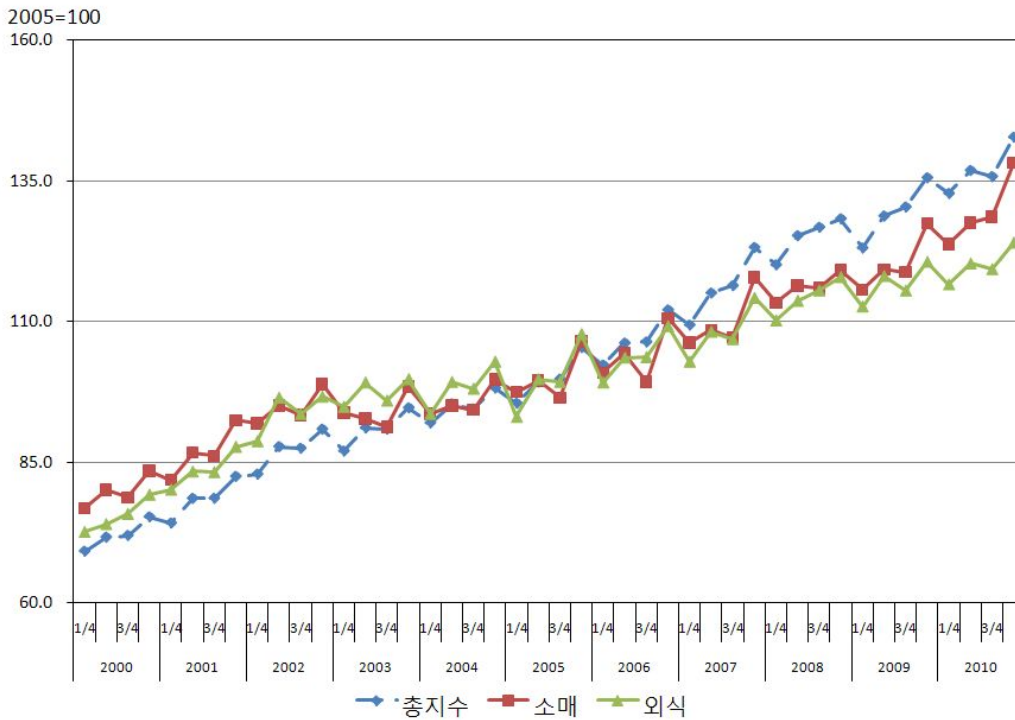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010년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로 전환되면서, 소비 및 설비 투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다.

2010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22.8로 2009년의 118.4에 비해 3.7% 증가하였고, 2010년 12월의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예술·스포츠·여가(-3.6%),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1.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6.3%), 교육(4.4%) 등이 증가하여 2010년 11월과 비교하여 1.3% 증가했다.

2009년 12월과 2010년 12월을 비교한 결과, 부동산·임대(-25.5%), 전문·과학·기술(-9.5%)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12.3%), 금융·보험(8.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7.9%) 등이 증가하여 2.1% 증가하였고, 2010년 서비스업은 2009년에 비해 3.7% 증가 했다. 2010년 소매업은 2009년 대비 7.1% 성장하였고, 외식도 전년대비 2.8% 성장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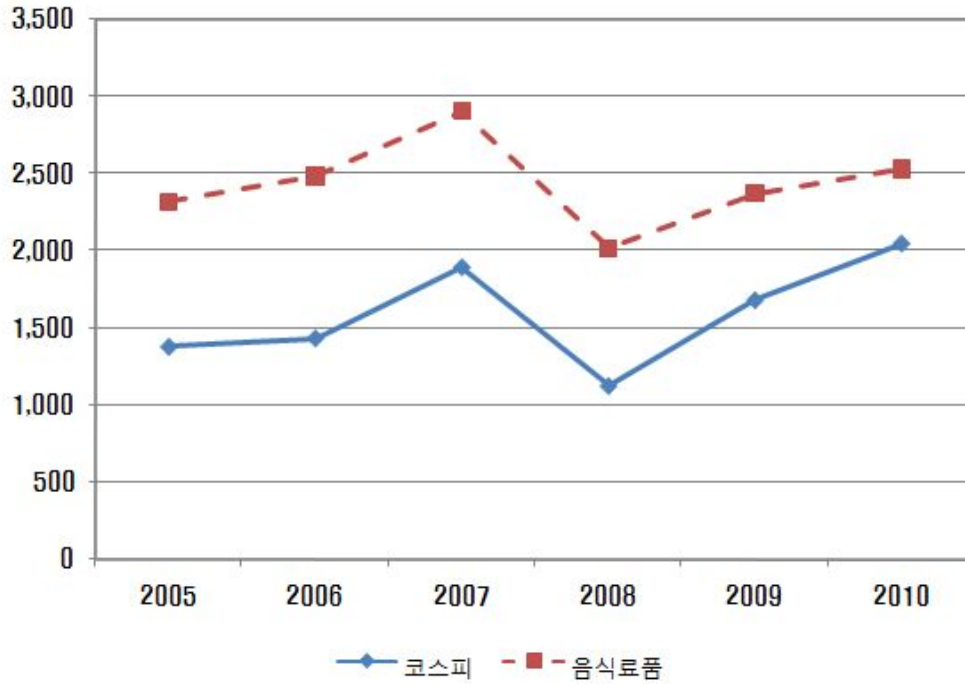
&lt;그림 1-2&gt;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변동추이(2000~2010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면, 2009년은 경기 회복으로 2008년 대비 49.7% 증가하였고, 2010년은 2009년 대비 21.9% 증가한 2,051이었다. 음식료품 지수는 코스피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17.4% 증가, 2010년은 2009년 대비 6.6% 증가한 2,531이었다.

<그림 1-3> 국내 주식시장 동향



자료 : 한국거래소, www.krx.co.kr, 주식통계, 주가지수/주가평균, 2011

유가의 경우,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OPEC 관계자들의 현 유가 수준에 대한 지지 발언, OPEC의 감산합의 이행률 60% 수준 유지, 2008년말 몰아친 글로벌 경기 불황 영향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2008년 86.22백만 배럴에서 2009년에는 84.86백만 배럴로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2010년의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수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의 국제 유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1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서비스업도 운수 및 보관업,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3.5%의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에 비해 0.5%p 상승하는 등 2009년 대비 회복 추세이다.

음식료품제조업은 고용측면에서 전체 제조업 중 6.8%로 상위 4위로 높은 고용비중으로 분석되어,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하여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 음식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2%, 출하액 5.4%, 부가가치 5.8%로 사업체수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서는 타 업종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음식료품제조업의 생산 활동은 높은 고용 창출과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전방으로는 농수산업, 후방으로는 식품 유통업, 외식업 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음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

(단위 : %)

부문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고용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7%	24.0%	6.3%	14.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1%	9.4%	5.2%	10.2%
1차 금속 제조업	10.1%	7.0%	4.0%	4.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8.9%	6.9%	4.0%	4.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2%	3.6%	0.2%	0.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3%	7.0%	2.3%	6.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5%	7.3%	13.5%	10.3%
음식료품 제조업	5.4%	5.8%	7.2%	6.8%

자료 : 통계청 (www.kosis.kr), “광업·제조업 조사”, 2010.

## 제 2 절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8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과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생산, 고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구체화하여 분석할 수 있어 경제계획 수립과 예측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로 본 2008년 한국경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국내 경제구조



식품산업의 분류는 '2009 식품산업동향'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범위를 규정하였다.

<표 1-4> 푸드시스템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농수산물	농산물	벼
		맥류 및 잡곡
		채소 및 과실
	축산물	기타 식용작물
		낙농 및 육우
	임산물	기타축산
		임산물
	수산물	수산어획
		수산양식
	식품소재	
정곡		
제분		
제당		
식품가공		수산가공품
		낙농품
		전분 및 당류
		빵, 과자 및 국수류
		조미료
		유지 및 식용유
		과실 및 채소 가공품
		기타 식료품
음료품	알코올음료	주류
	비알코올음료	음료수 및 얼음
외식	외식	음식점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44조 7,648억원, 식품 소재 23조 1,034억원, 식품가공 35조 7,957억원, 음료품 : 12조 4,602억원, 외식 66조 853억원 등으로 총 182조 2,094억원 규모이다.

총 생산된 농수산물 중 수출은 4,790억원, 수입은 9조 6,952억원으로 총 공급은 53조 9,810억원이었고, 이 중 최종소비는 13조 5,904억원, 중간수요는 38조 5,322억원 규모이다.

농수산물 중간수요 중 식품소재산업에는 약 18조 4,140억원, 식품가공산업에는 8조 248억원, 음료품 산업에는 1,578억원, 외식 산업에는 4조 7,772억원, 기타 산업에는 7조 1,584억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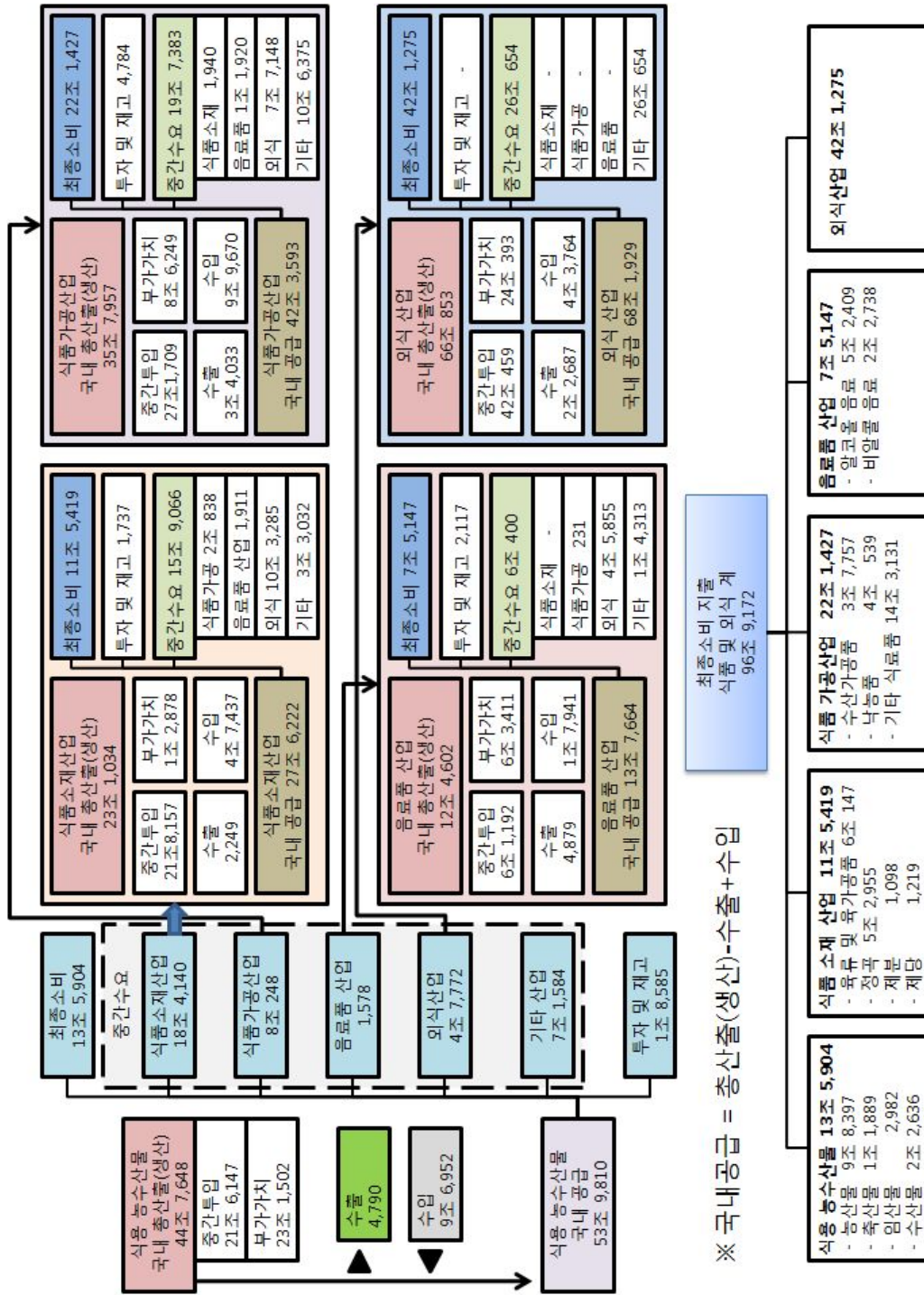
식품 및 외식의 최종 소비 지출은 96조 9,172억원으로 농수산물은 13조 5,904억원, 식품 소재 산업 11조 5,419억원, 식품 가공산업 22조 1,427, 음료품 산업에는 7조 5,147억원, 외식산업에 42조 1,27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2008년 푸드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생산 (A)	수출 (B)	수입 (C)	생산자가격 국내공급액 (D=A-B+C)
농수산물		447,648	4,790	91,368	534,226
	농산물	235,247	2,221	70,862	303,889
	축산물	133,010	21	1,940	134,928
	임산물	15,695	532	11,060	26,224
	수산물	63,696	2,016	7,506	69,185
식품소재		231,034	2,249	41,288	270,073
식품가공		357,957	34,033	88,685	412,608
음료품		124,602	4,879	10,249	129,972
	알코올 음료	80,868	3,802	9,657	86,723
	비알콜 음료	43,734	1,077	592	43,249
외식		660,853	22,687	43,764	681,929
계		1,822,094	68,639	275,354	2,028,809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2010

<그림 1-5> 하림수산업 및 소재·가공식품 하림도 (2008)



산업연관분석표의 관련 생산자가격 평가표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흐름 연계도를 분석하였다.

생산자가격 평가표 분석결과, 전체 푸드시스템의 중간수요는 106조 2,825억원이며, 총 수요는 212조 7,858억원으로 이 중 총수요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외식산업으로 33.1%인 70조 4,617억원, 그 다음으로 농수산물이 25.6%인 54조 4,600억원, 식품가공 산업이 21.5%인 46조 7,627억원, 식품소재가 13.1%인 27조 8,471억원, 음료품이 6.7%인 14조 2,54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간수요 측면에서는 농수산물 산업이 36.3%인 38조 5,322억원, 외식 산업이 24.5%인 26조 654억원, 식품가공 산업이 18.6%인 19조 7,383억원, 식품소재 산업이 15.0%인 15조 9,066억원, 음료품이 5.7%인 6조 400억원으로 생산자가격 평가표 분석에 의하면, 농수산물 산업은 중간 수요 비중이 높았고, 외식 산업은 총수요의 비중이 높았다.

<표 1-6> 산업연관분석표의 생산자가격 평가표

(단위 : 억원)

대분류	중분류	중간수요계	민간소비지출	최종수요계	총수요
농수산물		385,322	135,904	159,278	544,600
	농산물	205,041	98,397	105,228	310,269
	축산물	115,481	11,889	19,594	135,076
	임산물	18,268	2,982	8,707	26,975
	수산물	46,532	22,636	25,749	72,280
식품소재		159,066	115,419	119,405	278,471
식품가공		197,383	221,427	260,244	457,627
음료품		60,400	75,147	82,143	142,543
	알코올 음료	40,346	52,409	57,804	98,150
	비알코올 음료	20,054	22,738	24,339	44,393
외식		260,654	421,275	443,963	704,617
계		1,062,825	969,172	1,065,033	2,127,858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2010

2008년 기준 푸드시스템에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의 소비지출은 생산자평가액 기준으로 농수산물 13조 5,904억원, 식품소재 11조 5,419억원, 식품가공 22조 1,427억원, 음료품 7조 5,147억원, 외식 42조 1,275억원 등 모두 96조 9,172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1-7> 푸드시스템에서 부문별 최종소비지출(2008년)

(단위 : 억원)

대분류	소분류	최종소비
농수산물		135,904
	농산물	98,397
	축산물	1,189
	임산물	2,982
	수산물	22,636
	기타	10,700
식품소재		115,419
	육류 및 육가공품	60,147
	정곡	52,955
	제분	1,098
	제당	1,219
식품가공		221,427
	수산가공품	37,757
	낙농품	40,539
	기타 식료품	143,131
음료품		75,147
	알코올 음료	52,409
	비알콜 음료	22,738
외식		421,275
계		969,172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2010

생산자평가액 기준 농수산물의 최종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농산물 9조 8,397억원, 축산물 1,189억원, 임산물 2,982억원, 수산물 2조 2,63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소재의 경우에는 육류 및 육가공품이 6조 147억원, 정곡 5조 2,955억원, 제분 1,098억원, 제당 1,219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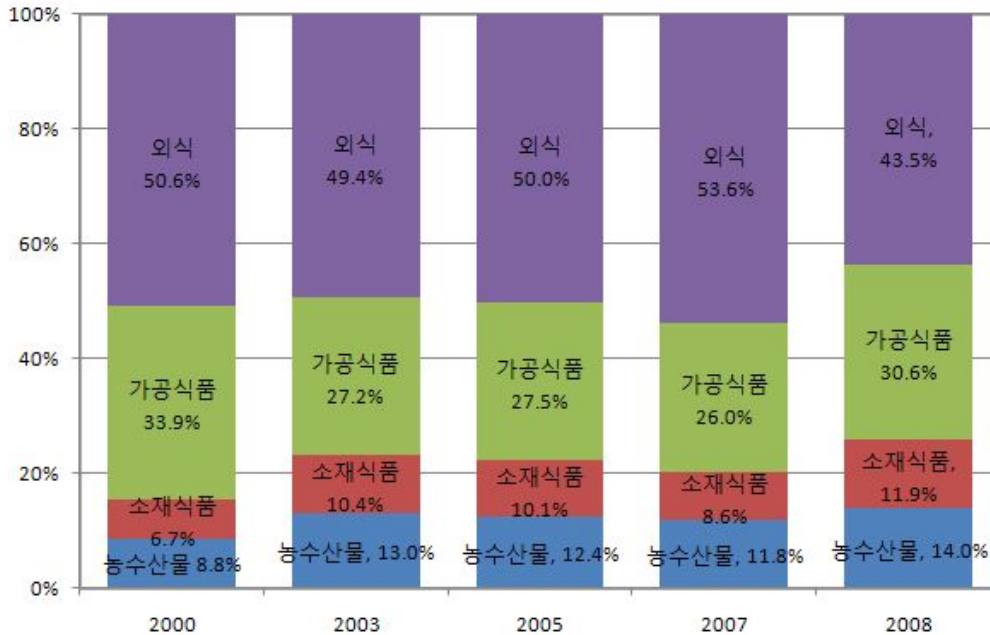
식품가공은 수산가공품이 총 3조 7,757억원으로 1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낙농품이 4조 539억원(18.3%), 기타 식료품 14조 3,131억원(64.6%)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료품에서는 알코올 음료가 5조 2,409억원, 비알콜 음료는 2조 2,73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형태별 최종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외식산업이 50%이상이었으나, 2008년에는 43.5%로 감소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 2007년의 26.0%에서 30.6%로 증가하였다.

특히 소재식품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 11.9%로 10%를 넘어섰고, 농수산물의 소비지출도 1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지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lt;그림 1-6&gt; 식품 형태별 최종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농산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당해 연도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농수산물 생산액 44조 7,648억원 중에서 52.9%인 23조 6,590억원의 농수산물이 식품산업의 가공원료로 이용되었다. 이 중에서 도정·제분 또는 도축·도계, 제당 등 식품소재산업의 가공원료로 17조 4,063억원이 이용되었고 육가공, 유가공을 비롯한 채소 및 과일가공, 수산가공 등 식품가공산업의 가공원료로 6조 1,610억원이, 음료품산업의 가공원료로 916억원의 농수산물이 이용되었다.

농산물의 경우 총생산액의 45.4%에 해당하는 10조 6,869억원이 식품소재 및 식품가공, 음료품산업으로 투입되었으며, 축산물은 생산액 13조 3,010억원의 78.4%에 달하는 10조 4,2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은 총생산액 1조 5,695억원의 16.6%가, 수산물은 총생산액의 35.9%가 투입되었다.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입 원료농수산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도에 수입된 식용농수산물 9조 6,952억원 중에서 30.3%인 2조 9,376억원의 농수산물이 음식료품제조업의 가공원료로 이용되었는데 식품소재산업에 34.3%가 투입되고 63.4%는 식품가공산업에, 음료품에는 2.3%가 이용되었다.

식품소재 및 가공산업에 투입된 수입 농수산물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총 수입액의 36.5%가 이용되었는데 식품소재산업에 1조 55억원 그리고 식품가공산업에 1조 6,698억원이 투입되었다. 수입 축산물은 대부분이 직접 소비되어 식품소재산업 및 식품가공산업에 이용된 것은 전체의 3.4%인 70억원에 불과하였다. 수입 임산물도 식품가공산업과 음료품으로만 559억원이 투입되어 임산물 총 수입액 1조 1,279억원의 5.0%를 차지하였고, 수입 수산물은 15.6%가 식품가공산업으로만 투입되었다.

<표 1-8> 음식료품 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 비율(2008년 경상가격)

(단위 : 억원)

구 분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합계		산출액 및 수입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내 생산	농수산물	174,063	38.9%	61,610	13.8%	916	0.2%	236,590	52.9%	447,648
	농산물	86,960	37.0%	19,075	8.1%	834	0.4%	106,869	45.4%	235,247
	축산물	87,099	65.5%	17,090	12.8%	70	0.1%	104,260	78.4%	133,010
	임산물	0	0.0%	2,586	16.5%	12	0.1%	2,598	16.6%	15,695
	수산물	4	0.0%	22,859	35.9%	0	0.0%	22,863	35.9%	63,696
수입	농수산물	10,076	10.4%	18,638	19.2%	663	0.7%	29,376	30.3%	96,952
	농산물	10,055	13.4%	16,698	22.3%	653	0.9%	27,406	36.5%	75,022
	축산물	21	1.0%	49	2.4%	0	0.0%	70	3.4%	2,066
	임산물	0	0.0%	549	4.9%	10	0.1%	559	5.0%	11,279
	수산물	0	0.0%	1,342	15.6%	0	0.0%	1,342	15.6%	8,585
계	농수산물	184,140	33.8%	80,248	14.7%	1,578	0.3%	265,966	48.8%	544,600
	농산물	97,015	31.3%	35,773	11.5%	1,487	0.5%	134,275	43.3%	310,269
	축산물	87,121	64.5%	17,139	12.7%	70	0.1%	104,330	77.2%	135,076
	임산물	0	0.0%	3,135	11.6%	22	0.1%	3,157	11.7%	26,975
	수산물	4	0.0%	24,201	33.5%	0	0.0%	24,205	33.5%	72,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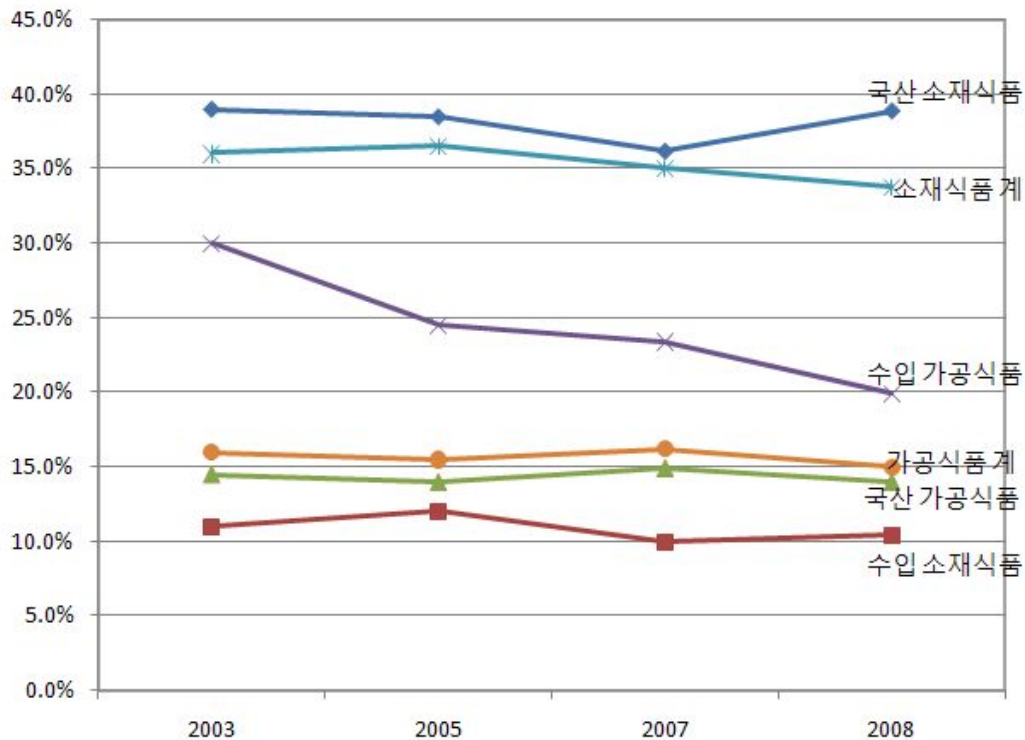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2010

주 : 비율은 총산출액에 대한 비율임.

음식료품 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의 52.4%에서 2005년 51.6%, 부터 2007년 48.9%, 2008년 48.8%로 감소 추세인데 이는 소재식품 산업의 비율이 36.1%에서 33.8%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국산 소재 식품은 2008년에 35.9%로, 소재 식품은 33.8%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가공식품은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7> 음식료품 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 변화 추이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의 최종 생산을 위해서는 식용 농수산물 외에도 중간재로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등이 투입 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재로 사용되는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의 국산,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의 중간재는 12조 968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61.8%인 7조 4,722억원이 국산이며, 38.2%인 4조 6,247억원이 수입품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식품가공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식품가공품이 47.6%인 5조 7,592억 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조 7,592억 원 중 국산은 64.5%인 3조 7,139억 원, 수입은 2조 452억 원으로 국산 식품가공품이 2차 식품 가공품으로 투입되는 비중이 전액 투입의 30.7%로 나타났다.

<표 1-9>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원료 이용 비율(2008년 경상가격)

(단위 : 억 원)

구분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계
국산	식품소재, 가공	24,511	45,662	4,550	74,722
	식품소재	2,701	1,704	0	4,406
	식품가공	20,814	37,139	218	58,171
	음료품	995	6,818	4,332	12,145
수입	식품소재, 가공	12,829	31,822	1,596	46,247
	식품소재	3,462	5,704	0	9,166
	식품가공	9,015	20,452	13	29,480
	음료품	353	5,665	1,583	7,600
계	식품소재, 가공	37,339	77,483	6,146	120,968
	식품소재	6,163	7,409	0	13,572
	식품가공	29,829	57,592	231	87,651
	음료품	1,348	12,483	5,915	19,746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2010

한편 외식산업에서의 식재료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식품에서 27조 4,061억 원이 외식산업에서 소비되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 원료가 23조 5,764억 원으로 8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원료는 3조 8,297억 원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의 소비가 4조 7,772억 원으로 외식산업 식재료 소비의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산은 13.4%, 6,405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소재 소비는 13조 1,89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11조 658억 원(83.9%), 수입산이 2조 1,236억 원(16.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식품가공 소비는 4조 8,539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4조 2,931억 원(88.4%), 수입산이 5,609억 원(11.6%)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료품 소비는 총 4조 5,85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4조 808억원(89.0%), 수입산이 5,047억원(11.0%)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0> 외식산업 식재료 투입구조 (2008년)

(단위 : 억원)

구 분	국산		수입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산물 및 식품	235,764	86.0%	38,297	14.0%	274,061
농수산물	41,366	86.6%	6,405	13.4%	47,772
농산물	21,505	87.5%	3,070	12.5%	24,575
축산물	4,454	99.2%	36	0.8%	4,490
임산물	1,800	84.5%	330	15.5%	2,131
수산물	13,607	82.1%	2,970	17.9%	16,577
식품소재	110,658	83.9%	21,236	16.1%	131,894
육류 및 육가공품	53,740	81.2%	12,429	18.8%	66,169
정곡	10,530	93.7%	705	6.3%	11,235
제분	12,970	63.7%	7,383	36.3%	20,354
제당	33,419	97.9%	718	2.1%	34,137
식품가공	42,931	88.4%	5,609	11.6%	48,539
수산가공품	1,558	89.6%	182	10.4%	1,740
낙농품	1,124	90.6%	116	9.4%	1,240
기타 식료품	40,249	88.3%	5,311	11.7%	45,560
음료품	40,808	89.0%	5,047	11.0%	45,855
알코올 음료	26,706	84.4%	4,925	15.6%	31,632
비알코올 음료	14,102	99.1%	122	0.9%	14,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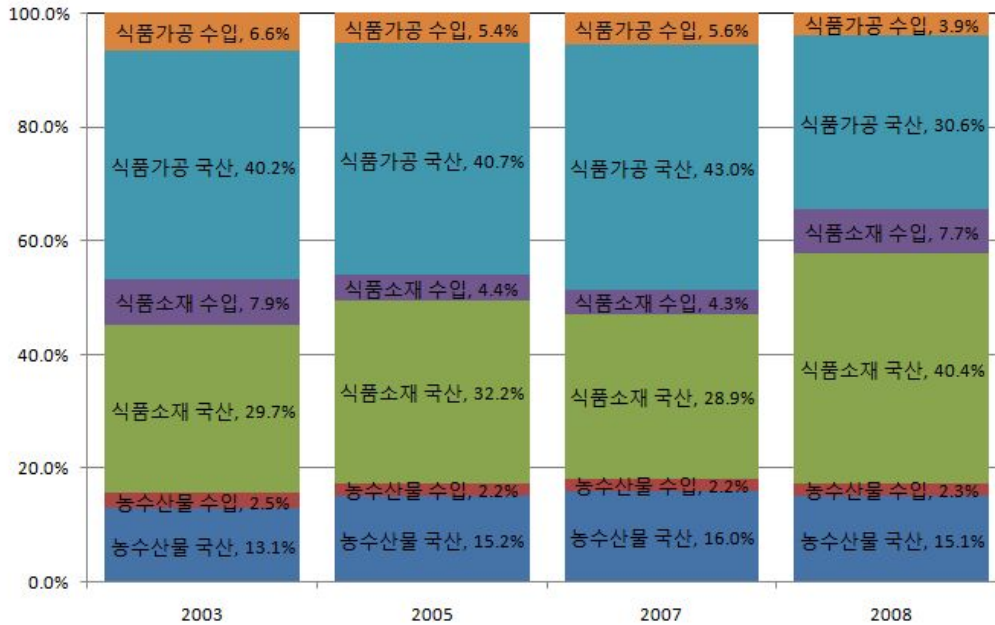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산업연관표", 2010

외식산업 식재료 이용실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이며, 연평균 3.7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볼 때, 국산 농수산물은 2007년 16.0%에서 2008년 15.1%로 감소하였으나, 수입 농수산물은 2.2%에서 2.3%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식품소재는 2007년 33.2%에서 2008년 48.1%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볼 경우 같은 기간 수입 식품소재는 4.3%에서 7.7%로, 국산 식품소재는 28.9%에서 40.4%로 11.5% 포인트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식품가공은 2007년 48.6%에서 2008년 34.5%로 비중이 낮아졌는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입 식품가공이 같은 기간 5.6%에서 3.9%로, 국산 식품가공 역시 43.0%에서 30.6%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1-8> 외식 산업 식재료 원료 부문별 이용 비율 변화 추이



## 2.1 산업 연관 분석

2008년 기준으로 식품제조업이 10억원 성장하면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20.8억원,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3.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에 비해 식품제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2.094에서 2.083으로 감소하였고, 농림어업은 0.337에서 0.338로 소폭 증가하며 외식의 경우 10억원 성장하여,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20.2억원,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1.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했다.

외식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07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농림어업에 생산유발되는 효과는 식품제조업의 0.338에 비해 낮은 0.156으로 분석되었다.

<표 1-11>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관관계

구 분	2007		2008	
	생산유발계수	농림어업	생산유발계수	농림어업
식품제조업	2.094	0.337	2.083	0.338
외식업	2.027	0.157	2.023	0.156
*농림어업	1.774	1.104	1.862	1.117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9, 2010의 음식료품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

2006년까지 산업전체의 생산유발계수는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감소하였고, 식품산업은 2006년의 2.109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 2.083, 외식업도 2006년의 2.037에서 감소하여 2008년에 2.023로 나타났다.

<표 1-12> 생산유발계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전년대비
농림어업	1.746	1.782	1.774	1.862	0.088
제조업	2.064	2.082	2.073	2.061	-0.012
음식료품	2.093	2.109	2.094	2.083	-0.011
도소매	1.649	1.657	1.666	1.633	-0.033
음식점 및 숙박	2.024	2.037	2.027	2.023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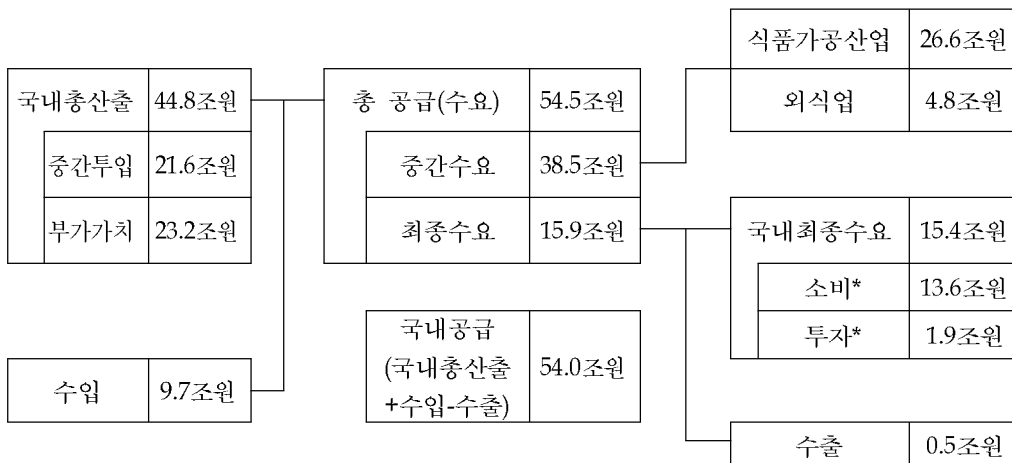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010

가. 식용 농축수산물의 흐름 연계도

국내 식용 농축수산물의 총 수요는 54.5조원(국내 공급은 54.0조원)으로 중간수요로는 38.5조원, 국내 최종 수요는 15.4조원이며, 부가가치는 약 23.2조원의 유발효과로 분석되었다.

수입은 9.7조원, 수출은 0.5조원이며, 중간수요로 식품가공산업에 26.6조원, 외식업에 4.8조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9> 농축수산물의 흐름 연계도



※ 소비 : 민간소비지출  
투자 : 민간고정자본+정부고정자본+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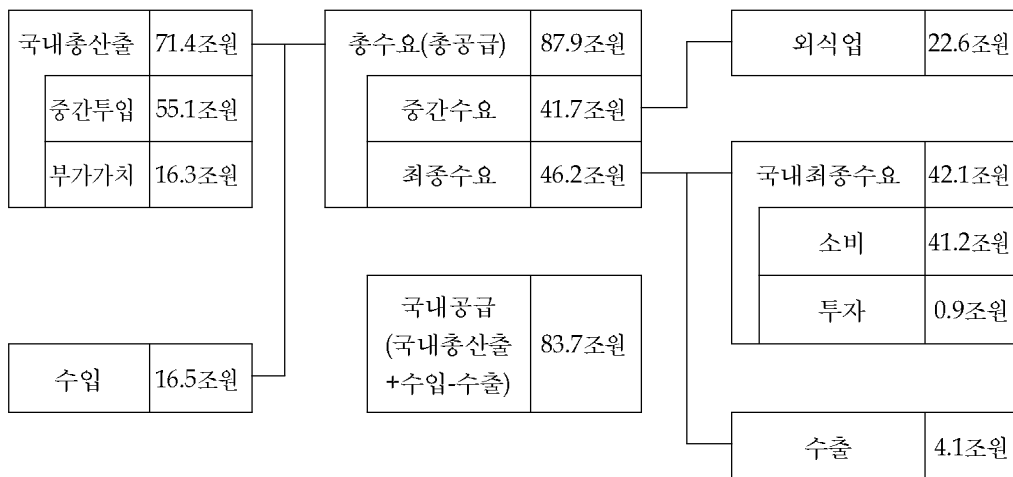
## 나. 식품가공산업의 흐름 연계도

국내 식품가공산업의 범위를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산업으로 규정하여 흐름 연계도를 분석한 결과, 총공급은 87.9조원, 국내 공급은 83.7조원으로 생산되기 위해 투입되는 식용 농축산물은 26.6조원이며, 2차 식품가공산업에 사용되는 1차 식품가공품은 12.1조원, 부가가치는 약 16.3조원의 유발효과로 분석되었다.

식품가공산업의 중간 수요로는 외식업이 22.6조원이며, 국내 최종 수요는 42.1조, 일반 소비자에게는 41.2조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은 16.5조원, 수출은 4.1조원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10> 식품가공산업의 흐름 연계도



※ 소비 : 민간소비지출

투자 : 민간고정자본+정부고정자본+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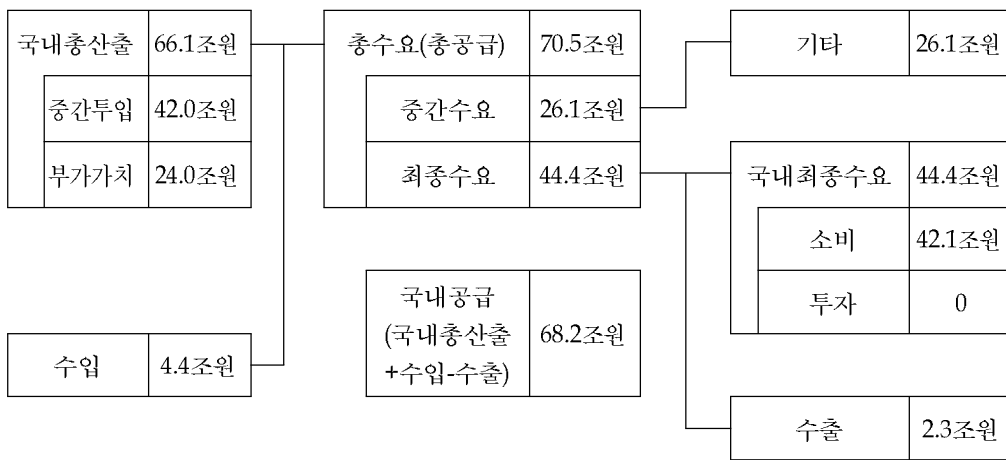
※ 식품가공산업 : 식품소재, 식품가공, 음료품 포함

다. 외식산업의 흐름 연계도

국내 외식산업의 총 공급은 70.5조원(국내 공급은 68.2조원)이며,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식용 농축수산물은 약 4.8조원, 식품 제조업은 22.6조원 규모로 부가가치는 약 24.0조원의 유발효과로 분석되었다.

외식 산업의 국내 최종 수요는 44.4조원, 민간 최종 소비는 42.1조원이며, 수입은 4.4조원, 수출은 2.3조원 규모이다.

<그림 1-11> 외식산업의 흐름 연계도



※ 소비 : 민간소비지출  
투자 : 민간고정자본+정부고정자본+재고

---

## 제 2 장

# 국내 식품산업 동향

---





## 제2장 | 국내 식품산업 동향

### 제 1 절 음료식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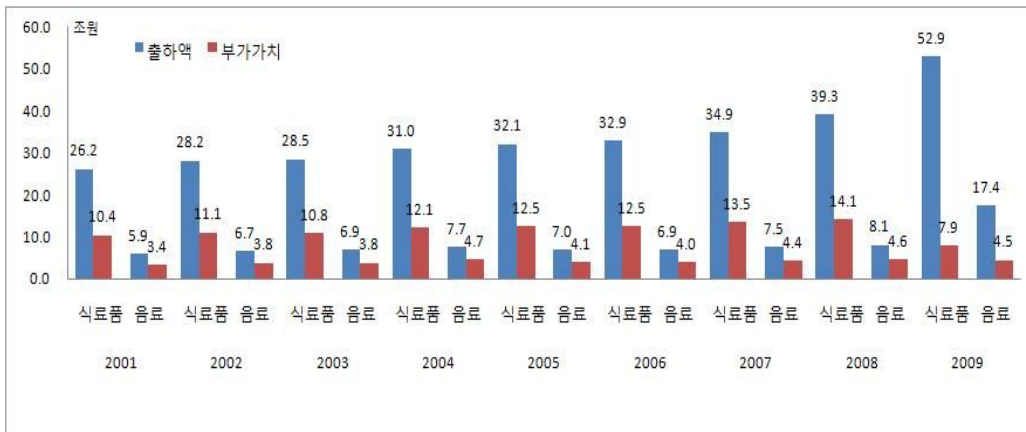
#### 1.1 생산/출하 동향

2009년도 음료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은 60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1%로 전년 4.25%에 비해 1.16%증가했다. 부가가치는 2008년 제조업 대비 5.09%에서 2009년 5.82%로 비중이 높아졌는데 음료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0.81% 상승, 음료제조업이 0.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음료식품제조업 사업체수는 4,169개소로 전체 제조업에서 7.19%를 차지했으며 종사자수는 16,7000명으로 제조업 대비 6.81%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산업 중 음료식품 제조업은 2005년 43조원 규모에서 2009년 6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사업체 수는 2009년 4,169개로 2001년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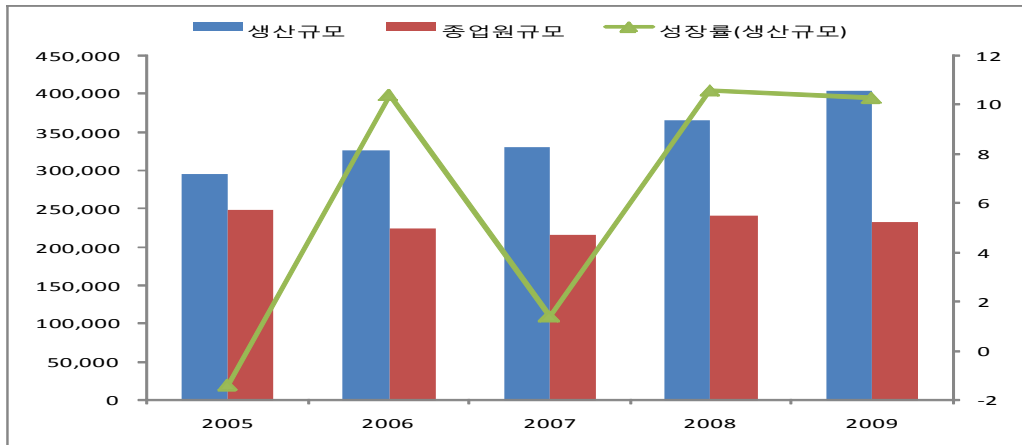
<그림 1-12> 음료식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성장 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식품및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액이 40조 4,088억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고, 매출액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는 전년도 대비 13.12% 성장한 44조 4,40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종업원수는 230,000명의 규모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13>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2009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표 1-13>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

(단위 : 천,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량	22,586	25,148	24,702	24,382	36,534
생산액	29,579,377	32,694,772	33,147,999	36,649,627	40,408,833
증가율	-1.6	10.5	1.4	10.6	10.3
매출액	33,335,150	35,699,307	37,365,857	39,298,784	44,440,639
증가율	0.5	7.1	4.7	5.2	13.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가. 육가공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2009년도 출하액은 8조 9,560억원으로 2008년 7조 3,460억원에 비해 21.9% 증가했다. 도축업이 전체의 46.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3.1%가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포장육이나 육가공품 산업에 해당한다.

국내 육가공품 생산의 대표적인 품목인 햄과 소시지는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햄의 2009년 생산량은 89,192톤으로 전년 대비 6.41% 감소했으나 금액으로는 5,317억원으로 11.0% 증가했으며 소시지 역시 생산액은 57,460톤으로 5.35% 감소했으나 금액으로는 20.5% 증가했다.

국내 기업들은 기존 돈육 위주의 햄, 소시지 생산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 개발, 기능성 강화 등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통해 수입 육가공제품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유가공

2009년도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업의 출하액은 6조 6,29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시유가 2조 5,446억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효유가 1조 4,687억원으로 22.2%, 치즈가 3,449억원으로 5.2%를 차지했다.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는 2008년도 총자산 증가율 6.41%, 유형자산 증가율 5.1%, 매출액 증가율은 15.0%에 비해 2009년에는 총자산 증가율은 6.7%, 유형자산 증가율 4.3%, 매출액 증가율은 7.7%로 매출액 증가율만 둔화되었다.

낙농제품 중 시유와 발효유는 생산량이 각각 0.98%, 0.58%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류는 모두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특히 분유는 19.0%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률 저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다. 과채가공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2009년 출하액 1조 9,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 성장했다. 특히 김치를 비롯한 절임식품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1,870억원을 출하했으며 김치 생산액 증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치는 2009년 생산액 9,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5년 7,378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산액 증가폭이 큰 품목은 농축채소즙, 과실주스, 잼 및 젤리통조림, 냉동과실로 각각 전년 대비 11.8%, 76.6%, 7.6%, 60.1% 증가했다.

## 라. 곡물가공

2009년도 출하액 기준으로는 5조 1,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은 해당하는 모든 산업 분야가 모두 출하액이 증가했는데 곡물가공품제조업이 4조1,630억원으로 20.1%, 곡물도정업은 1조7,790억원으로 6.4%, 곡물제분업은 1조7,170억원으로 35.0%, 제과용혼합분말 및 반죽제조업은 2,440억원으로 63.8%, 기타 곡물가공품제조업은 4,230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곡물가공품, 전분, 사료 및 조제식품의 2008년도 총자산 증가율 32.9%, 유형자산 증가율 22.3%, 매출액 증가율은 22.1%에 비해 2009년에는 총자산 증가율은 3.2%, 유형자산 증가율 13.5%, 매출액 증가율은 6.6%로 전반적인 성장성이 둔화되었다.

## 마. 빵·과자류

기타식품 제조업에 속하는 떡, 빵 및 과자류제조업은 2009년 출하액 4조 3,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떡류는 2,200억원으로 5.3% 증가, 빵류는 12.8% 증가한 반면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제조업이 2조5,590억원으로 무려 9.7% 감소하여 전체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자류 주요 품목인 초콜릿류, 껌, 스낵류는 각각 7.4%, 60.0%,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타 식품의 2008년도 총자산 증가율 17.3%, 유형자산 증가율 19.9%, 매출액 증가율은 14.9%에 비해 2009년에는 총자산 증가율은 12.2%, 유형자산 증가율 8.0%, 매출액 증가율은 10.7%로 전반적인 성장성이 둔화되었다.

#### 바. 면류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은 2009년 출하액 2조 1,6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2% 성장했다. 그러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의 감소폭이 큰데 2009년 생산액이 1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면 시장의 감소는 웰빙 지향적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청소년층의 라면 소비가 정체를 보이고 있고 라면의 주요 생산 기업들이 해외 수출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분석된다. 반면 국내 소비용 라면은 보다 건강에 유의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 등 보다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제품들을 출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라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류는 냉면 5.3% 감소를 제외하고는 국수 16.7%, 당면 15.9%, 기타 유사국수 24.3%, 기타 인스턴트면류 6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사. 식용유지

동물성 및 식물성유지 제조업은 동물성유지 제조업, 식물성유지 제조업, 식용정제주 및 가공유제조업으로 구성되며 2009년 2조 2,090억원의 출하액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는데 감소세에는 17.2% 감소한 동물성유지 제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용량이 많은 대두유, 옥수수유 생산량이 각각 1.9%, 33.5% 감소했다.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은 참기름이 44.9%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쇼트닝이 14.8% 증가했다.

### 아. 조미료/식품첨가물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2009년 3조 5,370억원 출하액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성장했다.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은 1,510억원으로 14.7% 감소, 천연 및 혼합조제조미료 제조업은 19.8% 증가, 장류제조업은 26.7% 증가, 기타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웰빙 지향적인 식생활의 영향이 장류산업과 천연조미료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생산량은 모두 증가했는데 간장은 전년 대비 27.2%, 23.5%, 61.8% 각각 증가했다. 직접 장을 담그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그 동안 공장에서 생산되는 간장, 된장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고추장의 경우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된다.

### 자. 기타 식료품

기타 식료품 제조업은 수프 및 균질화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차류가공업 성장에 힘입어 2009년 출하액 5조 1,37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9% 성장한 규모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산업은 수프 및 균질화식품가공업으로 무려 167.2%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8.8%, 커피가공업으로 10.7%, 차류가공업 16.6%, 도시락 및 식사용조리식품 제조업 1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프 및 균질화식품가공업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이유식으로 1,166억원의 생산액으로 전년 대비 무려 323% 증가했다. 2004년 900억원 규모였던 것이 감소세를 보여 2008년 270억원 규모까지 감소했던 생산액이 2009년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인해 가공 이유식에 대한 소비 증가 뿐 아니라 수입산 이유식에 대한 선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차류 생산액은 녹차를 제외한 품목 전반이 증가했는데 홍차 272.4%, 울무차 219.4%, 치커리차, 보리차 및 옥수수차 98.7%, 꿀차 82.0%, 유자차 24.9%, 순으로 집계되었다.

커피제조업에서는 원두커피의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9년 1,027억원 생산되어 전년에 비해 209.3% 증가했다.

#### 차. 비알콜음료

비알콜음료 제조업은 2009년 3조 3680억원의 출하액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얼음 제조업은 출하액 230억원으로 4.2% 감소했으며 생수 생산업은 3,380억원으로 13.1% 증가, 기타 비알콜음료제조업은 3조 70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콜라는 7.8%, 사이다는 16.4% 감소한 반면 식물성 섬유음료는 20.7% 증가했다. 이 밖에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은 인삼음료와 커피음료로 각각 19.9%, 9.5%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품목은 과일음료, 채소음료, 두유로 각각 7.4%, 59.4%, 3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알콜음료 및 얼음식품의 2008년도 총자산 증가율 -1.8%, 유형자산 증가율 7.9%, 매출액 증가율은 2.8%에 비해 2009년에는 총자산 증가율은 40.4%, 유형자산 증가율 47.5%, 매출액 증가율은 2.6%로 전반적인 성장성이 증가하였다.

#### 카. 알콜음료

알콜음료 제조업은 2009년 4조 5,240억원의 출하액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발효주제조업은 2조 3,810억원으로 5.05% 증가했으나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이 2조 1,430억원으로 6.9% 감소했다.

발효주제조업 중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진 품목은 청주와 탁주로 전년 대비 각각 85.6%, 50.9% 증가했으며 복분자주는 23.05% 감소했다. 맥주는 2.8%, 포도주 및 샴페인 2%로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증류주의 주 원료가 되는 주정 생산량은 9.6% 증가했으나 소주는 8.1%했으며 위스키 생산량도 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음료는 2008년도 총자산 증가율 4.6%, 유형자산 증가율 9.7%, 매출액 증가율 3.6%에 비해 2009년에는 총자산 증가율은 16.6%, 유형자산 증가율 22.2%, 매출액 증가율은 5.7%로 전반적인 성장성이 증가하였다. 알코올음료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14.1%, 매출액 영업이익률 19.5%로 수익성이 2008년에 비해 양호해졌다.

## 1.2 산업 구조

음식료품 제조업의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9년 음식료품 제조업은 전년대비 성장하는 추세로 사업체수는 연간 4천개 이상, 종사자 수는 16만명 이상, 출하액은 60조, 주요 생산비는 40조, 부가가치는 21.8조의 규모로 분석된다.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부문별 출하액 비중을 보면 육가공부문이 1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 12.9%, 곡물가공 부문 10%, 기타식료품 부문 10.0%, 알코올음료 부문 8.8%, 떡·빵·과자류 부문 8.4%, 조미료/첨가물 부문 6.9%, 수산가공 부문 6.8%, 비알코올음료 부문 6.5%, 식용유지 부문 4.3%, 면류 부문 4.2%, 과채가공 부문 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성장 추이를 보면 식용유지와 과채가공, 곡물가공, 면류, 기타 식료품 부문이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곡물가공과 육가공은 각각 16.5%와 15.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강세를 나타냈다. 식용유지의 경우 '06년 이후 인스턴트 식품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식용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두유 조유 수입을 통한 정제유 가공이 늘어나 연평균 약 2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2009년에 들어서면서 출하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t;표 1-14&gt;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단위 : 십억원 %)

	2006		2007		2008		2009	
	출하액	비중	출하액	비중	출하액	비중	출하액	비중
육가공	5,870	15.1%	6,414	15.3%	7,346	15.7%	8,956	17.4%
수산가공	2,630	6.8%	2,848	6.8%	3,073	6.6%	3,482	6.8%
과채가공	1,457	3.7%	1,666	4.0%	1,836	3.9%	1,968	3.8%
식용유지	1,486	3.8%	1,312	3.1%	2,460	5.3%	2,209	4.3%
유가공	5,605	14.4%	5,900	14.1%	5,850	12.5%	6,629	12.9%
곡물가공	3,242	8.3%	3,558	8.5%	4,268	9.1%	5,129	10.0%
떡,빵, 과자류	3,454	8.9%	3,827	9.2%	4,426	9.5%	4,340	8.4%
면류	1,593	4.1%	1,861	4.5%	1,979	4.2%	2,160	4.2%
조미료/첨가물	2,868	7.4%	2,810	6.7%	2,964	6.4%	3,537	6.9%
기타 식료품	3,719	9.6%	4,100	9.8%	4,396	9.4%	5,137	10.0%
알콜음료	3,872	10.0%	4,316	10.3%	4,571	9.8%	4,524	8.8%
비알콜음료	3,062	7.9%	3,207	7.7%	3,487	7.5%	3,368	6.5%
합계	38,856	100.0%	41,819	100.0%	46,656	100.0%	51,439	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 조사”

주 :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9차 개정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이 77.4%, 음료품이 22.6%를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중에서는 유가공 부문이 1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 12.0%, 떡,빵, 과자류 부문 11.1%, 기타 식료품 부문 10.7%, 조미료/첨가물 부문 6.6%, 곡물가공 부문 6.5%, 수산가공 부문 6.1%, 면류 부문 4.0%, 과채가공 부문 3.9%, 식용유지 부문 2.9%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에서는 알코올음료 부문이 13.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알콜음료 부문도 8.8%를 차지하여 생산액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측면에서 음식료품제조업에서의 중요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 1-15&gt;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부가 가치	비중
육가공	1,630	10.0%	1,949	11.1%	2,087	11.3%	2,369	12.0%
수산가공	946	5.8%	1,107	6.3%	988	5.3%	1,212	6.1%
과채가공	583	3.6%	697	4.0%	738	4.0%	774	3.9%
식용유지	383	2.4%	377	2.1%	523	2.8%	577	2.9%
유가공	2,406	14.8%	2,668	15.1%	2,416	13.1%	2,698	13.6%
곡물가공	1,031	6.3%	898	5.1%	1,057	5.7%	1,289	6.5%
떡,빵, 과자류	1,858	11.4%	2,129	12.1%	2,314	12.5%	2,192	11.1%
면류	606	3.7%	796	4.5%	789	4.3%	799	4.0%
조미료/첨가물	1,175	7.2%	946	5.4%	1,036	5.6%	1,302	6.6%
기타 식료품	1,595	9.8%	1,687	9.6%	1,889	10.2%	2,113	10.7%
알콜음료	2,439	15.0%	2,752	15.6%	2,818	15.2%	2,720	13.8%
비알콜음료	1,592	9.8%	1,624	9.2%	1,829	9.9%	1,731	8.8%
합계	16,245	100.0%	17,630	100.0%	18,485	100.0%	19,777	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 조사”

주 :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9차 개정

2009년도 음식료품 전체의 부가가치율은 38.4%로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33.3%에 비해 5.1%p 높았다.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비율을 살펴보면, 식료품이 38.4%, 음료품이 56.4%로 음료품이 월등히 높고 전체 음식료품 평균은 40%였으나, '01년 이후 음식료품 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료품 중에서는 떡·빵·과자류 부문이 5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식료품 부문이 41.1%, 유가공 부문이 40.7%, 과채가공 부문이 39.3%, 면류 부문 39.9%, 조미료/첨가물 부문이 36.8%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고, 곡물가공, 식용유지, 육가공 부문은 각각 25.1%, 26.1%, 26.5%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용유지를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에서 2006년부터 부가가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09년에는 56.4%를 기록하였고 알코올 부문의 부가가치율은 60.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비알콜음료 부문은 51.4%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16>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현황

(단위: %)

	2006	2007	2008	2009
음식료품	41.8%	42.2%	39.6%	38.4%
식료품	38.3%	38.6%	35.9%	35.2%
육가공	27.8%	30.4%	28.4%	26.5%
수산가공	36.0%	38.9%	32.1%	34.8%
과채가공	40.0%	41.8%	40.2%	39.3%
식용유지	25.8%	28.7%	21.3%	26.1%
유가공	42.9%	45.2%	41.3%	40.7%
곡물가공	31.8%	25.2%	24.8%	25.1%
떡, 빵, 과자류	53.8%	55.6%	52.3%	50.5%
면류	38.0%	42.8%	39.9%	37.0%
조미료/첨가물	41.0%	33.7%	35.0%	36.8%
기타 식료품	42.9%	41.1%	43.0%	41.1%
음료품	58.1%	58.2%	57.7%	56.4%
알코올음료	63.0%	63.8%	61.6%	60.1%
비알콜음료	52.0%	50.6%	52.5%	51.4%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 조사”

주 :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9차 개정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식료품 부문이 93.6%인 3,694개소이고 음료품 부문이 6.4%인 25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수산가공 부문이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식료품 부문 16.7%, 육가공 부문 15.4%, 과채가공 부문 10.8%, 떡·빵·과자류 부문 10.1%, 조미료/첨가물 부문 7.2%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이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증가율을 보면 곡물가공 부문이 6.2%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육가공 부문도 3.7%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식용유지, 알콜음료, 면류, 비알콜음료, 떡·빵·과자류, 기타 식료품, 과채가공 부문은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가공 부문은 큰 변동이 없다.

<표 1-17>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육가공	546	14.2%	590	14.6%	585	15.2%	608	15.4%
수산가공	775	20.2%	824	20.4%	790	20.6%	806	20.4%
과채가공	429	11.2%	438	10.9%	423	11.0%	425	10.8%
식용유지	66	1.7%	69	1.7%	65	1.7%	60	1.5%
육가공	103	2.7%	104	2.6%	103	2.7%	103	2.6%
곡물가공	233	6.1%	257	6.4%	248	6.5%	279	7.1%
떡, 빵, 과자류	411	10.7%	431	10.7%	390	10.1%	399	10.1%
면류	75	2.0%	75	1.9%	75	2.0%	72	1.8%
조미료/첨가물	272	7.1%	289	7.2%	268	7.0%	283	7.2%
기타 식료품	670	17.4%	674	16.7%	637	16.6%	659	16.7%
알콜음료	98	2.6%	102	2.5%	93	2.4%	94	2.4%
비알콜음료	165	4.3%	177	4.4%	167	4.3%	159	4.0%
합계	3,843	100.0%	4,030	100.0%	3,844	100.0%	3,947	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 조사”

주 :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9차 개정

매출액 규모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을 보면 연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수는 51개소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미만 업체수는 14,754개소로 전체 식품산업 업체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액은 전체의 6% 규모로 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현황을 보면,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가 8.2% 감소하였으며, 10~100억원 규모의 업체가 10.7% 감소였고, 100~1000억원 업체가 9.3%, 1000억원 이상 업체가 6.9% 증가하여 식품산업이 규모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8> 매출액 규모별 식품산업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계	17,529	280,796	18,169	288,716	18,892	312,268	17,341	346,763
10억원 미만	15,398	20,284	15,968	21,610	16,515	22,452	14,754	21,184
10-100억원	1836	52,209	1915	55,343	2051	60,215	2,241	66,891
100-1000억원	254	70,219	240	62,390	276	71,376	295	76,554
1000억원 이상	41	138,084	46	149,374	50	158,224	51	182,134

주 : 1) 건강기능식품, 용기 및 포장산업의 매출액 규모별 고용 현황은 생산실적 자료에서 제외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 1.3 고용과 임금

2009년 식품산업의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158,856명으로, 2007년 전년대비 3.5% 감소, 2008년 1.5% 증가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1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육가공	24,345	16.3%	25,977	16.7%	25,610	16.8%	27,650	17.4%
수산가공	22,590	15.1%	22,736	14.7%	22,481	14.7%	24,101	15.2%
과채가공	13,033	8.7%	13,699	8.8%	13,484	8.8%	14,357	9.0%
식용유지	2,414	1.6%	1,855	1.2%	2,470	1.6%	2,450	1.5%
유가공	10,459	7.0%	10,159	6.5%	9,530	6.2%	9,235	5.8%
곡물가공	6,421	4.3%	6,702	4.3%	7,198	4.7%	7,672	4.8%
떡, 빵, 과자류	17,910	12.0%	19,106	12.3%	18,776	12.3%	19,510	12.3%
면류	6,724	4.5%	7,028	4.5%	6,171	4.0%	6,070	3.8%
조미료/첨가물	9,213	6.2%	9,828	6.3%	9,392	6.1%	9,945	6.3%
기타 식료품	22,931	15.4%	24,534	15.8%	24,685	16.2%	24,757	15.6%
알콜음료	6,513	4.4%	6,373	4.1%	6,478	4.2%	6,662	4.2%
비알콜음료	6,828	4.6%	7,105	4.6%	6,470	4.2%	6,447	4.1%
합계	149,381	100.0%	155,102	100.0%	152,745	100.0%	158,856	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 조사”

주 :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 9차 개정

부문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식료품 부문이 전체 고용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육가공 부문이 17.4%, 기타식료품 부문이 15.6%, 수산가공 부문이 15.2% 순으로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떡·빵·과자류 부문도 12.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종업원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50인 미만 업체가 전체 사업체 수의 대부분인 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300인 규모의 사업체수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업체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lt;표 1-20&gt; 사업장 종업원 규모별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업체수	매출액
계	17,529	280,796	18,169	288,716	18,892	31,2268	17,341	346,763
50인 미만	16,889	73,215	17,546	77,850	18,245	89,597	16,660	90,889
50-300인	516	49,366	560	75,684	581	86,866	621	97,173
300인 이상	69	34,539	52	83,536	55	135,805	51	158,70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2009년도 식약청 식품및식품첨가물 실적에 의하면 식품산업 품목군별 총 종업원 수는 총 457,047명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품목군별로 보면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 종업원 수가 58,315명으로 전체 종업원수의 12.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식품류가 51,872명으로 전체 11.3%를 차지하고 있다. 기구및용기포장류가 7.0%, 장류가 6.8%, 과자류 6.6%, 빵또는떡류 6.4% 순으로 종업원수가 많았다.

&lt;표 1-21&gt; 식품산업 품목군별 종업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품목군	2007	2008	2009
품목 허가신고	식품첨가물	14,102	15,029	17,868
식약청	식품조사처리	58	53	196
	건강기능식품	18,661	19,528	11,186
시군구	과자류	44,993	29,865	30,118
	아이스크림류	5,072	-	-
	빵또는떡류	-	27,063	29,268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12,492	11,630



구분	품목군	2007	2008	2009
	설탕류	-	2,810	3,692
	당류	3,077	-	-
	설탕	-	663	510
	포도당	-	646	639
	과당	-	655	724
	엿류	-	1,917	3,655
	당시럽류	-	562	364
	올리고당류	-	840	1,268
	기타 식육가공품	11,907	-	-
	식육 또는 알가공품	-	15,112	13,361
	어육제품	6,508	-	-
	어육가공품	-	6,286	6,989
	두부류 또는 묵류	5,867	5,774	6,851
	식용유지류	-	10,550	10,722
	면류	15,344	15,547	14,872
	다류	23,336	19,579	20,562
	커피	-	9,823	8,006
	음료류	21,976	26,292	26,546
	특수용도식품	6,700	5,297	4,547
	조미식품	36,511	12,428	12,495
	장류	-	28,756	30,864
	드레싱	-	3,885	4,082
	김치, 절임식품	25,508	-	-
	김치류	-	11,166	12,038
	젓갈류	-	6,069	6,883
	절임식품	-	13,344	13,857
	조림식품	-	4,620	5,914
	건포류	4,699	4,299	4,597
	기타식품류	42,614	51,167	51,872
	얼음	2,205	-	-
	인삼제품류	13,883	-	-
	일반가공식품	58,319	-	-
	규격외 일반가공품	-	57,258	58,315
	기구 및 용기포장	29,063	29,862	32,089
	용기류	293	289	467
농림수산 식품부	식육가공품	-	23,243	-
	유가공품	-	10,984	-
	알가공품	-	1,389	-
	계	390,696	485,142	457,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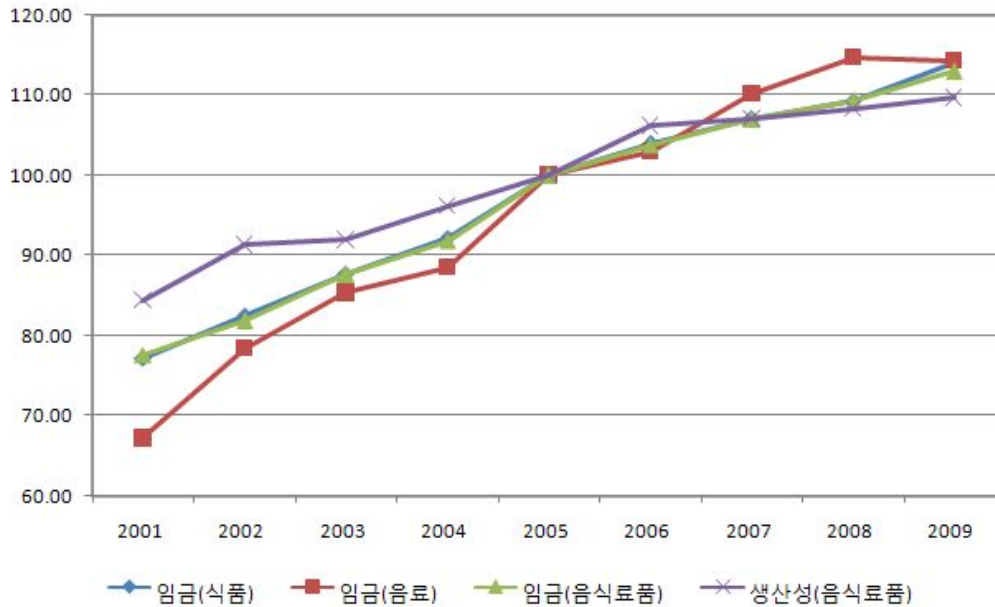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임금 및 노동생산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음식료품 임금 지수는 2001년 77.66에서 상승하여 2008년 109.23, 2009년에 112.98로 2009년에 110을 넘어섰다.

식품산업의 1인당 임금 지수는 2001년도 77.17에서 상승하여, 2008년 109.34, 2009년 114.04를 기록하였고, 음료품의 1인당 임금 지수는 2001년 67.15에서 2008년 114.71, 2009년 114.27로 1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음식료품 생산성지수를 살펴보면, 2001년에 84.4에서 매년 상승하여, 2008년에 108.3, 2009년에 109.7로 임금 지수에 비해 생산성 지수가 낮아 제조업체들의 경영수지를 압박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14> 음식료품제조업 임금 및 노동생산 변동추이(2005=100)



제조업생산지수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에 소폭 감소하였고 음식료품 제조업은 2007년 이후, 음료제조업은 2008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로 분석되었다.

<표 1-22> 음식료품제조업 생산지수(2005=10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00.0	108.7	116.4	120.3	119.2
식료품제조업	100.0	101.7	101.8	99.4	99.1
음료제조업	100.0	99.4	101.7	104.8	99.7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10

전체 제조업의 가동률지수는 2008년부터 감소추세이며, 식료품제조업은 2005년 이후 소폭 감소 후 2009년에 99.8로 증가하였고, 음료제조업은 2008년에 비해 감소한 96.8이었다.

<표 1-23> 음식료품 가동률 지수(2005=10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조업	100.0	100.3	100.4	97.2	93.5
식료품제조업	100.0	98.5	98.2	98.8	99.8
음료제조업	100.0	99.0	99.2	103.1	96.8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10

## 1.4 기업 경영현황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성 분석 결과, 비알콜음료 및 얼음 분야, 음료, 기타 식품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료품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8년 18.67%에서 2009년 10%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 2.21%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료품제조업 중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으로 2008년 대비 12.69% 매출이 증가했다. 음료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4.3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lt;표 1-24&gt; 식품산업 성장성 분석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총자산 증가율	유형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유형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제조업	13.59	4.89	9.32	19.13	15.47	20.43	8.77	8.04	2.21
(대 기업)	14.49	3.63	10.25	20.87	13.86	21.99	6.59	6.57	0.39
(중소기업)	11.79	7.85	7.75	16.24	18.26	18.05	12.63	10.65	5.00
식료품	10.27	5.22	4.93	20.15	18.22	18.67	9.20	8.83	10.00
(대 기업)	10.69	3.27	5.1	21.37	21.39	15.35	8.13	10.32	11.19
(중소기업)	9.72	7.81	4.74	18.69	14.69	22.31	10.56	7.03	8.78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 공업	11.51	14.02	7.27	22.13	18.48	23.55	10.40	9.30	12.69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9.52	5.59	3.18	6.41	5.08	15.01	6.72	4.33	7.70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8.59	2.97	4.59	32.87	22.31	22.11	3.21	13.53	6.56
기타 식품	11.09	2.65	4.43	17.3	19.86	14.91	12.19	8.01	10.74
음료	3.01	0.4	1.16	2.7	9.08	3.26	23.36	30.87	4.38
대기업	2.87	0.11	1.81	1.87	8.96	4.21	29.63	38.52	4.87
중소기업	4.09	2.66	-1.86	5.45	9.53	0.59	4.45	5.68	3.08
알콜음료	3.36	-0.17	2.09	4.58	9.72	3.59	16.55	22.20	5.66
비알콜음료 및 얼음	2.14	1.67	-0.37	-1.79	7.89	2.79	40.39	47.49	2.5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0

국내 식품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음료 및 알콜음료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전체 제조업이 4.89%이고 그 중 대기업 5.9%에 비해 중소기업이 3.4%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료품제조업 역시 대기업 5.51%에 비해 중소기업은 2.82%로 제조업 중에서도 낮았다.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인 0.96%에 비해 2.4%로 식료품제조업의 중소기업 수익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1-25&gt; 식품산업 수익성 분석(2009)

(단위 : %)

	총자산경상 이익율	매출액경상 이익율	매출액영업 이익율
<b>제조업</b>	5.25	4.89	6.15
(대 기 업)	5.96	5.90	6.54
(중소기업)	4.02	3.40	5.58
<b>식료품제조업</b>	5.19	4.20	5.06
(대 기 업)	6.25	5.51	6.22
(중소기업)	3.84	2.82	3.82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가공업	3.75	2.21	3.86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8.53	6.24	5.02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 및 조제식품	4.86	4.15	3.92
기타 식품	5.28	5.07	6.51
<b>음료제조업</b>	5.45	9.32	12.91
(대기업)	5.40	9.75	13.89
(중소기업)	5.58	8.15	10.20
알콜음료	7.06	14.11	19.51
비알콜음료 및 얼음	1.80	2.34	3.2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0

## 제 2 절 외식산업

### 2.1 산업동향

'05년부터 '09년까지 기간 동안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가구의 외식비 지출이 2005년 25만원 규모에서 2009년 27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의 식료품 지출 현황은 평균 30만원으로 근로자는 이보다 약간 높은 31만원이었고, 외식의 경우 전 가구는 28만원, 근로자 가구는 30만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외식비 지출 평균이 높았다.

<표 1-26> 외식비 지출 현황(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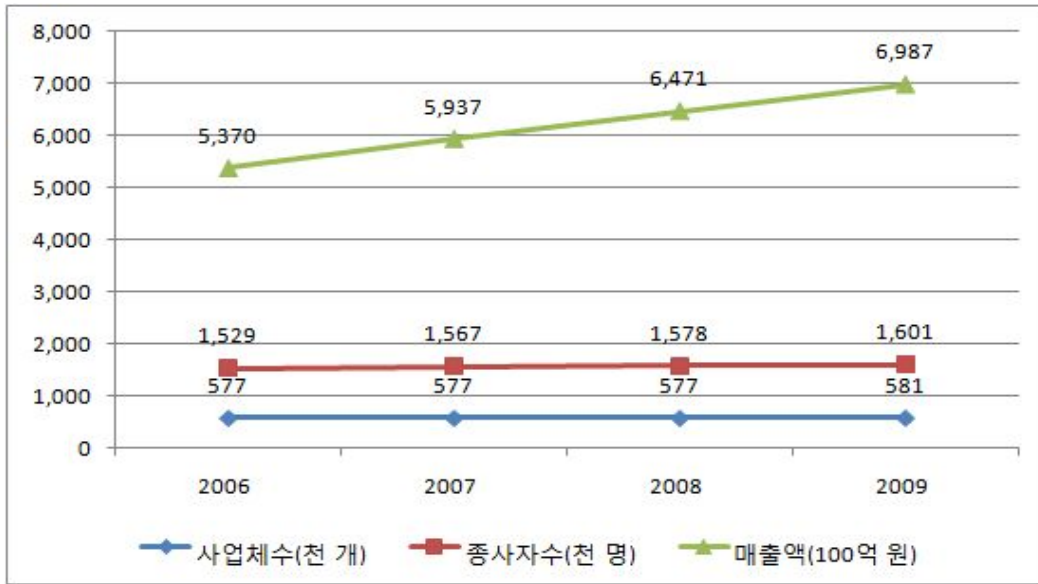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식료품	전가구	280,501	283,382	284,911	306,514	306,611
	근로자가구	278,062	280,465	283,100	306,062	309,964
외식	전가구	253,563	254,625	265,139	280,857	275,346
	근로자가구	275,675	279,702	293,663	311,034	303,193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반적인 외식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및 단독가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인해 외식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식비 지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 외식시장도 2009년 69조원 시장 규모로 전년 대비 8% 이상 성장했다. 연평균 9.5%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외식 시장은 2005년 4.4% 매출 감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1-15> 외식업 성장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총사업체조사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수는 2006년 약 153만명에서 2009년 160만명으로 연평균 0.2% 증가하였으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6년 2.7명에서 2009년 2.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매출액 1억원당 종사자 수는 2006년 2.8명에서 2009년 2.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액 대비 종사자 수의 감소 이유로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메뉴의 간편화 내지 전문화, 외식프랜차이즈 확대, 주방의 현대화 등의 축진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006년 93.1백만원에서 2009년 120.4백만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8.9%로 증가하며,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액 대비 종사자 수가 감소세를 띠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변동이 미미한 것 또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사업체당 영업비용의 경우, 2006년 68.3백만원에서 2009년 95.8백만원으로 연평균 1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사업체당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8.9%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2006년 26.6%에서 2009년 20.4%로 연평균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사업체당 매출액 증가율, 사업체당 건물면적, 100㎡당 매출액과 같은 전반적인 경영성과 지표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경영성과가 부진한 한계 사업체의 퇴출 등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7> 외식산업 경영성과 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93.1	102.8	112.2	120.4
- 전년대비 변동률(%)	7.1	10.5	9.1	7.3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68.3	76.6	86.4	95.8
- 전년대비 변동률(%)	8.1	12.1	12.9	10.8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2.7	2.7	2.7	2.8
- 전년대비 변동률(%)	-2.3	2.4	0.7	0.8
사업체당 건물영면적(㎡)	97.5	103.5	101.5	105.0
- 전년대비 변동률(%)	5.0	6.2	-2.0	3.5
영업이익률(%)	26.6	25.5	22.9	20.4
매출 1억원당 종사자수(명)	2.8	2.6	2.4	2.3
종사자 1인당 인건비(백만원)	4.7	6.0	6.3	6.8
건물 100㎡당 매출액(백만원)	95.5	99.3	110.5	114.6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총사업체조사

업체별 매출액 및 점포수 동향을 살펴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면 2009년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8,017억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2008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포수의 경우에도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0.8% 감소한 256개에서 2009년에는 268개로 전년 대비 증가율 5.1%로 반등하였으나, 2007년의 287개보다는 적은 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패밀리 레스토랑업체의 점포당 매출액은 2004년 32.0억원에서 2007년 28.8억원으로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008년부터는 부실 점포 정리를 통한 수익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식재료비 및 인건비, 임대료 및 각종 경비 등 원가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외식소비는 줄어들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업체들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28>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업체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매출액						점포수					
	'04	'05	'06	'07	'08	'09	'04	'05	'06	'07	'08	'09
아웃백	1,600	2,200	2,500	2,700	2,750	2,774	50	70	88	98	101	102
빔스	710	1,300	2,400	2,700	2,500	2,800	22	41	67	80	80	74
TGIF	1,000	1,100	1,300	1,100	800	630	33	39	51	51	30	31
베니건스	826	880	1,000	853	938	900	20	26	31	32	30	26
마르쉐	300	300	250	514	520	630	9	9	7	6	5	4
씨즐러	180	210	220	170	140	60	6	7	8	8	5	2
토니로마스	146	153	158	120	99		7	7	7	6	5	15
세븐스프링스	—	—	—	—	—	223	—	—	—	—	—	15
카후나빌	38	53	57	110	—	—	3	3	3	6	—	—
합계	4,800	6,196	7,885	8,267	7,747	8,017	150	202	262	287	256	269

자료 :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10

피자업계도 밀가루 및 유제품 등 주요 식재료 가격상승에 의한 소비자가격 인상, 가짜치즈 사건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피자에땅’과 ‘빨간모자’의 매출액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2008년의 피자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1조 1,550억원에 그쳤으며, 2009년에도 매출액 통계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경기 불황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자 업계는 기준에 맞는 제품 개선, 식품 위생관리 등에 주력해 왔으며, 웰빙 시대에 맞춰 건강 지향적인 메뉴 개발에 매진하며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표 1-29&gt; 주요 피자업계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매출액						점포수					
	'03	'04	'05	'06	'07	'08	'03	'04	'05	'06	'07	'08
피자헛	3,500	3,900	4,000	4,000	4,000	4,300	300	340	340	340	330	330
미스터피자	1,000	1,500	1,800	2,400	3,200	3,900	218	247	250	300	320	350
도미노피자	1,000	1,500	2,000	2,400	2,500	3,000	190	220	280	287	289	305
피자에땅	—	450	800	1,200	1,500	—	—	162	268	303	350	—
파파존스	—	50	120	250	310	350	—	—	39	54	65	70
빨간모자	72	84	88	140	200	—	18	21	22	24	30	—
합계	5,572	7,484	8,808	10,390	11,710	11,550	726	990	1,199	1,308	1,384	1,055

주 : 1) 2009년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자료 :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10

패스트푸드는 광우병 파동과 비만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인한 시민단체의 안티패스트푸드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04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으나 그 후 저칼로리와 씨푸드 등 웰빙 트렌드를 겨냥한 신메뉴의 개발, 가격할인과 판촉 등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가 비만을 유발하는 정크푸드라는 소비자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KFC나 버거킹 업체의 매출액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푸드 업계를 대표하는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3사의 2008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318억원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리아의 점포당 매출액은 '00년 7.7억원에서 '05년 4.8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07년에는 5.3억원,

'08년에는 5.9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FC는 '04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여 '08년에는 점포당 매출액이 10.5억원에 달해 패스트푸드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파이스의 경우에는 롯데리아와 마찬가지로 '05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0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08년에는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30&gt;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매출액						점포수					
	'04	'05	'06	'07	'08	'09	'04	'05	'06	'07	'08	'09
롯데리아	4,500	3,800	3,620	4,000	4,400	3,758	839	800	730	750	750	797
맥도날드	—	—	—	—	—	—	328	305	300	—	235	239
KFC	1,700	1,600	1,520	1,520	1,470	—	195	179	162	151	140	120
파파이스	1,000	—	611	498	478	442	180	150	123	120	96	115
버거킹	760	700	—	—	—	1,023	91	95	87	87	92	102
합계	7,960	6,100	5,751	6,018	6,348	5,223	1,633	1,529	1,402	1,108	1,313	1,373

자료 :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10

최근 학교와 직장에서의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위탁급식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매년 두 자리수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아워홈의 경우 2009년에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조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삼성에버랜드(주)와 CJ프레시웨이(주)가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한화호텔&리조트와 이씨엠디 또한 전년대비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는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위탁 급식업체의 매출 신장세는 식자재 유통과 컨세션분야 진출 등의 사업 다각화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학교급식이 직영화 될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t;표 1-31&gt; 주요 위탁급식업체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아워홈	3,500	3,550	4,200	7,567	9,000	10,200
CJ프레시웨이(주)	2,020	2,000	1,550	6,107	6,800	7,472
삼성에버랜드(주)	3,700	4,100	4,300	5,700	6,700	7,500
(주)신세계푸드	1,481	1,677	1,986	3,550	4,191	—
(주)현대푸드시스템	2,200	2,700	2,900	2,900	3,318	—
한화호텔&리조트	1,000	1,150	1,310	1,500	1,900	2,432
이씨엠디	890	1,030	1,147	1,350	1,550	1,904
(주)동원홈푸드	—	—	—	—	1,250	1,323
아라코(주)	901	1,000	1,200	1,300	1,350	1,000
합계	15,692	17,207	18,593	29,974	36,059	31,831

주 : 1) 2007년 업체별 자료는 식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09

월간식당, 외식업계 2009 결산 및 2010 전망

## 2.2 산업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 의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은 크게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업으로 분류되며, 음식점업은 다시 일반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업, 기타 음식점업으로 세분된다.

이들 음식점 및 주점업의 2009년도 업종별 사업체 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업이 54.5%, 기타 음식점업 17.3%, 기관구내식당업 0.8%, 출장 및 이동음식업 0.1%로 음식점업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점업이 22.5%, 비알콜음료점업이 4.8%를 차지하였다.

2007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일반 음식점업은 사업체수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기관구내식당업은 연평균 5.8%, 비알콜음료점업은 연평균 3.6%, 주점업은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출장 및 이동음식업은 연평균 0.1% 감소하였다.

&lt;표 1-32&gt;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7		2008		2009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음식점 및 주점업	577,258	100.0	576,990	100.0	580,505	100.0
일반 음식점업	315,944	54.7	317,077	55.0	316,183	54.5
기관구내식당업	4,076	0.7	4,309	0.7	4,566	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470	0.1	473	0.1	469	0.1
기타 음식점업	103,138	17.9	98,849	17.1	100,638	17.3
주점업	127,740	22.1	130,003	22.5	130,881	22.5
비알콜 음료점업	25,890	4.5	26,279	4.6	27,768	4.8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2009년도 기준 전체 외식업체 종사자수의 77.0%에 해당하는 약 123만명이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37만명 수준으로 2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성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924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5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점, 분식점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음식점업이 16.8%, 기관구내식당업 2.3%, 출장 및 이동음식업 0.2%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업종에서 종사자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알콜 음료점업의 경우 연평균 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은 연평균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33&gt;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점 및 주점업	1,567,414	100.0	1,578,068	100.0	1,600,718	100.0
일반 음식점업	916,194	58.5	918,051	58.2	924,316	57.7
기관구내식당업	32,850	2.1	33,975	2.2	36,178	2.3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3,395	0.2	2,850	0.2	2,878	0.2
기타 음식점업	261,919	16.7	258,450	16.4	269,712	16.8
주점업	296,149	18.9	303,955	19.3	300,951	18.8
비알콜 음료점업	56,907	3.6	60,787	3.9	66,683	4.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전체 외식산업 매출액에서 음식점업 매출액 비중이 80.3%,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이 1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업 매출액이 약 42조원으로 전체 외식산업 매출액의 5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점, 분식점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음식점업의 매출액이 약 11조원으로 16.4%, 기관구내식당업은 약 3조원으로 4.1%, 출장 및 이동음식업은 1,390억원으로 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도 매출액과 비교해 볼 때,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은 연평균 9.0% 감소한 반면, 기타 음식점업이 연평균 12.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다른 업종들도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다.

&lt;표 1-34&gt;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음식점 및 주점업	59,365	100.0	64,712	100.0	69,865	100.0
일반 음식점업	36,324	61.2	38,887	60.1	41,719	59.7
기관구내식당업	2,395	4.0	2,741	4.2	2,833	4.1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68	0.3	135	0.2	139	0.2
기타 음식점업	9,030	15.2	10,179	15.7	11,430	16.4
주점업	9,724	16.4	10,847	16.8	11,626	16.6
비알콜 음료점업	1,724	2.9	1,923	3.0	2,119	3.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2009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음식점업 구성비를 보면 연간 매출액 2천만원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전체 사업체의 11.3%, 고용인력 비율은 5.9%, 매출액 비중은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은 27.4%, 종사자수 비중은 16.5%, 매출액은 6.7%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영세업체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분류기준이 조금은 다르지만 2000년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61.2%인 것에 견주어 볼 때 영세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31.3%, 종사자수 38.7%, 매출액 43.2%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매출액 모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수의 56.7%, 종사자수는 58.6%, 매출액은 56.2%를 차지하여 국내 음식점의 상당수가 이 그룹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수도 1.6%, 이들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중은 10.7%, 매출액은 약 21.7%에 달해, 전체적으로 업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1-35&gt; 매출액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9)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수	비중	인원	비중	금액	비중
2천만원 미만	47,535	11.3	72,674	5.9	524,974	0.9
2~5천만원 미만	115,672	27.4	202,973	16.5	3,738,888	6.7
5천만원~1억원 미만	107,336	25.4	245,339	19.9	7,268,163	13.0
1~5억원 미만	132,112	31.3	476,673	38.7	24,255,992	43.2
5~10억원 미만	12,668	3.0	102,838	8.3	8,136,603	14.5
10~50억원 미만	6,261	1.5	113,750	9.2	9,588,690	17.1
50억원 이상	272	0.1	18,837	1.5	2,607,310	4.6
합계	421,856	100.0	1,233,084	100.0	56,120,621	100.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종사자 규모별에 따른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을 보면 종사자수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수가 전체 사업체수의 88.6%, 고용인력은 66.1%, 매출액 비중은 51.6%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중은 9.2%, 고용 인력은 19.1%, 매출액은 25.1%의 비중을 나타내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을 적용한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업체수 비율이 97.8%로 국내 음식점의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비중은 85.2%, 매출액 비중은 76.7%로 고용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 1-36&gt;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9)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수	비중	인원	비중	금액	비중
1~4명	373,603	88.6	815,620	66.1	28,961,366	51.6
5~9명	38,813	9.2	235,217	19.1	14,106,988	25.1
10~19명	6,967	1.7	88,963	7.2	6,428,351	11.5
20명 이상	2,473	0.6	93,284	7.6	6,623,916	11.8
20~49명	2,047	0.5	59,647	4.8	4,099,260	7.3
50명 이상	426	0.1	33,637	2.7	2,524,656	4.5
합계	421,856	100.0	1,233,084	100.0	56,120,621	100.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음식점업 업종별 업체수 변동 추이를 보면 2009년 기준 일반음식점업의 업체수는 한식, 중식, 서양식이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일식은 2008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07년 보다는 낮은 수치로 여전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단 기타 외국식의 경우 전체 음식점업 대비 비중이 0.1~0.2%에 불과하지만 2007~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6.6%에 달했다. 2009년 일반음식점업 업체수는 316,183개소로 전체 음식점업 대비 7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한식의 비중이 6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37&gt; 음식점업 업종별 업체수 추이

(단위 : 개수 %)

구분		2007		2008		2009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합계		423,628	100.0	420,708	100.0	421,856	100.0
일반 음식점업	소계	315,944	74.6	317,077	75.4	316,183	75.0
	한식	276,273	65.2	279,702	66.5	278,978	66.1
	중식	22,433	5.3	21,771	5.2	21,466	5.1
	일식	6,524	1.5	6,022	1.4	6,268	1.5
	서양식	10,177	2.4	8,856	2.1	8,610	2.0
	기타 외국식	537	0.1	726	0.2	861	0.2
기관구내식당업		4,076	1.0	4,309	1.0	4,566	1.1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470	0.1	473	0.1	469	0.1
기타 음식점업	소계	103,138	24.3	98,849	23.5	100,638	23.9
	제과점업	11,644	2.7	12,513	3.0	13,223	3.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004	2.8	11,799	2.8	12,102	2.9
	치킨 전문점	23,622	5.6	24,906	5.9	26,156	6.2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2,063	12.3	45,701	10.9	45,454	10.8
	기타	3,805	0.9	3,930	0.9	3,703	0.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구내식당업은 최근 성장추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07년 4,076개소에서 2009년 4,566개소로 연평균 5.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대로 조금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2007~2009년까지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종별로 편차가 심한 상황으로 제과점은 2007년 11,644개소에서 2009년 13,223개소로 같은 기간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7%에서 2009년에는 3.1%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치킨 전문점도 연평균 5.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연평균 0.4%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분식 및 김밥전문점은 2007년 52,063개소에서 2009년 45,454개소로 연평균 6.6%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음식점업 대비 비중도 12.3%에서 10.8%로 하락하였다.

<표 1-38>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합계		47,917	100.0	51,942	100.0	56,121	100.0
일반 음식점업	소계	36,324	75.8	38,887	74.9	41,719	74.3
	한식	29,972	62.5	31,539	60.7	33,770	60.2
	중식	2,395	5.0	2,689	5.2	3,097	5.5
	일식	1,456	3.0	1,949	3.8	1,752	3.1
	서양식	2,402	5.0	2,542	4.9	2,840	5.1
	기타 외국식	100	0.2	169	0.3	258	0.5
기관구내식당업		2,395	5.0	2,741	5.3	2,833	5.0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168	0.3	135	0.3	139	0.2
기타 음식점업	소계	9,030	18.8	10,179	19.6	11,430	20.4
	제과점업	1,593	3.3	2,411	4.6	2,831	5.0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821	3.8	2,089	4.0	2,754	4.9
	치킨 전문점	1,593	3.3	1,924	3.7	2,208	3.9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087	6.4	2,802	5.4	2,722	4.9
	기타	936	2.0	952	1.8	915	1.6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한식 음식점업이 약 33.8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시장의 6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1%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업체당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31.9백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식 음식점업으로 전체 음식점업 매출액의 5.5%인 3조 원 가량을 기록, 사업체당 매출액도 연평균 16.3%의 증가율로 144.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눈에 띄게 고성장을 이룬 업종은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2007년 1천억원에서 2009년에는 연평균 61.0%의 고성장률로 매출액 2,58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업체당 매출액 또한 2007년 185.6백만원에서 2009년 299.8백만원으로 연평균 27.1% 증가하였다.

출장 및 이동 음식업은 2007년 매출 1,680억원에서 2009년 1,390억원으로 연평균 9.0%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매출액 또한 연평균 증감률 -8.9%로 2009년에는 296.1백만원에 그쳤다.

한편, 기타 음식점업에서는 제과점업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이 두 자리수의 연평균 성장률로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은 꾸준하게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사업체당 매출액은 출장 및 이동 음식업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음식점업의 고급화 및 대형화 추세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음식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고용 인력은 감소하였지만 한식 및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식은 연평균 0.9%의 증가율로 2009년에는 766,797명에 달해 전체 음식점업 대비 62.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은 음식점업 대비 비중은 0.3%에 그쳤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23.6%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lt;표 1-39&gt; 음식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합계		1,214,358	100.0	1,213,326	100.0	1,233,084	100.0
일반 음식점업	소계	916,194	75.4	918,051	75.7	924,316	75.0
	한식	753,861	62.1	763,508	62.9	766,797	62.2
	중식	72,102	5.9	70,166	5.8	70,740	5.7
	일식	31,066	2.6	28,473	2.3	28,830	2.3
	서양식	56,379	4.6	52,318	4.3	53,693	4.4
	기타 외국식	2,786	0.2	3,586	0.3	4,256	0.3
기관구내식당업		32,850	2.7	33,975	2.8	36,178	2.9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3,395	0.3	2,850	0.2	2,878	0.2
기타 음식점업	소계	261,919	21.6	258,450	21.3	269,712	21.9
	제과점업	39,401	3.2	43,688	3.6	48,641	3.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4,570	4.5	57,047	4.7	60,555	4.9
	치킨 전문점	48,585	4.0	52,113	4.3	56,197	4.6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08,376	8.9	94,139	7.8	93,682	7.6
	기타	10,987	0.9	11,463	0.9	10,637	0.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구내식당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7년 32,850명에서 2009년 36,178명으로 연평균 4.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7년 3,395명에서 2009년 2,878명으로 연평균 증감률 -7.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기타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분식 및 김밥 전문점에 종사하는 인력이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9%, 치킨 전문점 4.6%, 제과점업 3.9% 등의 순이었으나,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의 경우, 2007년 108,376명에서 2009년 93,682명으로 연평균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음식점 및 주점업은 55조 5,868억 4,000만원의 규모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반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도 전년대비 2009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40&gt;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영업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음식점 및 주점업	33,639,173	37,363,671	44,205,053	49,873,286	55,586,840
일반 음식점업	19,512,719	22,236,765	27,628,316	30,168,636	33,341,907
기관구내식당업	1,949,842	2,000,676	1,462,490	2,535,886	2,660,638
출장 및 이동 음식업	—	—	143,183	112,618	121,599
기타 음식점업	—	—	6,655,358	7,854,604	9,152,557
주점업	5,443,580	6,006,427	7,105,617	7,830,377	8,698,451
비알콜 음료점업	967,041	1,051,192	1,210,089	1,371,165	1,611,688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2009년 9,869,13400만원의 연간급여액 규모를 기록한 음식점 및 주점업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lt;표 1-41&gt;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연간급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음식점 및 주점업	6,516,906	8,623,106	9,202,837	9,869,134
일반 음식점업	4,006,608	5,464,411	5,727,243	6,184,623
기관구내식당업	398,729	401,022	520,735	536,765
출장 및 이동 음식업	—	36,589	29,144	30,978
기타 음식점업	—	1,156,466	1,253,281	1,428,482
주점업	942,201	1,277,121	1,351,035	1,328,840
비알콜 음료점업	219,293	287,498	321,398	359,446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 제 3 절 식품유통업

#### 3.1 산업 동향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0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의하면, 전년 동월대비 대형마트는 2.9%, 백화점은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가전·문화(-12.3%)는 감소한 반면, 식품(5.7%), 의류(6.0%) 등 나머지 상품군은 매출이 증가해 전체매출이 소폭 증가하였고, 백화점은 강한 한파로 의류와 난방기기 매출이 증가하고 연말선물수요 증가로 잡화(9.9%)·명품(20.8%) 매출이 증가해 전체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42> 월별 매출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	2010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형마트	3.9	-13.4	30.8	1.6	0.3	2.3	6.0	8.2	3.9	18.0	0.0	1.7	2.9
백화점	12.5	4.8	15.2	4.6	8.8	8.0	11.3	10.1	8.5	6.4	13.3	10.1	11.6

자료 : 지식경제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010

2010년 연간 매출은 2008년 이후 경기회복세로 전년대비 대형마트 4.9%, 백화점 9.5% 증가추세이다.

<표 1-43> 연간 매출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형마트	5.7	1.7	0.3	-0.2	-1.2	4.9
백화점	5.8	4.9	3.0	5.3	6.5	9.5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주요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추이를 보면, 가전·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군 모두 매출이 증가하였다.

&lt;표 1-44&gt;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비 식품부문						식품	총 계
	가전·문화	의류	가정·생활	스포츠	잡화	소계		
2010	△1.6	8.8	3.5	10.5	8.4	4.0	5.2	4.9

자료 : 지식경제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010

주요 백화점의 상품군별 추이를 보면, 2010년 전반적인 매출이 증가되었고, 특히 아동·스포츠(13.8%)와 명품(12.4%) 매출은 전년대비 두자릿수 증가세, 식품 부분은 대형마트는 전년대비 5.2%, 백화점에서는 9.2% 등 5% 이상 증가하였다.

&lt;표 1-45&gt; 백화점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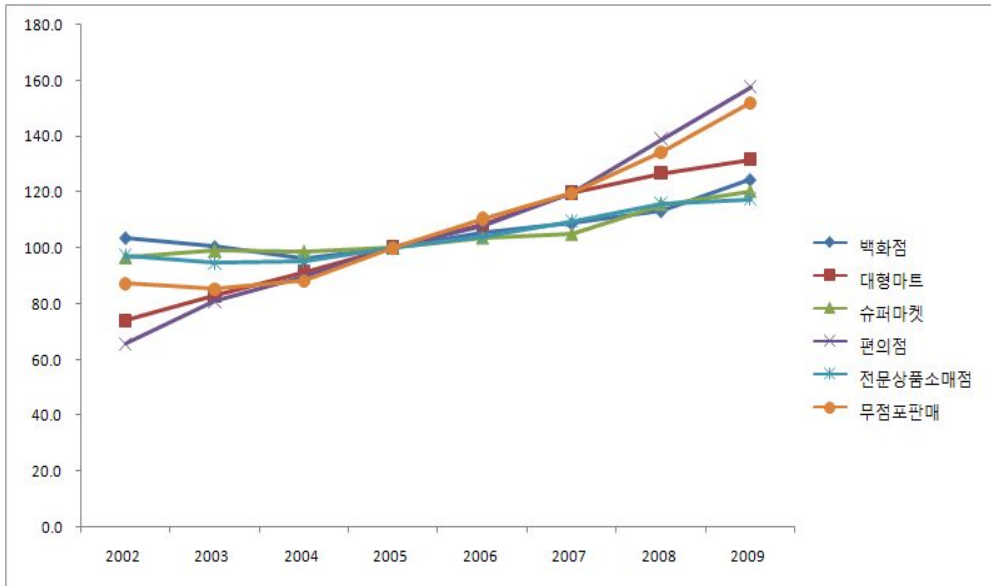
구분	비식품부문								식품	총 계
	잡화	여성정장	여성캐주얼	남성의류	아동, 스포츠	가정용품	명품	소계		
2010	8.0	6.2	9.3	5.4	13.8	9.3	12.4	9.1	9.2	9.5

자료 : 지식경제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010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특히 외국계 대형할인 소매업체들이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소매유통업의 구조 조정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90년대 후반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대형할인점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소매유통시장을 급속히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터넷과 TV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 판매업이 새로운 성장업태로 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이버쇼핑몰의 경우 '07년 이후 연평균 1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은 도입당시에는 성과가 부진했지만 신세대 고객층의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2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6> 소매유통 업체별 매출액 성장 추이(2005=1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소매 판매액 지수」

이와 같은 소매유통구조의 변화는 식품유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점유율 확대에 인하여 도매유통이 생략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면서 유통마진이 줄어들게 되었고 과거 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의 기능이 축소되는 반면 대형할인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또, 거대 할인점간의 경쟁은 가격, 품질, 서비스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을 불러와 소비자들의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품관련 소매업은 종합소매업과 음식료품 소매업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매업은 다시 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위주종합 소매업 및 그 외 기타종합소매업으로 구성되는데 대형종합소매업은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을 포함하는 기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소매점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는 음식료품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식료품 소매업 및 음료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상의 모든 업체들은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관련 소매업체라고 총칭할 수 있다.

식품관련 소매업체수는 '07년 208,924개소에서 '09년에는 202,683개소로 연평균 1.5%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형슈퍼마켓과 같은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과 음식료품소매업은 업체수가 감소한 반면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은 사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품관련 소매유통업에서 상당한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9년도의 식품관련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을 보면 음식료품소매업이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형 슈퍼마켓을 포함하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이 41.4%, 체인화 편의점 7.4%, 슈퍼마켓 4.2%,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0.2%, 백화점 0.04% 순으로 나타났다. '07년과 비교해보면 음식료품 소매업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6>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07	2008	2009
백화점	84(0.04)	82(0.04)	83(0.04)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375(0.2)	424(0.2)	442(0.2)
슈퍼마켓	7,138(3.4)	8,060(3.9)	8,598(4.2)
체인화 편의점	11,917(5.7)	13,609(6.7)	15,071(7.4)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91,505(43.8)	87,271(42.7)	83,954(41.4)
음식료품 소매업	97,905(46.9)	94,806(46.4)	94,535(46.6)
합계	208,924(100.0)	204,252(100.0)	202,683(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 기준 식품관련 소매유통업에서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0.24%에 불과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포함된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 전체 매출액의 51.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화점의 매출비중은 '07년 16.7%에서 '09년 16.2%로,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은 '07년 37.6%에서 '09년 35.5%로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화점과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의 매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슈퍼마켓과 체인화편의점의 매출 비중은 각각 18.8%, 7.8%로 '07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편의점 및 슈퍼마켓이 소매유통시장의 78.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식품소매업체의 약 87%를 차지하는 소규모 음식료품소매업의 점유율은 21.7%에 불과하여 소매유통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7>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2007	2008	2009
백화점	13,254(16.7)	13,974(16.1)	15,196(16.2)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9,825(37.6)	31,878(36.7)	33,177(35.5)
슈퍼마켓	13,365(16.9)	15,636(18.0)	17,586(18.8)
체인화 편의점	5,608(7.1)	6,573(7.6)	7,314(7.8)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7,195(9.1)	7,715(8.9)	8,107(8.7)
음식료품 소매업	10,012(12.6)	11,086(12.8)	12,155(13.0)
합계	79,257(100.0)	86,861(100.0)	93,535(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을 보면 음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가 166,222명으로 전체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의 31.5%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이 144,068명으로 비중은 27.3%,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은 69,849명으로 비중은 1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과 비교할 때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과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체인편의점, 슈퍼마켓 및 음식료품 소매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8>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백화점	18,368(3.6)	18,938(3.6)	17,730(3.4)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6,200(11.1)	70,944(13.6)	69,849(13.3)
슈퍼마켓	55,647(11.0)	63,824(12.3)	69,269(13.1)
체인화 편의점	46,411(9.1)	53,486(10.3)	59,742(11.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155,732(30.7)	146,507(28.2)	144,068(27.3)
음식료품 소매업	175,480(34.6)	166,699(32.0)	166,222(31.5)
합계	507,838(100.0)	520,398(100.0)	526,880(100.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전국의 편의점수는 14,130개소로 '05년 이후 연평균 12.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규 점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타 업종에 비해 창업비가 적게 들면서 투자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이나 주부층 등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가맹점에 대한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주상복합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이 늘어나는데 따른 새로운 상권이 발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09년도 편의점 경영주 연령별 구성 분포를 보면 20대 11.6%, 30대 31.1%, 40대 34.6%, 50대 이상 22.7%로 '08년에 비해 20~30대 비율이 감소하고 40대 이상이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자 54.7%, 여자 45.3%로 여성 경영주의 비율이 '08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도 편의점 매출액은 약 7조 3천억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12.20%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체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49%의 증가에 그쳐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영여건은 오히려 조금씩 나빠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규 창업하는 편의점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수를 늘이지 못해 영업적자로 폐점하는 점포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편의점 매출액에서 식품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48.8%에서 '09년 50%로 연평균 0.6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9> 편의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5-09)
총매출액	46,092	49,624	55,613	64,881	73,046	12.20
-업체당매출액	5.1	5.0	5.0	5.2	5.2	0.49
-식품부문매출액비중	48.8	48.5	47.8	48.4	50	0.61
점포수(개)	9,085	9,928	11,056	12,485	14,130	11.67
미니스톱	928	963	1,017	1,079	1,201	6.66
바이더웨이	999	991	1,054	1,231	1,501	10.71
세븐일레븐	1,248	1,431	1,760	2,003	2,186	15.04
씨스페이스	116	126	128	130	151	6.81
GS25	2,060	2,399	2,856	3,388	3,915	17.41
훼미리마트	3,152	3,486	3,751	4,159	4,684	10.41
OK마트	313	296	307	287	254	-5.09
조이마트	269	236	183	208	238	-3.01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

2009년도 편의점 가맹형태별 점포수 구성비를 보면 직영점 2.5%, 순수가맹점 85.2%, 위탁가맹점 12.3%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가맹본부들의 시설투자비 지원이 줄면서 이익배분율이 높은 순수가맹점 점포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9년도 편의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품부문 상품별 매출 구성을 보면 가공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17.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배가공식품 12.5%, 주류 7.5%, 후레쉬푸드 6.3%, 과자류 5.5%, 일배생식품 0.7% 순으로 나타났다. '05년과 비교할 때 과자류의 매출액 비중 감소폭이 2.9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0 > 편의점 식품부문 매출액 구성비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5-09)
가공식품	16.2	16.4	17	16.8	17.5	1.95
일배가공식품	12.7	12.7	12.2	12.3	12.5	-0.40
일배생식품	0.7	0.7	0.6	0.7	0.7	0.00
과자류	6.2	6	6.3	4.6	5.5	-2.95
후레쉬푸드	5.3	5	4.3	6.5	6.3	4.42
주류	7.7	7.7	7.4	7.5	7.5	-0.66

자료 : 한국편의점협회

2009년도 사이버쇼핑몰에서 취급되고 있는 음식료품의 거래액은 약 1조 3,500억원으로서 전체 사어머몰 거래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5%에 불과하지만 2007년 이후 연평균 36.05%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도 기준 취급형태별 음식료품 거래액을 보면 종합몰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약 9,900억원으로 비율은 73.3%로 '07년과 비교할 때 종합몰의 거래액은 연평균 41.1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몰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약 3,600억원으로

비중은 26.7%로 '07년과 비교할 때 전문몰의 거래액이 연평균 24.44%의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이버몰 음식료품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 사이버 쇼핑몰 취급범위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사이버몰 전체(A)		15,765,573	18,145,516	20,642,979
음.식료품	소계(B)	730,555(100.0)	1,009,291(100.0)	1,352,181(100.0)
	종합몰	497,125(68.0)	673,680(66.7)	990,684(73.3)
	전문몰	233,431(32.0)	335,611(33.3)	361,497(26.7)
B/A		4.6	5.6	6.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이를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로 거래액 비중을 살펴보면 online몰과 online/offline몰의 비율이 2007년도 31:6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42:58로 online몰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기반을 갖춘 대형 온라인몰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2>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730,555	100.0	1,009,291	100.0	1,352,181	100.0
Online몰	228,067	31.2	345,123	34.2	568,888	42.1
On/Offline몰	502,488	68.8	664,168	65.8	783,293	57.9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음식료품유통업은 크게 음식료품도매업과 음식료품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식품 소매업 판매액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2009년 음식료품 판매액은 56조 7,638억원의 규모이다.

업종별 판매액 비중으로는 대형마트가 12.2%로 가장 크며, 백화점이 8.8%, 슈퍼마켓이 8.6%, 사이버 판매액 5.3%으로 사이버 판매액의 증가가 매우 뚜렷하다.

&lt;표 1-53&gt; 식품 소매업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2,034,129	213,970,257	226,630,177	241,996,385	251,697,903	275,853,479
음식료품 판매액	426,579	45,145,946	49,131,707	52,666,077	56,763,831	61,314,061
백화점	174,771	18,437,823	19,005,188	19,799,920	21,783,591	24,316,754
대형마트	237,436	25,729,739	28,386,467	30,113,812	31,212,768	33,733,030
슈퍼마켓	186,391	19,315,287	19,568,265	21,525,393	22,423,152	23,821,497
편의점	39,651	4,276,977	4,750,634	5,514,930	6,244,593	7,342,749
전문상품소매점	1,217,947	126,535,554	133,625,619	141,103,212	142,987,427	155,544,047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소매점	-	-	-	14,473,633	14,286,492	16,143,648
문화상품소매점	-	-	-	5,621,758	5,858,667	6,083,168
무점포판매점	177,933	19,674,877	21,294,004	23,939,107	27,046,361	31,095,393
사이버쇼핑몰	52,264	7,231,821	8,880,611	10,359,153	12,305,056	14,603,728
기타무점포판매	125,669	12,443,056	12,413,393	13,579,954	14,741,305	16,491,665

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액 2010



### 3.2 산업구조

음식료품유통업은 크게 음식료품도매업과 음식료품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9년도 음식료품도매업의 사업체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49,964개소이며 '06년 이후 연평균 2.5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음식료품도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약 21만 9천명으로 나타났으며 '06년 이후 연평균 5.0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09년도 약 67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06년 이후 연평균 8.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54>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단위 : 개, 천명, 십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수	46,352	47,774	49,263	49,964
전년대비	2.2	3.1	3.1	1.4
종사자수	189.2	198.9	204.9	219.1
전년대비	-1.6	5.1	3.0	6.9
매출액	52,461	58,612	64,748	67,077
전년대비	9.4	11.7	10.5	3.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음식료품소매업 사업체수는 94,535개소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할인점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 등이 많이 출현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사업체수 감소로 인하여 '06년 이후 연평균 2.2%의 감소현상을 보여 '09년 기준 166,222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0.3%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음식료품소매업 매출액은 '06년 이후 연평균 8.55%의 증가율을 보여 '09년에는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매출액도 '06년

95백만원에서 '09년에는 1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한계업체의 퇴출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t;표 1-55&gt;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단위 : 개, 천명, 십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사업체수	99,815	97,905	94,806	94,535
전년대비	0.6	-1.9	-3.2	-0.3
종사자수	177.8	175.5	166.7	166.2
전년대비	2.1	-1.3	-5.0	-0.3
매출액	9,503	10,012	11,086	12,155
전년대비	6.6	5.4	10.7	9.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를 보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체수 비중은 1.03%, 2~5천만원 미만 6.76%, 5천만원~1억원 미만 11.13%로 음식료품 도매업 전체 사업체의 18.92%가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7.99%, 매출액 비중은 0.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이 조금 늘어난데 반해 매출액 비중은 '0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영세성이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체수 비중이 가장 많은 매출액 규모는 1~5억원 미만으로 3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규모의 종사자수 비중은 18.33%, 매출액 비중은 6.01%를 기록하고 있는데 '08년에 비해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매출액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0.36%인데 종사자수 비중은 8.63%, 매출액 비중은 16.31%로 매출액 1억원 미만 규모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출액 5억원 이상 규모의 비중은 증가하고 그 미만 규모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lt;표 1-56&gt;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단위 : %)

구분	2008			2009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천만원 미만	0.83	0.27	0.01	1.03	0.34	0.01
2~5천만원 미만	5.51	1.98	0.15	6.76	2.43	0.18
5천만원~1억원 미만	11.02	4.75	0.64	11.13	5.22	0.59
1~5억원 미만	39.56	22.18	7.42	33.75	18.33	6.01
5~10억원 미만	13.47	9.99	7.25	16.53	11.88	8.58
10~50억원 미만	24.31	32.59	37.44	25.82	33.74	40.84
50~200억원 미만	4.74	20.80	28.96	4.61	19.43	27.48
200억원 이상	0.57	7.43	18.13	0.36	8.63	16.3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을 보면 종업원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율이 77.93%, 5~9인 이하가 11.99%로 전체 사업체수의 89.92%가 영세 소규모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규모의 종사자수 비중은 44.24%, 매출액 비중은 43.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8년에 비해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lt;표 1-57&gt;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단위 : %)

	2008			2009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4명	78.65	33.18	26.84	77.93	30.41	28.74
5~9명	11.47	14.19	17.08	11.99	13.83	14.48
10~19명	4.99	13.05	16.12	4.96	12.07	13.96
20~49명	4.43	30.56	32.32	4.61	32.30	30.37
50명 이상	0.47	9.03	7.63	0.50	11.39	12.45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를 보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체수 비중은 14.53%, 2~5천만원 미만 31.62%, 5천~1억원 미만 22.33%로 음식료품 소매업 전체 사업체의 68.47%가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55.89%, 매출액 비중은 21.03%를 기록하였으며 '08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9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08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종사자수와 매출액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8>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단위 : %)

	2008			2009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천만원 미만	14.89	10.51	1.60	14.53	10.23	1.29
2~5천만 미만	29.59	23.64	8.49	31.62	25.14	7.96
5천~1억원 미만	26.21	24.25	15.97	22.33	20.52	11.79
1~5억원 미만	26.15	32.76	43.81	27.54	33.88	41.07
5~10억원 미만	2.16	4.36	12.32	2.43	4.63	12.63
10~50억원 미만	0.95	3.81	14.03	1.46	4.49	19.09
50~200억원 미만	0.05	0.66	3.78	0.09	0.96	5.59
200억원이상	4개	0.00	0.00	4개	0.14	0.58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9년도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를 보면 종업원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율이 97.91%로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88.23%, 매출액 비중은 78.07%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종사자수 및 매출액비중은 늘어났으나 사업체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5~9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1.54%, 종사자수 비중은 5.20%, 매출액 비중은 10.17%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9>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단위 : %)

	2008			2009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4명	97.99	87.82	77.08	97.91	88.23	78.07
5~9명	1.43	4.80	11.33	1.54	5.20	10.17
10~19명	0.31	2.21	3.62	0.33	2.27	5.15
20~49명	0.24	4.33	6.94	0.20	3.55	5.19
50명 이상	0.02	0.84	1.04	0.02	0.75	1.43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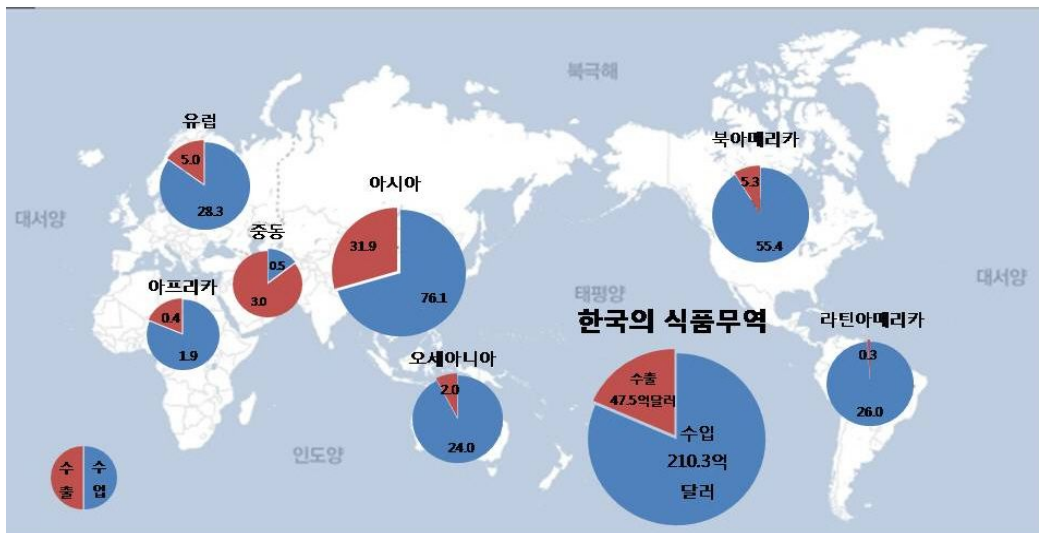
## 제 4 절 식품 수출입

### 4.1 수출입 동향

2009년도 국내 식품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4,751백만 달러로,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액의 67.1%인 3,191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이 11.2%인 533백만 달러, 유럽 지역이 10.5%인 499백만 달러, 중동 지역이 6.3%인 302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출 대상 지역은 일본 및 중국 등의 아시아 대륙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액은 총 21,03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7,608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이 26.3%인 5,541백만 달러, 유럽지역이 13.5%인 2,834백만 달러,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12.4%인 2,600백만 달러, 오세아니아 지역이 11.4%인 2,398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출에 비해서는 대륙별 편중현상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7> 대륙별 한국 식품 무역 현황(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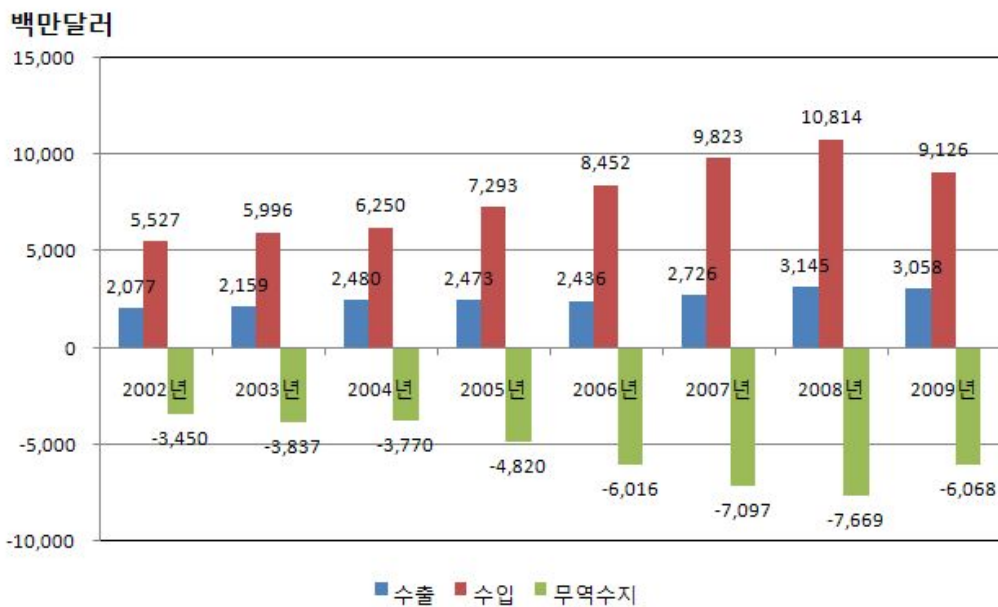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2009년도 우리 나라 가공식품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수출 3,058백만 달러, 수입 9,126백만 달러로 약 6,068백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가공식품 수출 및 수입 변동 추이를 보면 수출은 '02년 2,077백만 달러에서 '09년 3,058백만 달러로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02년 5,527백만 달러에서 '09년 9,126백만 달러로 연평균 7.4%의 성장률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연평균 8.4%씩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수출의 증가세가 미미한데 반해 수입의 증가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18>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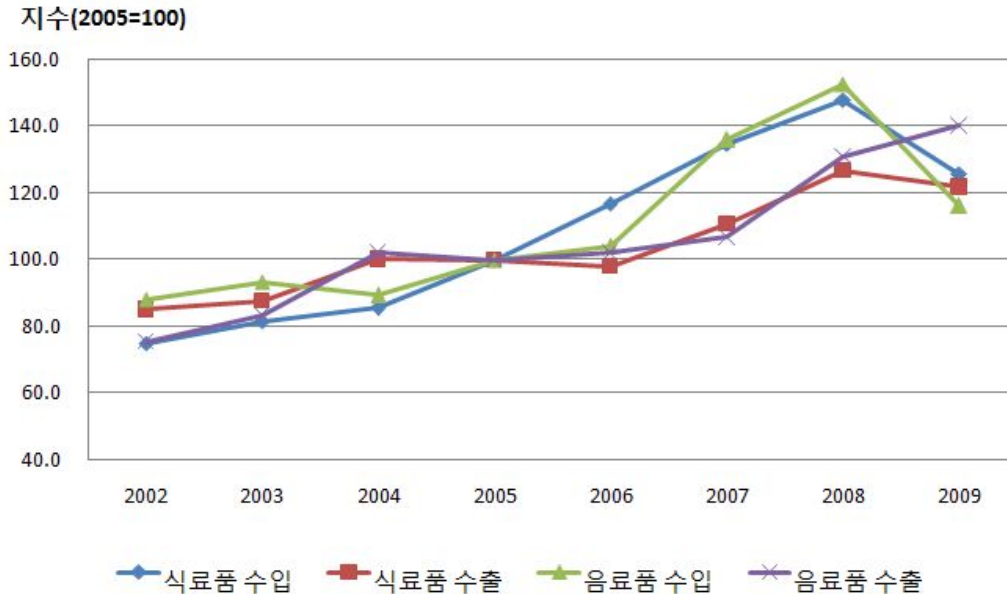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국제수지와 수출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의 대외교역 조건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과 비교하여 2009년 수입 식료품의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67.9% 증가하였으나 국내 식료품 수출 가격은 43.3% 증가하는데 그쳐 식료품의 교역 조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료품의 경우 식료품의 상황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균 수입 가격은 2002년과 비교하여 2009년 수입 음료품의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32.0% 증가하였으나 국내 음료품 수출 가격은 85.9%로 수출 채산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19> 가공식품의 수출입 물가 변동 추이(미\$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식료품 중에서는 식용유지가 234.1%, 곡물가공이 181.8%, 조미료/첨가물이 140.3% 등으로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바이오에너지 원으로서 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곡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용유지의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유와 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난 기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 가격은 유가공이 27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비알콜 음료의 경우도 242.2%의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공 식품이 수출액의 증가를 보였지만, 곡물가공과 육가공 등의 부문에서는 오히려 가격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0> 가공식품 수출입 물가 지수(2005년=100)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음식료품	115.9	98.5	134.7	110.2	148.3	127.2	125.1	123.7
식료품	116.8	98.1	134.6	110.6	148.0	126.7	125.8	121.8
육가공	120.7	73.9	140.9	78.3	142.4	69.6	100.5	72.1
수산가공	116.7	91.4	129.1	107.1	123.9	126.6	118.0	125.5
과채가공	118.0	87.8	141.2	112.8	167.7	125.6	138.2	119.8
식용유지	103.3	100.0	134.4	161.5	194.1	300.0	144.2	159.3
유가공	102.7	107.9	133.5	126.3	145.8	176.3	112.8	168.6
곡물가공	152.0	117.9	192.2	111.1	256.4	118.8	156.1	22.7
빵류·과자류	125.9	110.2	123.0	114.0	137.4	117.1	144.8	125.7
면류	107.1	86.5	135.7	93.2	164.2	104.2	153.7	108.0
조미료/첨가물	104.9	110.6	134.6	127.2	140.5	149.0	154.3	129.9
기타식료품	107.7	111.2	120.6	123.7	144.1	142.7	141.2	158.6
음료품	103.9	102.0	135.8	106.7	152.5	131.0	116.1	140.2
알코올음료	105.3	101.6	139.1	102.2	157.6	125.3	119.6	130.1
비알콜음료	87.8	102.9	100.0	118.6	95.9	145.7	77.3	166.3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4.2 수출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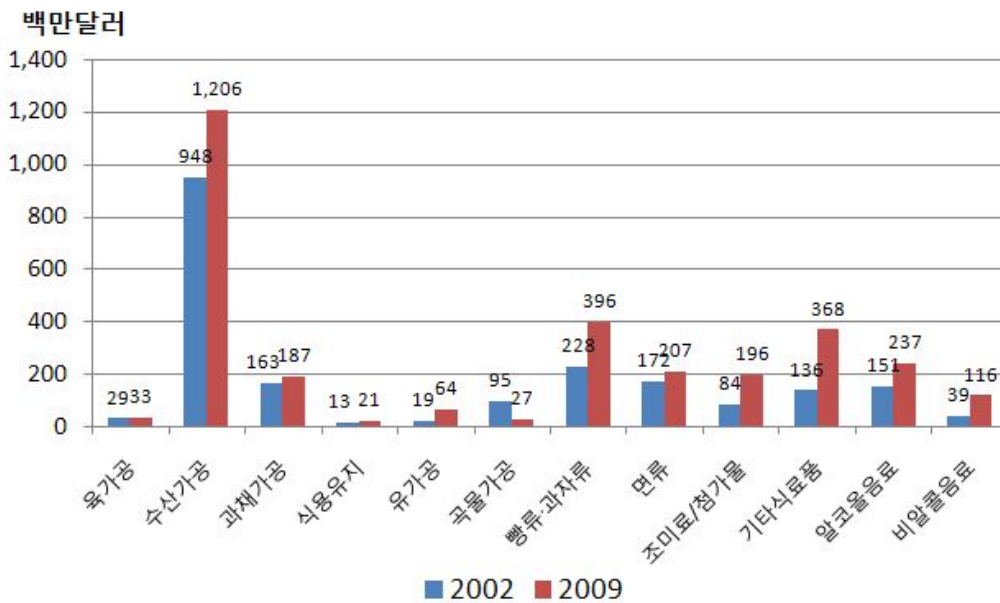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부문별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2,705백만 달러, 음료품이 353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전체 수출액의 39.4%인 1,206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떡·빵·과자류가 396백만 달러, 기타식료품이 368백만 달러, 면류가 207백만 달러, 조미료/첨가물이 196백만 달러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237백만 달러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즙음료 등의 비알콜성음료는 116백만 달러로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 부문을 제외한 수산가공, 유가공, 과채가공, 식용유지, 떡·빵·과자류, 면류·마카로니, 식품첨가물 및 음료품 등의 2009년도 수출액은 2002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공, 기타식료품, 비알콜 음료, 조미료 첨가물 부문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커피크리머, 음료, 마요네즈, 고추장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 수출 동향 특징을 보면, 알콜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비알콜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을 포함한 유가공 부문의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20>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 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기타 어류의 피레트’가 약 1억 6천 8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당으로서 약 1억 4천 9백만 달러, 라면이 1억 4천 2백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단일 품목으로서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품목은 라면, 소주, 냉동 오징어 3가지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김치, 눈다랑어, 커피크리머, 김 등 13개 품목이다.

&lt;표 1-61&gt;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

(단위 : 톤, 백만\$)

순위	품목	중량	금액
1	기타어류의 냉동피레트	14,457	168
2	자당(고체의 것/향미, 착색에 첨가된 것 이외 기타)	290,724	149
3	라면	37,046	142
4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냉동)	129,029	117
5	소주	81,171	113
6	조제품 기타	52,785	103
7	오징어(냉동)	99,857	101
8	라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73,110	97
9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8,505	89
1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냉동)	10,120	86
11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13,984	67
12	커피크리머	39,383	66
13	곡물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이외 기타)	80,168	60
14	어류(기타/간장/피레트/어육제외)	46,656	57
15	김	6,938	57
16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냉동)	27,980	55
17	배(신선)	27,222	54
18	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17,725	53
19	밀크대용물 함유 조제품	10,351	51
20	설탕과자류(추잉검,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42,419	5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국내 식품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라면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은 '06년 14,936천 달러에서 '09년 32,119천 달러로 3년 동안에 115%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6%에서 22.6%로 증가하여 단일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06년 18,798천 달러에서 '09년 29,093천 달러로 약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는 미국으로서 '06년에는 금액과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였지만 3년간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비중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호주, 러시아 연방, 대만,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62&gt; 라면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14,936	14.6	24,868	21.5	29,083	22.5	32,119	22.6
미국	20,185	19.7	19,569	16.9	19,996	15.4	20,082	14.2
일본	18,798	18.3	15,850	13.7	19,542	15.1	29,093	20.5
호주	6,038	5.9	6,671	5.8	8,388	6.5	8,098	5.7
러시아연방	3,179	3.1	4,797	4.1	6,261	4.8	6,190	4.4
캐나다	4,680	4.6	3,947	3.4	4,000	3.1	3,780	2.7
대만	2,174	2.1	2,595	2.2	3,664	2.8	4,356	3.1
말레이시아	3,886	3.8	3,510	3.0	3,078	2.4	2,515	1.8
기타	28,759	28.0	33,858	29.3	35,504	27.4	35,678	25.1
합계	102,635	100.0	115,665	100.0	129,518	100.0	141,91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식품의 단일 품목으로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소주의 경우, 2009년도 기준 전체 수출의 82.5%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비해서는 수출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8.1%,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 두 국가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은 '06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다 '09년에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lt;표 1-63&gt; 소주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102,793	86.6	90,432	80.5	101,749	82.0	93,153	82.5
미국	8,095	6.8	10,257	9.1	8,936	7.2	9,132	8.1
중국	3,913	3.3	6,531	5.8	7,590	6.1	4,959	4.4
필리핀	641	0.5	938	0.8	1,021	0.8	826	0.7
호주	423	0.4	624	0.6	957	0.8	963	0.9
베트남	324	0.3	589	0.5	580	0.5	591	0.5
캐나다	340	0.3	481	0.4	521	0.4	445	0.4
태국	238	0.2	225	0.2	305	0.2	281	0.2
기타	1,936	1.6	2,282	2.0	2,447	2.0	2,581	2.3
합계	118,703	100.0	112,359	100.0	124,108	100.0	112,931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도 국내 식품 수출의 단일 품목으로서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크리머는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출이 22,401천 달러로 전체 수출의 34.1%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20,011천 달러로서 30.5%, 카자흐스탄이 7,474천 달러로 11.4%의 비중을 기록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8년까지의 큰 상승곡선을 그리던 커피크리머의 수출은 '09년에 들어서면서 하강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08년 수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09년에 들어서면서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하여 러시아연방의 수출비중이 3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64&gt; 커피크리머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도네시아	17,050	29.9	13,903	20.2	26,626	32.1	20,011	30.5
러시아연방	20,174	35.4	28,858	42.0	25,764	31.0	22,401	34.1
카자흐	5,406	9.5	7,270	10.6	11,494	13.8	7,474	11.4
싱가포르	4,974	8.7	6,029	8.8	6,245	7.5	4,793	7.3
대만	5,202	9.1	4,751	6.9	3,617	4.4	3,781	5.8
키르기스	1,273	2.2	2,378	3.5	3,063	3.7	1,709	2.6
베트남	—	—	2,160	3.1	2,471	3.0	1,553	2.4
몽골	910	1.6	1,370	2.0	2,006	2.4	1,268	1.9
기타	1,954	3.4	2,047	3.0	1,790	2.2	2,683	4.1
합계	56,943	100.0	68,765	100.0	83,076	100.0	65,672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국내 대표적인 콩 발효제품인 장류의 수출은 2006년 약 29,498천 달러에서 2009년 31,965천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해마다 수출액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장류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한 한국음식 또는 한국풍의 음식문화 확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은 고추장이 전체 장류의 45.6%인 14,591천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간장이 36.7%인 11,733천 달러, 된장이 17.5%인 5,583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에는 간장이 38.8%의 비중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09년에 들어서면서 고추장이 전년 대비 55.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장, 고추장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된장과 메주는 각각 전년대비 38.5%, 27.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 1-65> 장류 수출 현황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간장	9,184	31.1	10,681	33.4	11,717	38.8	11,733	36.7
된장	8,945	30.3	10,147	31.8	9,080	30.0	5,583	17.5
고추장	11,350	38.5	11,105	34.8	9,358	31.0	14,591	45.6
메주	19	0.1	22	0.1	80	0.3	58	0.2
합계	29,498	100.0	31,955	100.0	30,235	100.0	31,965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고추장의 수출실적을 보면 '08년까지는 하락하다 '09년 큰폭의 상승률 보이며 연평균 8.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캐나다, 호주로의 수출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미국이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24.6%, 중국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6> 고추장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4,446	39.2	3,922	35.3	3,856	41.2	5,170	35.4
일본	3,222	28.4	3,368	30.3	2,324	24.8	3,586	24.6
중국	573	5.0	1,224	11.0	1,077	11.5	1,518	10.4
대만	421	3.7	301	2.7	270	2.9	465	3.2
캐나다	314	2.8	315	2.8	245	2.6	643	4.4
필리핀	207	1.8	272	2.4	236	2.5	264	1.8
호주	549	4.8	277	2.5	188	2.0	876	6.0
러시아연방	182	1.6	135	1.2	150	1.6	129	0.9
기타	1,436	12.7	1,292	11.6	1,011	10.8	1,941	13.3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간장의 수출현황을 보면 2006년 9,184천 달러에서 2009년에는 11,733천 달러로 연평균 8.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연방 19.2%, 중국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67&gt; 간장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2,247	24.5	2,227	20.9	2,672	22.8	3,168	27.0
러시아연방	2,475	27.0	1,393	13.0	2,073	17.7	2,258	19.2
중국	1,620	17.6	2,865	26.8	1,888	16.1	1,574	13.4
일본	284	3.1	267	2.5	854	7.3	934	8.0
필리핀	765	8.3	1,090	10.2	808	6.9	711	6.1
호주	289	3.1	382	3.6	446	3.8	535	4.6
사우디아라비아	229	2.5	283	2.6	391	3.3	317	2.7
캐나다	198	2.2	350	3.3	354	3.0	333	2.8
기타	1,077	11.7	1,825	17.1	2,231	19.0	1,903	16.2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인삼가공식품의 수출현황을 보면, 1990년 148백만 달러까지 수출되었으나 중국산 및 서양 화기삼의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2001년 69백만 달러, 2003년 58백만 달러까지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그 후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 등으로 인하여 2009년에는 약 97,629천 달러의 수출실적으로 기록하였으며 2006년 기준으로 연평균 4.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홍삼이 전체 수출금액의 약 4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홍삼가공품 30.5%, 백삼가공품 19.7%, 백삼 5.8% 순으로 나타났는데 백삼의 경우 수출단가는 높은데 반해 수출물량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수출비중은 낮았다.



&lt;표 1-68&gt; 인삼가공식품 수출 현황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백삼	4,396	5.2	4,696	5.5	3,435	3.9	5,662	5.8
홍삼	34,494	40.8	36,554	42.5	41,574	46.8	42,894	43.9
백삼가공품	25,254	29.9	24,841	28.9	23,192	26.1	19,277	19.7
홍삼가공품	20,359	24.1	19,910	23.2	20,660	23.2	29,796	30.5
합계	84,503	100.0	86,001	100.0	88,861	100.0	97,629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김치의 경우 2009년 8천 9백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86.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소비자들의 김치열풍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lt;표 1-69&gt; 김치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62,637	89.1	66,120	87.8	75,052	88.0	77,622	86.8
미국	1,801	2.6	2,375	3.2	2,061	2.4	2,269	2.5
대만	1,625	2.3	1,872	2.5	1,962	2.3	1,951	2.2
홍콩	779	1.1	1,162	1.5	1,305	1.5	1,380	1.5
뉴질랜드	497	0.7	554	0.7	719	0.8	946	1.1
기타	2,989	4.3	3,225	4.3	4,197	4.9	5,218	5.8
합계	70,328	100.0	75,309	100.0	85,295	100.0	89,386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조제 김의 수출은 2006년 34,429천 달러에서 2009년에는 56,970천 달러로 연평균 1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홍콩,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일본이 34.8%, 미국 28.5%로 미국과 일본 양국가로 수출이 전체 조제김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캐나다, 러시아연방, 홍콩 등의 순이다.

<표 1-70> 조제김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13,647	39.6	13,851	37.1	16,001	33.6	16,255	28.5
일본	8,804	25.6	10,175	27.2	12,375	26.0	19,825	34.8
중국	1,008	2.9	2,201	5.9	3,798	8.0	6,423	11.3
대만	2,511	7.3	2,397	6.4	2,875	6.0	1,262	2.2
캐나다	1,611	4.7	1,349	3.6	2,314	4.9	2,695	4.7
호주	893	2.6	875	2.3	1,516	3.2	1,586	2.8
러시아연방	821	2.4	899	2.4	1,351	2.8	1,653	2.9
홍콩	797	2.3	1,085	2.9	1,219	2.6	1,627	2.9
기타	4,337	12.6	4,519	12.1	6,170	13.0	5,643	9.9
합계	34,429	100.0	37,351	100.0	47,619	100.0	56,97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천일염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실적을 보면, 2006년 58만 7천 달러에서 2008년 39만 9천 달러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91만 1천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128.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미국이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21.7%, 중국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1-71&gt; 천일염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86	14.7	76	14.3	112	28.1	198	21.7
미국	241	41.1	144	27.0	57	14.2	377	41.4
아이슬란드	—	—	—	—	55	13.8	12	1.3
중국	74	12.6	—	—	33	8.3	54	5.9
캐나다	14	2.4	20	3.7	29	7.2	17	1.9
호주	19	3.2	123	23.1	26	6.5	24	2.6
사우디아라비아	—	—	—	—	25	6.3	25	2.7
마셜군도	—	—	50	9.3	25	6.2	45	4.9
기타	153	26.0	121	22.7	37	9.4	159	17.5
합계	587	100.0	534	100.0	399	100.0	911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6년도 이후 최근 4년간의 탁주 수출실적을 보면 '06년 2,505천 달러에서 '09년 6,277천 달러로 연평균 3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86.0%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7.4%를 차지하고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산 막걸리인 '니고리자케'가 알코올 도수 14~16도 정도로 독한 맛에 비하여 국내 막걸리는 6~8도 정도로 부드럽고 유산균이 풍부하여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1-72&gt; 탁주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2,243	89.5	2,632	90.6	4,026	91.0	5,400	86.0
미국	180	7.2	183	6.3	197	4.5	463	7.4
싱가포르	1	0.0	5	0.2	90	2.0	21	0.3
베트남	19	0.8	14	0.5	35	0.8	109	1.7
중국	22	0.9	14	0.5	25	0.6	139	2.2
호주	18	0.7	20	0.7	19	0.4	37	0.6
태국	4	0.1	4	0.1	10	0.2	16	0.2
뉴질랜드	8	0.3	11	0.4	7	0.2	12	0.2
기타	11	0.4	22	0.8	14	0.3	81	1.3
합계	2,505	100.0	2,905	100.0	4,422	100.0	6,277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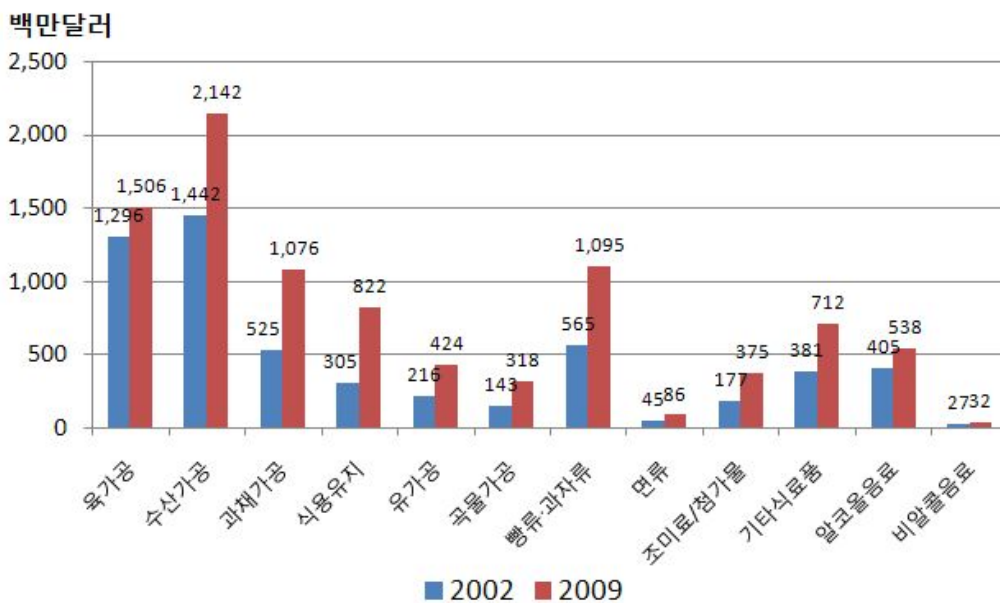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8,556백만 달러, 음료품이 570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식료품 전체 수입액의 25.0%인 2,142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품이 17.6%인 1,505백만 달러로 두 부분의 수입이 전체 식료품 수입의 4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가공품은 명태, 조기, 낙지, 새우살, 아귀 등의 수산동물 냉동품, 어류 피레트와 연육제품, 새우와 보리새우의 훈제제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동물 냉동품은 국내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가공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은 알코올음료 538백만 달러, 비알콜음료 31백만 달러로 알코올음료가 9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2009년까지 기간 동안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면 식용유지와 곡물가공이 각각 15.2%, 12.1%로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식용유지는 대두유, 야자유, 팜유 및 올리브유 등의 수입이 급증한 결과이며 곡물가공품은 감자 및 고구마 전분, 당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최근 3년간의 수입동향을 보면 비알콜음료와 육가공품, 곡물가공품, 유가공품의 수입증가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빵류·과자류, 기타식료품의 수입증가율이 큰 폭의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1>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도 식품 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대두박이 708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 지육 및 정육, 냉장 및 냉동제품을 포함할 경우 744백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있어 단일품목으로는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 상위 10위 안에 2개의 품목이 차지하며, 돼지고기의 단일품목으로는 630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는 사탕수수당, 밀, 대두, 스카치 위스키, 바나나 등이 상위 20개의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표 1-73>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

(단위 : 톤, 백만\$)

순위	품목	중량	금액
1	대두박	1,692,999	708
2	사탕수수당(조당/당도 98.5 초과)	1,540,833	580
3	밀(제분용)	1,907,243	556
4	대두(좌동/식용)	810,953	400
5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08,761	388
6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197,400	337
7	조제품 기타	36,116	301
8	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85,307	293
9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96,044	231
10	명태(간장, 어란제외/냉동/피레트, 어육제외)	169,089	209
11	대두유(조유/식품용)	238,095	207
12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61,408	202
13	스카치 위스키	20,039	189
14	메현미(nonglutinous)	197,629	183
15	바나나(플렌틴 포함/신선, 건조)	257,024	164
16	대두(기타)	237,035	162
17	천일염	2,647,999	159
18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25,927	154
19	새우, 보리새우(새우살 이외 기타/냉동)	20,746	112
20	기타어류(냉동연육)	87,827	104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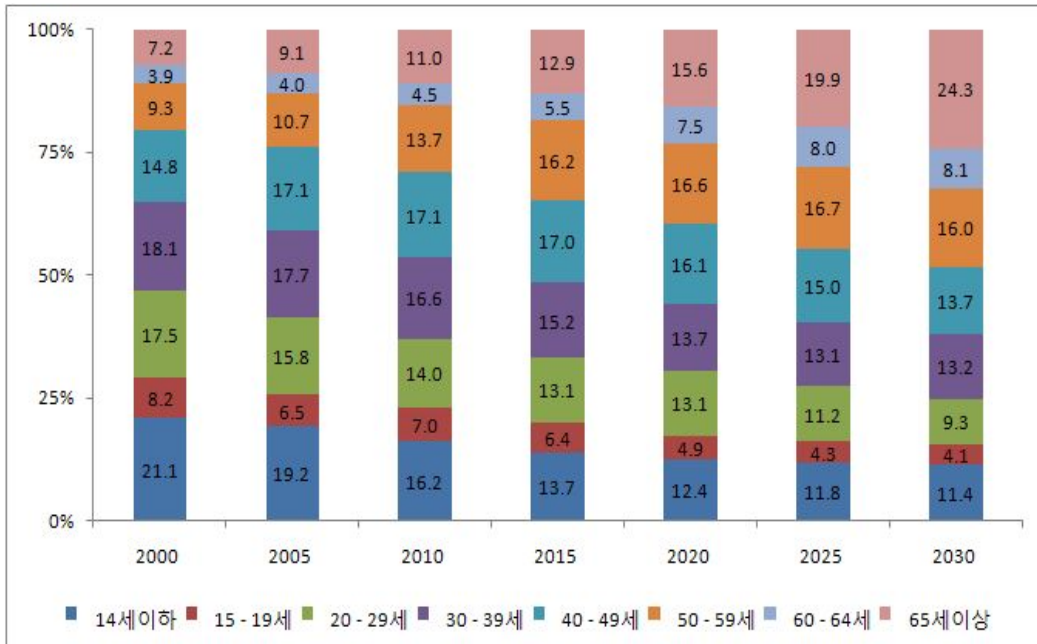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인구구성 분포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연령별 추계인구 분포를 14세 이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보듯이 14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은 '00년 21.1%에서 '10년 16.2%, '20년 12.4%, '30년 11.4%로 연평균 2.0%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5-19세까지의 인구비율도 '00년 8.2%에서 '10년 7.0%, '20년 4.9%, '30년 4.1%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대, 30대 및 40대 이하 인구구성 비율도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율은 '00년 7.2%에서 '10년 11.0%, '20년 15.6%, '30년에는 24.3%로 '00년 기준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5년에 65세 이상 인구구성 비율이 12.9%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추계인구를 통해서 나타난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어린이 인구구성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구성비율의 증가는 식품소비지출 패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추계인구 구성비율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00년 15.6%에서 '10년 20.3%, '20년 21.6%, '30년 23.7%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인 가구의 경우에도 '00년 19.1%에서 '10년 23.1%, '20년 25.6%, '30년 28.1%로 구성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30년에는 1인 및 2인가구 구성비율의 합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인 가구의 구성 비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4인 이상의 가구 구성 비율은 이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2인 가구의 구성 비율 증가는 식품의 소량구매, 그에 따른 식품의 포장단위 소형으로 변경 등 식품소비와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2> 연령별 추계인구 구성비율 추이



<그림 1-23>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구성변화 추이



우리나라 전국 2인 이상 전가구의 '09년도 월평균 가계지출은 2,776천원이며 이중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 약 626천원을 제외한 2,149천원이 소비지출로 사용되었으며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4%로 나타났다.



'09년도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 주류 및 식사비를 포함하는 음식료품비가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13.5%, 교통비 12.4%, 수도 및 광열비 9.8%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 및 통신비의 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4> 전국 전가구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단위: 원 %)

항목별	2005		2007		2009		증가율 (09/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계지출	2,366,421		2,583,685		2,775,560		17.3
소비지출	1,871,887	100.0	2,015,909	100.0	2,149,184	100.0	14.8
음식료품비	533,989	28.5	550,315	27.3	580,794	27.0	8.8
식료품 및 음료	273,402	14.6	277,711	13.8	297,652	13.8	8.9
주류	7,039	0.4	7,335	0.4	8,356	0.4	18.7
식사비 (외식)	253,548	13.5	265,269	13.2	274,786	12.8	8.4
담배	21,376	1.1	21,079	1.0	18,366	0.9	-14.1
의류 및 신발	118,789	6.3	128,220	6.4	131,583	6.1	10.8
주거 및 수도광열	183,581	9.8	195,763	9.7	210,877	9.8	14.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6,965	3.6	75,088	3.7	76,557	3.6	14.3
보건	111,376	5.9	128,186	6.4	140,743	6.5	26.4
교통	225,351	12.0	249,987	12.4	265,737	12.4	17.9
통신	131,342	7.0	134,287	6.7	132,468	6.2	0.9
오락·문화	101,168	5.4	107,711	5.3	112,251	5.2	11.0
교육	211,837	11.3	240,661	11.9	289,820	13.5	36.8
숙박비	4,967	0.3	6,280	0.3	4,747	0.2	-4.4
기타상품 및 서비스	161,146	8.6	178,332	8.8	185,242	8.6	15.0
비소비지출	494,534		567,776		626,375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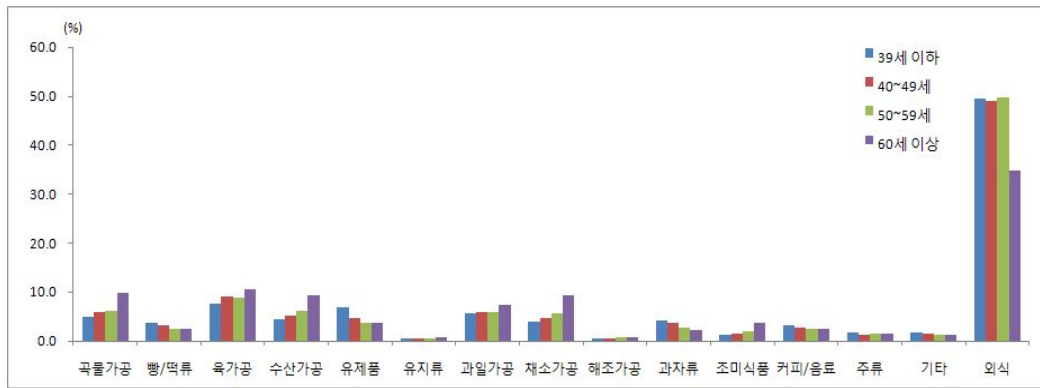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05~'09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계지출은 17.3% 증가 하였으며 그 중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이 26.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엔겔계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가계소비지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소비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교육비, 교통비가 각각 36.8%, 17.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출 비중은 높지 않지만 보건의료비, 숙박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음식료품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그림은 2009년도 2인 이상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계층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4>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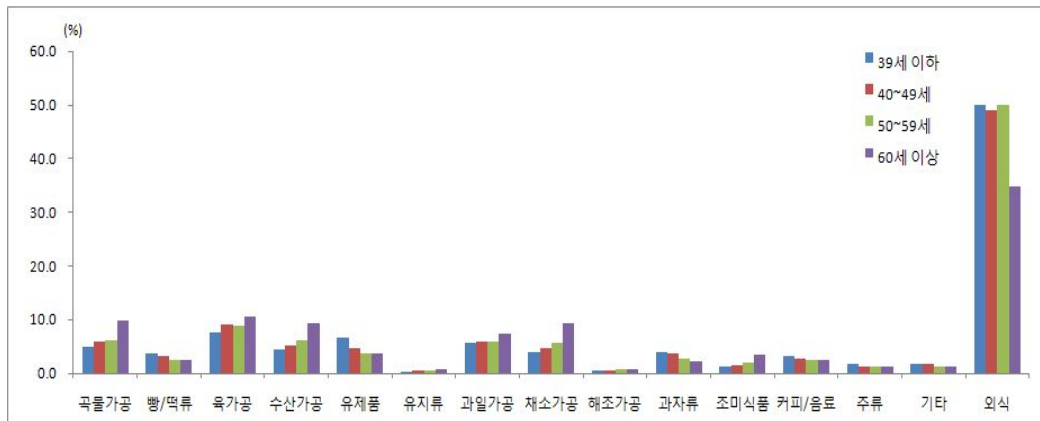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이 그림은 가구주의 연령계층에 따라 단순하게 가구를 구분하고 있지만 소득의 차이는 물론 아이들의 연령이나 기호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곡류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산동물 및 수산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조미식품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성비가 크다.

반면 빵 및 떡류,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커피/음료/주류, 외식 등의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에 따른 식품의 기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인구구성의 변화가 식품 소비지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도 2인 이상 도시 전가구의 연령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 구성비 추이를 보면 곡류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산동물 및 수산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조미식품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성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5>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9)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반면 빵 및 떡류,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커피/음료/주류, 외식 등의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전가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식품의 기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인구구성의 변화가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 전국 전가구의 부문별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현황을 보면 '08년에 비해 '09년의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비와 외식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를 보면 근로자가구가 26.8로 근로자의 가구 2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근로자가구의 외식비 지출은 음식료품비의 49.4%를 차지하는 301,571 원으로 근로자의 가구의 음식료품비의 43.8%를 차지하는 234,227원보다 많은 금액을 외식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8년에 비해 '09년에 근로자가구의 경우 외식비중이 50.3%에서 49.4%로 감소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43.7%에서 4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5> 전국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엔겔계수(2인이상)  
(단위: 원 %)

	2008			2009		
	전체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소득	3,390,738	3,811,962	2,770,222	3,432,021	3,805,120	2,867,047
소비지출(A)	2,114,217	2,250,490	1,913,469	2,149,184	2,278,633	1,953,163
음식료품비(B)	587,166	618,206	541,440	580,794	610,860	535,268
신선식품	88,911	84,703	95,108	87,325	83,544	93,050
가공식품	209,386	213,997	202,594	210,330	216,583	200,855
주류	7,995	8,450	7,325	8,356	9,162	7,136
외식비(C)	280,875	311,056	236,414	274,786	301,571	234,227
엔겔계수(B/A)	27.8	27.5	28.3	27.0	26.8	27.4
외식비중(C/B)	47.8	50.3	43.7	47.3	49.4	43.8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주) 신선식품 :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가공식품 : 그 외 품목

한편 2인 이상 도시 전가구의 부문별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현황을 보면 '08년에 비해 '09년의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은 크게 변함이 없으나, 음식료품비와 외식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를 보면 근로자가구가 26.9로 근로자외 가구 2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근로자가구의 외식비 지출은 음식료품비의 49.6%를 차지하는 307,961원으로 근로자외 가구의 음식료품비의 43.8%를 차지하는 237,284원보다 많은 금액을 외식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중이 '08년에 비해 '09년에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6> 도시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엔겔계수(2인이상)  
(단위: 원 %)

	2008			2009		
	전체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소득	3,489,370	3,900,622	2,849,999	3,468,808	3,853,189	2,880,139
소비지출(A)	2,179,613	2,308,529	1,979,188	2,179,875	2,310,344	1,980,066
음식료품비(B)	605,338	634,361	560,214	589,702	620,635	542,326
신선식품	90,146	86,022	96,556	88,162	84,412	93,905
가공식품	214,449	218,789	207,700	213,242	219,230	204,068
주류	7,970	8,410	7,286	8,257	9,032	7,069
외식비(C)	292,773	321,140	248,672	280,041	307,961	237,284
엔겔계수(B/A)	27.8	27.5	28.3	27.1	26.9	27.4
외식비중(C/B)	48.4	50.6	44.4	47.5	49.6	43.8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주) 신선식품 : 곡물, 육류, 신선수산물

가공식품 : 그 외 품목

2인 이상 전국 전가구의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600만원 이상 소득수준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23.7%인 895,069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0,633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엔겔계수가 27.5%,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71,453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엔겔계수가 31.5%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엔겔계수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식비 지출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월 평균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78,922원, 월 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03,667원,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9,522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 평균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53.5%,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8.9%로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6%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7> 전국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 인 이상(2009)  
(단위: 원 %)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500 만원	500~600 만원	6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625,237	1,540,833	2,501,284	3,468,695	4,467,138	5,450,547	7,861,342	3,432,021
소비지출 (A)	860,537	1,290,166	1,788,748	2,260,662	2,665,056	3,069,802	3,780,554	2,149,184
음식료품비 (B)	271,453	387,678	521,020	620,633	706,235	758,722	895,069	580,794
외식비 (C)	69,522	148,386	238,772	303,667	357,151	379,115	478,922	274,786
엔겔계수 (B/A)	31.5	30.0	29.1	27.5	26.5	24.7	23.7	27.0
외식비중 (C/B)	25.6	38.3	45.8	48.9	50.6	50.0	53.5	47.3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도시 전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가구당 900,813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월 평균 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8,143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82,72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월 평균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엔겔계수는 23.7%인 반면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1.8%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80,504원을 지출하고, 월 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10,136원을 지출하였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72,999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8%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나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외식 비중이 53.3%로 절반을 넘게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정도를 외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8> 도시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sup>2</sup> 인 이상(2009)  
(단위: 원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624,287	1,545,441	2,496,305	3,471,803	4,471,779	5,448,461	7,889,936	3,468,808
소비지출 (A)	888,720	1,299,611	1,798,147	2,271,809	2,698,229	3,101,728	3,805,325	2,179,875
음식료품비 (B)	282,723	390,592	526,541	628,143	709,778	773,105	900,813	589,701
외식비(C)	72,999	149,392	241,499	310,136	359,220	389,011	480,504	280,041
엔겔계수 (B/A)	31.8	30.1	29.3	27.6	26.3	24.9	23.7	27.1
외식비중 (C/B)	25.8	38.2	45.9	49.4	50.6	50.3	53.3	47.5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전국 전가구의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에서 가장 낮고, 50세 이상 가구에서 엔겔계수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가구주 연령이 50-59세 이하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49.7%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가장 높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34.8%를 외식에 지출하여 평균치인 47.3%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는 평균치보다 높은 금액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9>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액 인이상(2009)  
(단위: 원 %)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평균
소득	3,593,136	3,790,872	3,750,911	2,186,387	3,432,021
소비지출(A)	2,173,863	2,518,339	2,210,992	1,391,141	2,149,184
음식료품비(B)	570,077	650,859	607,505	441,362	580,794
외식비(C)	282,753	318,520	302,207	153,611	274,786
엔젤계수(B/A)	26.2	25.8	27.5	31.7	27.0
외식비중(C/B)	49.6	48.9	49.7	34.8	47.3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또한 도시 전가구의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가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가구에서 엔젤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가구주 연령이 50-59세 이하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50.1%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가장 높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34.8%를 외식에 지출하여 평균치인 47.5%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는 평균치보다 높은 금액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0>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액 인이상(2009)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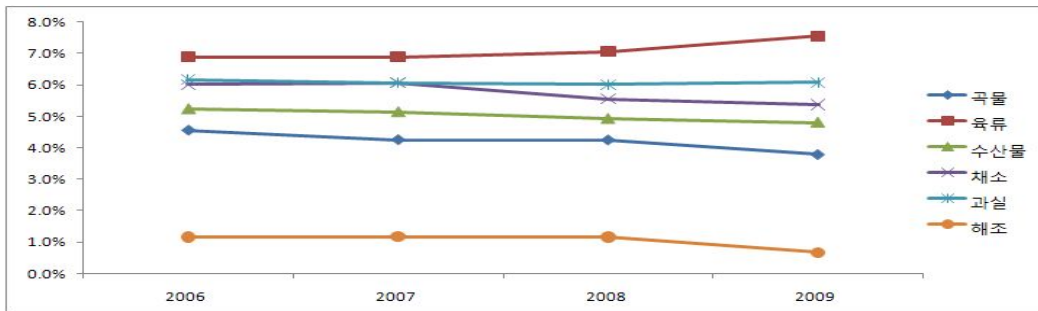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평균
소득	3,623,375	3,828,254	3,794,446	2,223,574	3,468,808
소비지출(A)	2,189,368	2,562,201	2,240,284	1,422,817	2,179,875
음식료품비(B)	575,037	662,143	616,719	450,801	589,701
외식비(C)	287,301	324,417	309,005	156,773	280,041
엔젤계수(B/A)	26.3	25.8	27.5	31.7	27.1
외식비중(C/B)	50.0	49.0	50.1	34.8	47.5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한편 2006~2009년 동안의 전국 전가구 음식료품비 지출액을 신선식품,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식품의 경우 쌀, 보리쌀 등 곡물은 '06년 4.6%에서 '09년에는 3.8%로 하락하면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는 신선식품 중에서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가장 크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도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06년부터 '09년까지 일정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소는 '0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08년에 들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과실은 6.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조는 '08년까지 정체상태에 있다가 '09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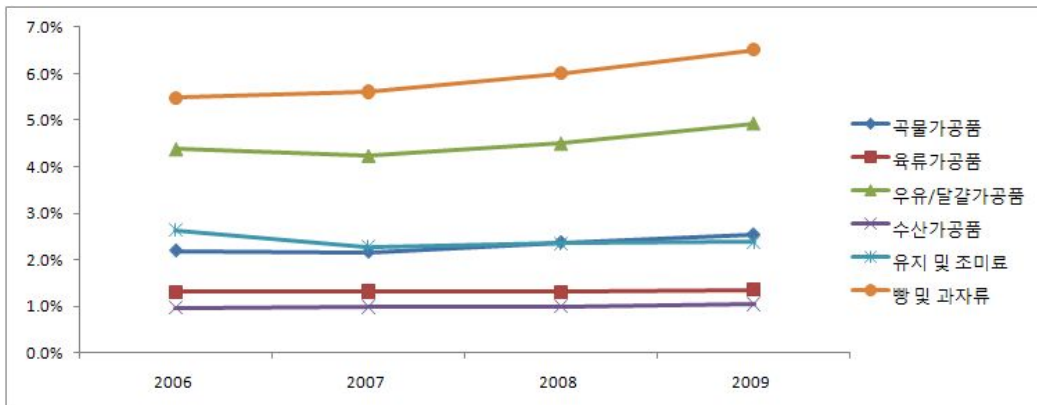
<그림 1-26> 전국 전가구 가구당 신선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빵 및 과자류 제품의 소비지출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떡, 라면, 국수류와 같은 곡물가공과 육류가공품의 지출 비중은 각각 '08년, '09년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우유 및 달걀가공품은 '06년 4.4%에서 '07년 4.2%로 떨어졌다가 '08년에 다시 4.5%로 상승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지 및 조미료 제품의 지출비중은 '06년 2.6%에서 '07년 2.3%로 하락 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09년 2.4%로 증가하였으며 육류가공품의 경우 '08년까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09년 1.4%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지출은 큰 변동이 없는 정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t;그림 1-27&gt; 전국 전가구 가구당 가공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전국 전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보면 음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맞벌이가구의 엔젤계수는 26.5%이나, 음식료품비 지출이 적은 노인가구의 엔젤계수는 31.0%, 모자가구는 23.3%, 일반가구는 27.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낮아 소비지출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구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지출은 노인 가구는 118,019원, 모자가구는 95,876천원, 맞벌이가구는 93,993원, 일반가구는 103,782원으로 노인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소비지출은 노인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음식료품비 지출은 노인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른 외식비 지출 비중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가구가 45.6%로 높은 반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각각 19.4%, 40.8%로 특히 노인가구의 외식비 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평균 외식비 지출을 보면 맞벌이가구 97,283원, 일반가구 88,845원으로 평균 외식비 지출금액 70,123원보다 높은 반면 모자가구는 67,120원, 노인가구는 27,245원으로 특히 노인가구가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81&gt; 전국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단위 : 원 %)

구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득	943,830	2,649,025	4,193,586	2,842,419	2,657,215
소비지출(A)	724,864	1,838,550	2,403,235	1,859,647	1,706,574
음식료품비(B)	224,524	427,725	637,124	508,562	449,483
외식비(C)	43,604	174,534	325,983	232,151	194,068
엔젤계수(B/A)	31.0%	23.3%	26.5%	27.3%	26.3%
외식비중(C/B)	19.4%	40.8%	51.2%	45.6%	43.2%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1.

도시 전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보면 음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맞벌이가구의 엔젤계수는 26.4%이나, 음식료품비 지출이 적은 노인 가구의 엔젤계수는 31.0%, 모자가구는 엔젤계수가 23.3%, 일반가구는 27.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낮아 소비지출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구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지출은 노인 가구는 126,749원, 모자가구는 98,003원, 맞벌이가구는 94,810원, 일반가구는 104,320원으로 노인 가구의 음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소비지출은 모자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많지만, 음식료품비 지출은 노인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lt;표 1-82&gt; 도시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단위 : 원 %)

구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득	1,046,397	2,707,138	4,267,492	2,910,140	2,732,792
소비지출(A)	811,158	1,864,225	2,456,085	1,919,342	1,762,703
음식료품비(B)	251,356	434,579	649,269	525,878	465,271
외식비(C)	49,787	176,730	333,770	242,955	200,810
엔겔계수(B/A)	31.0%	23.3%	26.4%	27.4%	26.4%
외식비중(C/B)	19.8%	40.7%	51.4%	46.2%	43.2%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1.

가구유형별에 따른 외식비 지출 비중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중이 5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가구가 46.2%로 높은 반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각각 19.8%, 40.7%로 특히 전국 전가구와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의 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외식비 지출을 보면 맞벌이가구 99,034원, 일반가구는 91,538원으로 평균 외식비 지출금액 72,340원보다 높은 반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는 각각 30,549원과 68,240원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83&gt; 가구유형별 월평균 1인당 음식료품비 지출 현황(2008)

(단위 : 원 %)

구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비지출	전국	472,280	700,556	711,443	695,239	644,879
	도시	512,092	714,746	723,497	705,996	664,083
식료품 (외식제외)	전국	118,019	95,876	93,993	103,782	102,918
	도시	126,749	98,003	94,810	104,320	105,970
외식	전국	27,245	67,120	97,283	88,845	70,123
	도시	30,549	68,240	99,034	91,538	72,34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1.



---

# 제 3 장

## 국내 식품산업 전망

---



## 제3장 | 국내 식품산업 전망

국내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R&D 등에서 글로벌 식품기업과의 경쟁력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변화 등의 외부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 식품시장의 추세는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이 감소하고, 소재분야는 둔화로, 식품 가공은 증가 추세로 전망된다.

특히 유지류, 과일류나 채소류, 설탕의 수요는 증가되는 가운데, 곡류나 수산물은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단순 음식 섭취 목적에서 건강이나 웰빙,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과거 곡류 중심의 소비에서 채소류나 육류 등 서구화로 식단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수요자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고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원재료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

### 제 1 절 적용 기법

#### 1.1 정량적 분석방법

정량적 방법으로는 과거 시장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수요패턴을 예측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부 식품산업의 패턴은 초기단계에는 완만한 속도로 공급되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가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되고, 일정 수준의 임계치에 이르면 포화상태에 도달된다.

포화상태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시장이 일정수준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제품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어 성장이 둔화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성장 곡선에 대한 분석모형인 고펜퍼츠 모형 (Gompertz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시계열분석 모형은 단순추세법, Box-Jenkins법, X-11법, 콤페르츠 모형을 사용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2009년까지 시계열 자료 수집
- ② 2007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4가지 모형을 통해 2008년 예측
- ③ 2008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4가지 모형을 통해 2009년 예측
- ④ 예측 결과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여 오차범위가 4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분석방법은 제외함(신뢰성 확보)
- ⑤ 선별된 예측 모형 결과와 실제 데이터간의 오차 범위를 5%내외로 줄이기 위해 각 모형별 가중치를 부여

$$D = w_1D_1 + w_2D_2 + w_3D_3 + w_4D_4$$

w: 가중치

D: 실제 데이터와 오차범위 40%내의 예측 방법

※ 각 모형마다 가중치는 상이함

- ⑥ 가중치 부여된 모형을 활용하여 2013년까지 예측

## 1.2 정성적 분석방법

정성적 방법은 시계열 분석의 한계인 현실과의 차이점을 보완하고자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법을 사용하였다.

1차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보여준 뒤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망을 보정하였다.

정성 분석을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법을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6.2%로 가장 높고, 30대가 26.9% 순으로 30~40대가 73%의 비중이었다.

<표 1-84> 연령별 분포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순위
20대	2	3.8%	5
30대	14	26.9%	2
40대	24	46.2%	1
50대	8	15.4%	3
60대 이상	4	7.7%	4
계	52	100.0%	

기관별 분포로는 산업계가 48%, 학계 20%, 관계 14%, 기타 18%로 산업계의 분포가 높았으나, 학계, 관계 등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lt;표 1-85&gt; 기관별 분포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순위
산업계	24	48.0%	1
학계	10	20.0%	2
관계	7	14.0%	4
기타	9	18.0%	3
계	50	100.0%	

직급별 분포로는 과장급이 21.7%, 부장급이 19.6%, 교수진이 19.6%, 임원급과 대표급이 각각 10.9% 등으로 직급이 부장급 이상이 41.4%, 학계의 교수진이 19.6% 등이었다.

&lt;표 1-86&gt; 직급별 분포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순위
대리급	5	10.9%	4
과장급	10	21.7%	1
부장급	9	19.6%	2
임원급	5	10.9%	4
대표급	5	10.9%	4
교수진	9	19.6%	2
기타	3	6.5%	7
계	46	100.0%	

학력별 분포는 박사가 47.8%로 가장 높고, 학사 34.8%, 석사 13.0%로 석사 이상의 학력자가 60% 이상이었다.

&lt;표 1-87&gt; 학력별 분포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순위
고졸이하	2	4.3%	4
학사	16	34.8%	2
석사	6	13.0%	3
박사	22	47.8%	1
계	46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의하면, 30대 이상의 부장급 이상, 석사급의 응답자가 높아, 식품산업의 경력과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lt;표 1-88&gt; 전문 분야별 분포

구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	11.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8.7%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4	12.2%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7	6.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7	6.1%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1	9.6%
기타 식품 제조업	28	24.3%
알콜음료 제조업	13	11.3%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0	8.7%
계	115	100.0%

&lt;표 1-89&gt; 분야별 전망

구 분	국내전망		세계전망	
	3년 내 전망	2015년 전망	3년 내 전망	2015년 전망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5%	0.77%	2.31%	2.5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50%	5.28%	3.33%	6.1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75%	7.08%	6.25%	7.7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0.00%	3.75%	3.75%	6.2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2.50%	4.17%	7.50%	9.17%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2.05%	1.59%	4.32%	5.00%
기타 식품 제조업	4.06%	6.56%	5.63%	7.19%
알콜음료 제조업	3.75%	6.46%	4.38%	7.08%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33%	5.00%	5.83%	7.50%

분석 결과, 분야별 예상 정도는 상이한 차이가 있으나, 기타 식품 제조업과 알콜음료 제조의 경우 2015년에 6%이상의 성장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량 조사 분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수요예측 결과를 도출하였다.

## 제 2 절 출하액 및 부가가치 전망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2010년 63조 3,481억원, 2011년에 68조 4,923억원 규모로 2010년대비 8.1% 증가, 부가가치는 2010년에 22조 8,363억원, 2011년에 24조 6,379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분야별로는 식료품 제조업의 출하액은 2010년 54조 9,436억원에서 2011년에 59조 8,869억원으로 9.0%의 증가, 부가가치는 2010년에 18조 1,063억원에서 2011년 19조 7,325억원으로 약 9.0% 증가로 전망되었다.

음료제조업의 매출액은 2010년의 8조 4,045억원에서 2011년에 8조 6,054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 부가가치는 4조 7,301억원에서 2011년에 4조 9,055억원으로 3.7% 증가로 전망되었다.

<표 1-90> 출하액 및 부가가치 전망

(단위 : 억원)

	2010		2011	
	출하액	부가가치	출하액	부가가치
<b>음식료품 제조업</b>	633,481	228,363	684,923	246,379
<b>식료품 제조업</b>	549,436	181,063	598,869	197,325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3,427	25,671	105,409	28,78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3,895	11,539	36,598	12,106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642	8,695	23,810	9,436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3,868	5,771	26,794	6,40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69,484	30,184	76,054	33,09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50,302	12,909	53,510	14,105
기타 식품 제조업	162,635	66,717	176,466	70,4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94,183	19,578	100,227	23,002
<b>음료 제조업</b>	84,045	47,301	86,054	49,055
알콜음료 제조업	49,046	29,560	50,649	31,01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4,999	17,740	35,406	18,043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 품목의 출하액, 부가가치는 2010년대비 2011년에 증가하며, 매출액 증가폭이 큰 산업은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이 12.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이 12.3%이며,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작은 산업은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이 1.2%로 가장 낮았다.

기타 식품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 매출의 25.7%를 차지하는 산업이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이질적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분야이지만, 2011년에는 2010년대비 8.5%의 성장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식료품은 비교적 높은 성장이 진행중인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 식료품의 성장 전망은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과 부가가치는 12% 이상의 높은 성장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육류 관련 소비량의 증가와 가격 증가로 해석된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8.0%, 부가가치는 4.9%의 증가율로 전망되었는데, 매출액, 부가가치의 성장률은 소비증가보다는 원재료 가격의 증가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 요인으로 풀이된다.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10.0%, 부가가치는 8.5%의 증가율로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소비 증가와 원재료 가격의 증가로 풀이된다.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12.3%, 부가가치는 10.9%의 증가율로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과거의 일반 제품에서 웰빙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소비 변화로 매출액과 부가가치가 증가 될 것으로 보인이며, 변동이 타 분야보다 커 전망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11.0%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9.5%, 부가가치는 9.6%의 증가율로 전망되는데, 식용 빙과류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원재료의 가격 변화와 고품질의 소비 증가로 풀이된다.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6.4%, 부가가치는 9.3%의 증가율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웰빙에 대한 인식 변화로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14.9%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6.4%, 부가가치는 17.5%의 증가율로 전망된다.

알콜음료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3.3%, 부가가치는 4.9%의 증가율로 전망된다.

일부 소비의 증가와 전통주의 고급화, 수출 증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로 전망된다.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음식료품 매출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2010년 대비 1.2%, 부가가치는 1.7%의 증가율로 소비 시장의 한계, 업체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부진한 성장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3 절 수출입 전망

국내 음식료품 제조업의 수출입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이 수출의 약 3배 이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 규모는 2011년 37억 8,020만 달러에서 2013년 40억 5,500만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수입 규모는 2011년 117억 8,150만 달러에서 2013년 129억 9,350만 달러로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lt;표 1-91&gt; 국내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

구분	수출				수입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b>식품소재</b>	62.8	66.1	71.2	6.5%	804.9	863.7	935.6	7.8%
도정·제분	31.6	33.2	36.7	7.8%	584.5	639.9	695.2	9.1%
도축·도계	31.2	32.8	34.5	5.2%	220.4	223.9	240.3	4.4%
<b>식품가공</b>	3,717.4	3,790.2	3,983.8	3.5%	10,976.6	11,478.0	12,058.0	4.8%
육가공	6.4	5.7	5.4	-8.1%	1,747.8	1,774.0	1,800.1	1.5%
유가공	51.2	55.0	58.8	7.2%	596.9	638.0	679.2	6.7%
수산가공	1,430.3	1,449.7	1,521.8	3.1%	2,581.4	2,724.9	2,844.8	5.0%
과채가공	205.8	207.5	214.2	2.0%	1,426.6	1,524.5	1,622.3	6.6%
식용유지	48.1	48.8	50.3	2.3%	989.6	1,009.7	1,088.0	4.9%
빵·과자·국수	526.1	528.3	548.9	2.1%	582.6	619.2	655.9	6.1%
조미료	211.2	226.4	241.7	7.0%	432.7	463.7	496.7	7.1%
기타식품	779.2	783.9	829.9	3.2%	1,905.6	1,976.8	2,088.7	4.7%
알코올음료	294.8	311.3	325.7	5.1%	669.5	702.4	736.5	4.9%
비알콜음료	164.3	173.6	186.9	6.7%	43.9	44.8	45.7	2.0%
<b>음식료품제조업 계</b>	<b>3,780.2</b>	<b>3,856.2</b>	<b>4,055.0</b>	<b>3.6%</b>	<b>11,781.5</b>	<b>12,341.8</b>	<b>12,993.5</b>	<b>5.0%</b>

주 : 1) 연평균 성장률은 2011~2013년까지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소재 부문의 수출액은 2011년 6,280만 달러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하여 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수입액은 2011년 8억 490만 달러에서 연평균 7.8%의 성장률로 2013년에는 약 9억 4천만 달러에 이르러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중이 1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품가공 부문은 수출액의 경우 2011년 37억 1,740만 달러에서 2013년 39억 8,380만 달러로, 수입액은 2011년 109억 7,660만 달러에서 2013년 120억 5,8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3.5%, 수입 4.8%로 식품소재 부문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육가공 분야의 수출 규모만 연평균성장률 -8.1%로 감소세가 예상되며, 그 외 전 분야의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2011~2013년까지 수출액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정·제분으로 7.8% 성장이 기대되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7.2%, 조미료 7.0%, 비알콜음료 6.7% 등의 순이고, 식용유지, 빵·과자·국수, 과채가공 분야는 3% 미만의 성장이 예상된다.

도정·제분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3,160만 달러에서 2013년 3,670만 달러로 7.8%의 성장이 예상되나, 수입액은 2011년 5억 8,45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9.1% 성장하여 약 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6억 5,85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도계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3,12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5.2% 성장한 3,45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2억 2,04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4.4% 성장한 2억 4,03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는 약 2억 58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육가공 분야는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이 약 300배 가량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011년 64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수입 규모는 2011년 17억 4,780만 달러에서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2013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7억 9,470만 달러로 예상된다.

유가공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5,12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7.2% 성장한 5,88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5억 9,690만 달러에서 연평균 6.7% 성장한 2013년 6억 7,92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는 약 6억 2,04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수산가공 분야는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 대비 수출액이 약 38%, 수입액이 약 22%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011년 14억 3,03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3.1% 증가한 15억 2,18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25억 8,14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5.0% 성장한 28억 4,480만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3억 2,3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채가공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2억 580만 달러에서 2013년 2억 1,420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액은 2011년 14억 2,66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6.6% 성장한 16억 2,230만 달러 수준으로 적자 규모가 14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유지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4,81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2.3% 성장한 5,03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9억 8,96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4.9% 성장한 10억 8,8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는 약 10억 3,77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전망된다.

빵·과자·국수 분야는 2011년 수출액 5억 2,610만 달러에서 2013년 5억 4,89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5억 8,260만 달러에서 2013년 6억 5,590만 달러 수준으로 초기에는 수출액과 수입액 간의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2011~2013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수출 2.1%, 수입 6.1%로 무역적자 규모는 2011년 5,650만 달러에서 2013년 1억 700만 달러로 연평균 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조미료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2억 1,12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7.0% 성장한 2억 4,17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4억 3,270만 달러에서 2013년에 연평균 7.1% 성장한 4억 9,670만 달러 수준으로, 2013년 무역수지는 2억 5,5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기타 식료품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7억 7,92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3.2% 증가한 8억 2,99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19억 56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4.7% 성장한 20억 8,870만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2억 5,88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코올음료 분야는 수출액의 경우, 2011년 2억 9,480만 달러에서 2013년 3억 2,570만 달러로 연평균 5.1%, 수입액은 2011년 6억 6,950만 달러에서 2013년 7억 3,650만 달러로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2013년 무역수지는 4억 1,08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비알코올음료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1억 6,43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6.7%의 성장률로 1억 8,690만 달러, 수입액은 2011년 4,390만 달러에서 2013년 4,570만 달러로 연평균 2.0%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에 1억 2,040만 달러에서 2013년에 1억 4,120만 달러의 흑자가 전망된다.

#### 제 4 절 민간소비지출 전망

국내 민간소비지출의 전망을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결과, 2009~2011년까지 민간소비지출은 모든 식품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은 2009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9.3%의 성장률로 2009년 39조 7,860억원에서 2011년 47조 5,120억원을 거쳐, 2013년에는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식 분야는 2009년 44조 2,280억원에서 2011년 48조 6,200억원으로 연평균 4.8%의 성장이 전망된다.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별 민간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식품소재 분야의 경우, 2009년 530억원에서 2011년 55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9%, 식품가공 분야의 경우, 2009년 39조 7,330억원에서 2011년 47조 4,57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9.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소재의 세부 분야별로는 정곡·제분·제당이 2009년 60억원에서 2011년 70억원으로 연평균 8.0%의 성장을, 전분 및 당류가 2009년 470억원에서 2011년 490억원으로 연평균 2.1%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식품가공의 세부 분야별 총 음식료품제조업 민간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빵·과자·국수 부문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16.6%, 알코올음료 15.2%, 기타 식료품 13.7%, 유가공 10.8%, 수산가공 10.4% 등의 순이고, 2009~20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식용유지, 알코올음료, 기타식료품, 빵·과자·국수 부문에서 1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lt;표 1-92&gt; 국내 식품산업 민간소비지출 전망

(단위 : 십억원 %)

	2009	2010	2011	연평균 성장률
<b>식품소재</b>	53	54	55	1.9%
정곡·제분·제당	6	6	7	8.0%
전분 및 당류	47	48	49	2.1%
<b>식품가공</b>	39,733	43,718	47,457	9.3%
육가공	6,585	7,201	7,708	8.2%
유가공	4,280	4,500	4,799	5.9%
수산가공	4,155	4,563	4,908	8.7%
과채가공	1,247	1,304	1,360	4.4%
식용유지	1,015	1,190	1,371	16.2%
빵·과자·국수	7,098	7,878	8,538	9.7%
조미료	1,374	1,460	1,540	5.9%
기타식료품	5,457	6,115	6,704	10.8%
알코올음료	6,067	6,868	7,706	12.7%
비알콜음료	2,455	2,640	2,823	7.2%
<b>음식료품제조업 계</b>	39,786	43,773	47,512	9.3%
<b>외식</b>	44,228	46,436	48,620	4.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생산자가격평가표, 민간소비지출

육가공 분야의 민간소비지출액은 2009년 6조 5,850억원에서 2011년에는 연평균 8.2% 증가한 7조 7,080억원, 유가공 분야는 2009년 4조 2,800억원에서 연평균 5.9% 증가한 2011년 4조 7,99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수산가공 분야는 2009년 4조 1,550억원에서 2011년 4조 9,08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8.7%,

과채가공 분야는 2009년 1조 2,470억원에서 2011년 1조 3,60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4.4%가 예상된다.

식용유지 분야는 음식료품 제조업 대비 민간소비지출액 비중이 3%가 채 안 되는 수준이나, 2009년 1조 150억원에서 2011년 1조 3,710억원으로 연평균 16.2%의 높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빵·과자·국수 분야는 음식료품 제조업 중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약 18%로 가장 높은 분야이며, 2009년 7조 980억원에서 2011년에 8조 5,38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또한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료 분야는 2009년 1조 3,740억원에서 2011년 1조 5,400억원으로 연평균 5.9%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기타 식료품은 2009년 5조 4,570억원에서 2011년 6조 7,040억원으로 연평균 10.8%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기타 식료품에 대한 지출 증가는 건강식품의 수요 성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코올음료의 민간소비지출은 전체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2009년 6조 670억원에서 2011년 7조 70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도 12.7%에 달할 전망이다.

비알코올음료의 민간소비지출 규모는 2009년 2조 4,550억원에서 2011년 2조 8,230억원으로 연평균 7.2%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 제 5 절 취업 및 고용전망

국내 식품산업 취업자 수 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 336만명에서 2011년 343만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농수산 부문은 2009년 163만명에서 2011년 161만명으로 연평균 0.7% 감소할 전망이며, 그 다음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은 외식 분야의 취업자 수는 2009년 147만명에서 2011년 155만명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2009년 26만명에서 2011년 27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가 예상되며, 그 중 식품소재 분야는 2009년 1만 7천명에서 2011년 1만 6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3%를, 식품가공 분야는 2009년 24만 2천명에서 2011년 25만 1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1.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t;표 1-93&gt; 국내 식품산업 취업자 수 및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 수			고용자 수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식품산업	3,363	3,394	3,428	1,035	1,050	1,062
농수산	1,632	1,613	1,610	155	153	152
음식료품제조업	258	261	266	184	184	187
식품소재	17	16	16	9	8	8
식품가공	242	245	251	175	176	178
외식	1,473	1,520	1,552	696	713	72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취업자 수

국내 식품산업 고용자 수 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 104만명에서 2011년 106만명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외식 분야로 2009년 70만명에서 2011년 72만명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전망이며, 농수산 분야는 2009년 15만 5천명에서 2011년 15만 2천명으로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2009년 18만 4천명에서 2011년 18만 7천명으로 연평균 0.8% 증가가 예상되며, 그 중 식품소재 분야는 2009년 9천명에서 2011년 8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5.7%를, 식품가공 분야는 2009년 17만 5천명에서 2011년 17만 8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및 고용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외식 부문으로 시장 규모 확대에 기인하여 취업 및 고용 시장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반면에 농수산 분야와 식품소재 분야의 취업 및 고용 시장은 감소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 제 6 절 2010년 식품 산업 주요 트렌드와 전망

경제가 발전하고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는 국내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는 식품을 비롯한 소비 트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식품 산업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식품 시장을 주도했던 10대 주요 트렌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6.1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여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물이나 식중독과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방지 뿐 아니라 안심할 수 없는 수입 원료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거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특히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식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자류나 유가공제품의 프리미엄화 추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프리미엄 제품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산 원료’, ‘유기농 원료’, ‘화학적 첨가물의 무첨가’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HACCP 도입’과 같은 위생적인 제조 과정 뿐 아니라 원료의 안전성까지 확보해주실 바라는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제품들이다.

### 6.2 국산원료 사용 확대

2009년부터 시작된 식품업계의 국산 원료 사용 움직임은 수입 원료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면 국산 원료, 유기농 원료의 사용은 앞으로도 지속될 트렌드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주요 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정 지역과의 계약재배를 강조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류에서 국산 쌀, 국산 콩 사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장류에서는 주원료 뿐 아니라 국산 천일염과 같이 소비자들이 건강에 민감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국산 원료의 사용이 증가한 한해였다. 또한 국산 천일염의 경우 장류 뿐 아니라 김치, 과자류, 소스류 등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6.3 ‘무첨가’ ‘유기농’ 등 프리미엄 제품 강세

프리미엄 제품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화학첨가물의 유해성 논란이 대두되고 잇단 대기업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 대상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부터다.

주요 제과사들을 중심으로 화학첨가물의 무첨가를 강조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강조되는 첨가물의 종류는 기존에 주로 강조되던 합성착색료에서부터 전체적인 화학합성 첨가물의 배제를 강조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의 성공에 힘입어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해당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화학첨가제 무첨가를 표방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은 ‘가공의 단순화’로 대표되는 트렌드로 ‘Simple’ 마케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로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 2005~2008년 출시된 신제품 중 ‘simple’이나 ‘simply’라는 단어를 사용한 제품이 64.7%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Mintel).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기농 원료와 유기적 취급을 통해 생산된 유기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기농 강조 식품의 경우 정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이 늦춰지면서 일반 가공식품에 확대 속도가 낮았지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주요 소비층인 우유나 치즈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유기농 원료 강조 제품들이 확대되었다.



#### 6.4 채소값 급등에 따른 채소·과일 가공식품 인기

2010년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채소, 과일의 작황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급등해 채소나 과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특수를 누린 한해였다.

루에 필요한 채소를 음료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 음료 제품이 특히 인기를 끌었으며 주스류 등 과일을 이용한 제품들도 기존 제품의 인기로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야채와 과일값 폭등으로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과일 및 야채가 많이 들어간 제품 등을 많이 찾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100% 신선 과일 채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고가의 신선 식품 구매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을 통해서나마 위안을 삼으려는 심리가 시장에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이변을 비롯한 기후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0년과 같은 현상을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 6.5 미용 분야는 '이너뷰티'

체중조절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미용 관련 기능성식품 시장이 '먹는 화장품', 'Inner Beauty'를 강조하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너뷰티」란 피부 속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내부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꿔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관련 시장은 1조5천억원에 달하나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지난해 히알루론산·콜라겐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켜 피부 체질 자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피부보습 건강기능식품, 피부미용 드링크 등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뿐 아니라 일반식품 형태의 「이너뷰티」 제품들도 잇달아 출시되었는데 남양유업 '맑은 피부로 돌아갈 시간 17차', 해태음료 '순백차' 등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미백효과가 알려진 상백피, 백차, 보습 효과가 있는 울무, 메밀 등 다양한 소재들을 함유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식품기업 뿐 아니라 화장품기업들도 ‘먹는 화장품’을 컨셉으로 식품 시장에도 진출했는데 LG생활건강은 돈태반추출물과 피크노제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출시했고 아모레퍼시픽도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드링크 제품을 출시하는 등 이너뷰티와 관련된 신제품 출시가 눈길을 끌었다.

### 6.6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외국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베트남 쌀국수, 인도 커리, 태국 땀양꿍, 헝가리 굴라쉬 등과 같은 에스닉 푸드 전문점 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가공식품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식품 매장에서는 쌀국수나 라이스페이퍼, 다양한 향신료나 소스류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직접 외국 전통식품을 특별식으로 만들어먹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카레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외식, 식자재, 가공식품 시장 등 식품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6.7 복고풍

2010년은 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에도 복고풍이 두드러졌다. 단팥빵, 크림빵과 같은 복고풍 빵류의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복고풍을 연상시키는 브랜드나 제품명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빵류 뿐 아니라 연양갱, 산도와 같은 복고풍 제품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이 상승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음료, 라면 등 다양한 식품으로 확산된 한해였다.

가공식품 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홍시, 고구마, 미숫가루와 같은 전통적인 간식 소재를 제품에 활용함으로써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해 복고풍 트렌드에 편승하기도 했다.

## 6.8 장수제품 리뉴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출산율 감소 등 국내 가공식품 시장이 주춤하면서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기존 제품의 리뉴얼에 신경을 쓰고 있다. 2010년은 특히 장수제품의 리뉴얼이 두드러졌던 한해로 평가된다.

장수제품의 변신은 기존의 대중적인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히트 상품의 검증된 상품성과 인지도에 의해 특별한 비용 없이 고객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리뉴얼 열풍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장수 음료인 ‘환타’와 ‘오란씨’가 새로운 포장과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컨셉으로 리뉴얼되었으며 출시 28년을 맞은 ‘돼지바’, 1972년 출시되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별뿔빠이’도 2010년 재탄생했다.

식품 기업들이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리뉴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비 절감 및 판매부진 위험성 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장수 제품의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패키지 뿐만 아니라, 맛과 성분 면에서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리뉴얼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6.9 디지털 마케팅

2010년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진 한해였다.

기업들은 스마트폰 전용 쇼핑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가 하면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이벤트나 게임, 정보제공을 위한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을 앞다투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QR코드를 사용한 마케팅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포장을 바꿔야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변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20~30대 뿐 아니라 전 연령대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스마트폰이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6.10 드라마 인기 등에 힘입어 홈베이킹 제품 인기

2010년은 제빵과 관련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홈베이킹 재료나 조리기구 세트 제품에 대한 판매가 두드러졌던 한해였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빵이나 케익, 쿠키 등을 만들 수 있는 프리믹스 제품에서부터 이스트, 생크림과 같은 제빵에 필요한 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제빵 조리기구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25% 이상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는데 핸드믹서기, 제빵 반죽에 사용되는 기구, 저울 등을 위주로 판매가 증가했다.

빵류 DIY 제품이 출시된 것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삼립식품의 ‘오븐스마일’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70% 정도 완성된 재료를 구입해 가정에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프라이팬을 이용해 나머지를 완성하면 제과점에서 갖 구운듯한 빵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식품 트렌드를 살펴보면 주요 트렌드의 대부분이 일시적이 아닌 향후 몇 년 간 식품시장에 반영될 트렌드로 분석된다. 식품안전, 건강지향, 디지털 마케팅 등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식품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트렌드 내에서 특징적인 사건이나 이슈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011년은 특히 방사선과 관련된 이슈가 식품안전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까지는 식품 중 방사선 물질 오염과 관련된 우려가 식품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나 국내산 식품에 미치는 영향 등에 소비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며 기업들은 또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원료, 제품 또는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지향, 웰빙 트렌드 역시 201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주요 트렌드로 분석된 ‘이너 뷰티’는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소재에 대한 기능성이나 섭취량을 중심으로 기업들 간 마케팅 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자, 음료 등의 프리미엄화, 원료의 국산화 등은 전 식품에 걸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제역의 영향으로 육류나 우유 원료 가격 상승, 관련 제품의 매출 감소가 육가공 산업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 2 부

.....

해외 식품산업 동향



---

# 제 1 장

## 세계 식품 시장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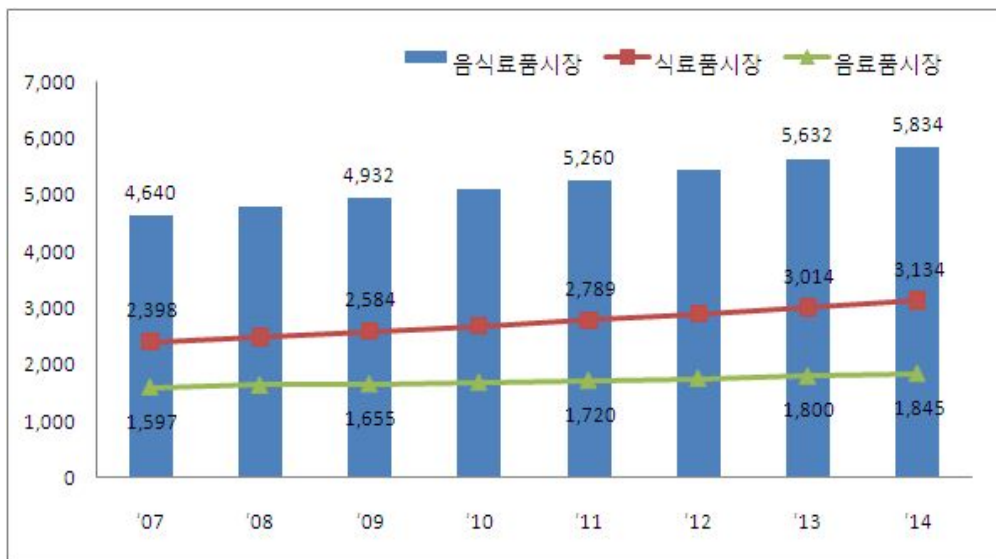


## 제1장 세계 식품 시장 규모

### 제 1 절 세계 식품시장

2010년도 세계 식품 시장규모는 리서치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의 리서치기관인 Datamonitor가 추정한 바에 위하면<sup>1)</sup> 약 5조 1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07년 4조 6천억 달러에서 '09년 4조 9천억 달러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07에서 '14년도 연평균 증감률이 5.7%에 달하는 등 세계시장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추세에 힘입어 세계식품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3.4%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5.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1> 세계 식품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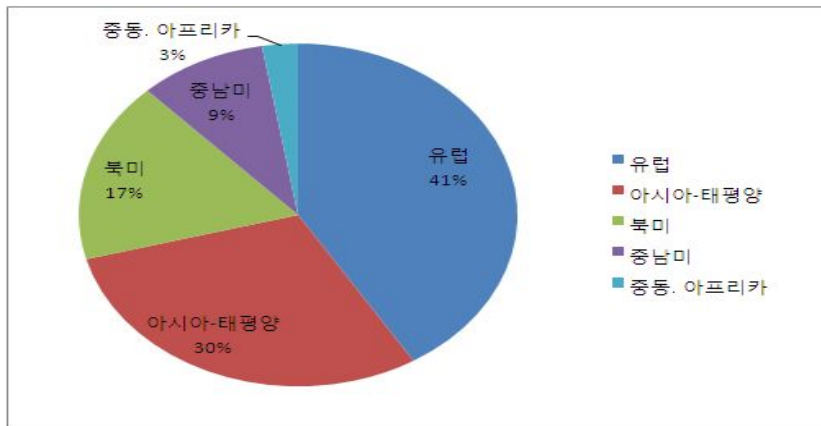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www.datamonitor.com), 2011.

1) Food, 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합계. 2010~2014년은 추정치

2010년도 식품시장의 규모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약 2.1천억 달러로 전체 식품시장의 41.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9.7%인 15.1천억 달러, 북미지역이 8.7천억 달러로 17.1%, 중남미가 4.8천억 달러로 9.4%,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1.3천억 달러로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세계식품시장 대륙별 비중(2010)



자료 : Datamonitor, Food, 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합계.

국가별 식품 시장 규모를 보면, '10년 미국이 7.8천억 달러로 가장 큰 식품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7천억 달러, 일본 4.1천억 달러, 독일 3.8천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6천억 달러로 식품시장 규모에서 17위를 차지했다.

<표 2-1>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 순위(2010)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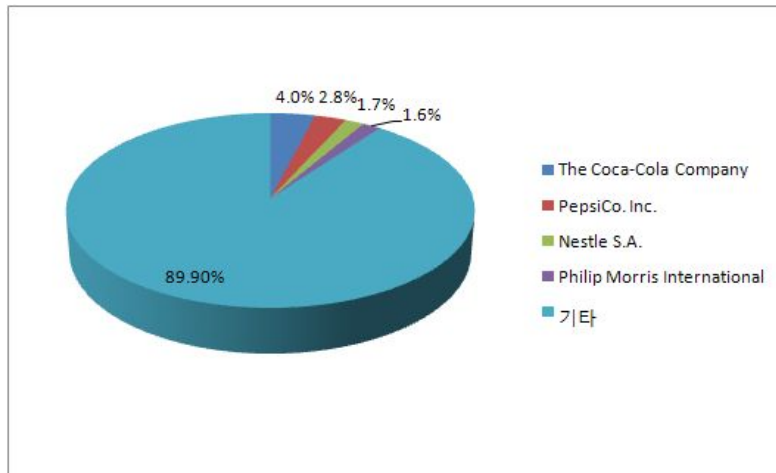
순위	국가	'10	'09	'08	'07
1	미국	780.9	766.1	752.6	733.2
2	중국	695.2	639.9	592.3	543.6
3	일본	406.6	402.9	400.5	395.2
4	독일	380.1	374.9	371.5	366.5
5	프랑스	250.8	247.4	244.7	243
⋮	⋮	⋮	⋮	⋮	⋮
17	한국	56.5	54.6	52.8	51.1

자료 : Datamonitor, Food, Alcoholic beverages, Non-alcoholic beverages, Tobacco 합계. 순위는 '10년 기준

## 제 2 절 세계 식품기업 현황

세계 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기록한 기업은 The Coca-Cola Company로 4.0% 시장을 점유했으며 다음이 2.8%를 점유한 PepsiCo, Inc., 1.7%인 Nestle S.A.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3 > 세계 식품시장에서의 상위 기업 시장점유율(2009)



자료 : Datamonitor Global Food, Beverage & Tobacco, 2010

세계 주요 식품제조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의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세계 가공식품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 중 미국 국적의 식품제조 기업은 총 11개로 세계 가공식품 시장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매출액 기준 세계 상위 10대 식품제조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Nestle가 2009년 4,470,800만달러의 매출액, 278,000명의 종업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raft Foods, Inc, Cargill, Incorporated, PepsiCo, Inc, JBS-Swift 등의 업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제 3 절 세계 식품 수출입 동향

2009년 전 세계 식품 교역액은 1,432,993백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8%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서유럽의 식품교역액이 727,619백만달러로 전체 식품교역액 중 50.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유럽에 이어 북중미, 동유럽이 각각 15.9%, 9.5%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2-2 > 대륙별 총 교역액 및 비중(2009년)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총 교역액(A)	식품교역액(B)	B/A	식품교역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서 유 럽	8,770,094	727,619.0	8%	50.78%
북 중 미	4,544,876.5	227,727.7	5%	15.89%
동 아 시 아	2,780,644.0	118,745.6	4%	8.29%
동 남 아 시 아	2,006,043.5	71,726.8	4%	5.01%
동 유 럽	1,774,210	136,054.5	8%	9.49%
중동 및 아프리카	618,493.5	30,885.0	5%	2.16%
남 미	392,599.0	81,560.1	21%	5.69%
오 세 아 니 아	334,963.6	38,674.0	12%	2.70%
전 체	21,221,924.1	1,432,992.7	8%	100%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2011.  
Euromonitor European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2011.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0,046백만달러 식품 수입, 76,587백만달러의 식품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출, 수입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식품 교역액 상위 국가는 미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로 드러났다. 한국은 13,591백만달러의 식품 수입액, 4,191백만달러의 식품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식품 교역액을 기준으로 23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lt; 표 2-3 &gt;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2009년)

(단위 : 백만 달러)

	국 가	식품 수입액	식품 수출액	식품 교역액
1	미 국	80,046.4	76,587.0	156,633.4
2	독 일	66,168.0	60,413.1	126,581.1
3	프 랑 스	46,597.0	56,601.1	103,198.1
4	네 델 란 드	31,161.0	49,940.3	81,101.3
5	영 국	49,897.0	22,898.9	72,795.9
6	이 태 리	37,457.0	30,529.9	67,986.9
7	벨 기 에	29,742.0	34,206.7	63,948.7
8	스 페 인	23,968.0	28,101.6	52,069.6
9	중 국	16,749.9	34,154.0	50,903.9
10	캐 나 다	23,881.6	26,464.0	50,345.6
11	브 라 질	6,068.0	38,904.0	44,972.0
12	일 본	41,672.5	2,892.0	44,564.5
13	러 시 아	33,304.0	8,876.0	42,180.0
14	멕 시 코	13,811.7	14,666.0	28,477.7
15	태 국	6,260.8	21,781.0	28,041.8
16	호 주	8,317.1	19,065.0	27,382.1
17	덴 마 크	10,146.0	17,010.6	27,156.6
18	폴 란 드	8,842.0	12,832.1	21,674.1
19	U A E	10,413.6	10,822.0	21,235.6
20	홍 콩	14,821.0	5,082.0	19,903.0
∴	∴	∴	∴	∴
23	한 국	13,590.5	4,191.0	17,781.5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Marketing Data and Statistic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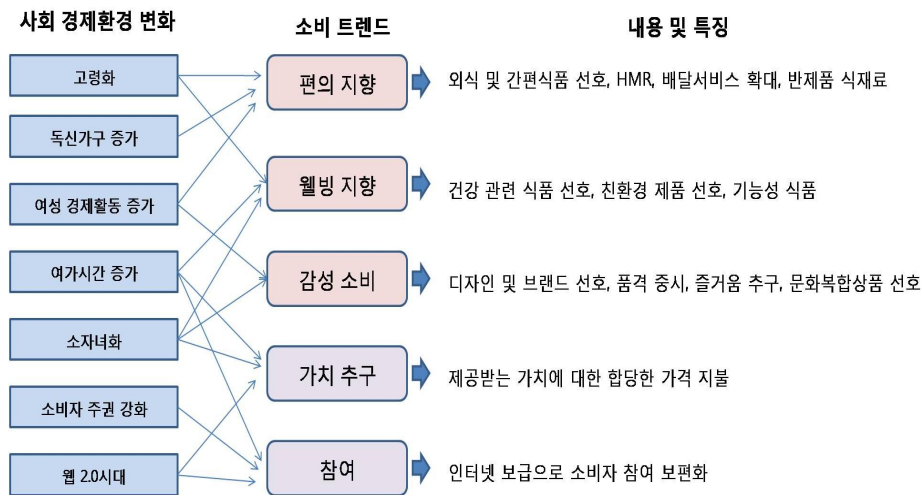
## 제 4 절 세계 식품 트렌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식품 소비는 편의 지향, 웰빙 지향, 감성 소비, 가치 추구, 소비자 참여 등 5개 주요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편의 지향 소비는 외식의 증가나 간편하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또는 HMR(Home Meal Replacement), 배달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요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독신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 또한 편의적인 식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가시간 증가, 자녀수의 감소 등은 보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 친환경 제품의 선호 등 웰빙 지향적인 식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감성 소비와 가치 추구, 소비자 참여 등은 안전한 식품, 고품격 서비스, 문화와 가치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식품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 그림 2-4 >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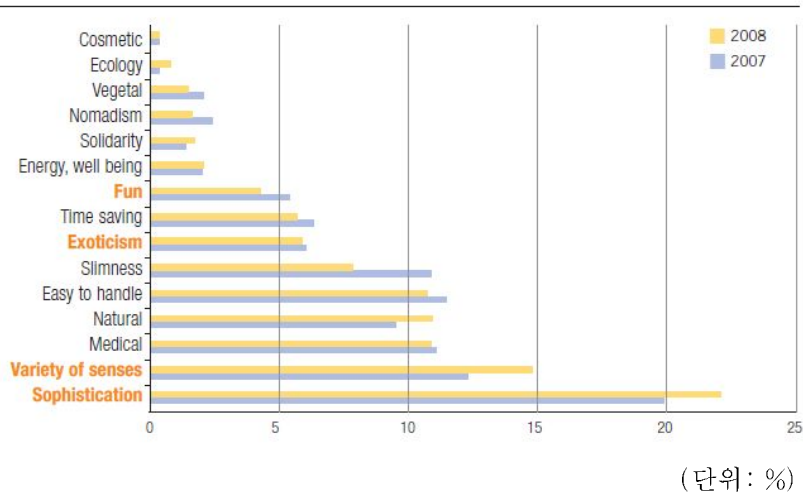


5대 글로벌 소비 트렌드는 국내 식품 소비 및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웰빙 지향, 가치 추구하고 같은 트렌드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고 있고 감성소비나 참여 의지는 지역식품에 대한 선호나 식품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유럽 식음료연합회 CIAA(Confederation of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 of the EU) 2009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품분야 R&D 트렌드는 즐거움(pleasure), 건강(health), 운동(physical), 편리성(convenience) 및 윤리(ethics) 등 5개 축을 중심으로 15개 트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교양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식품 개발이 개발의 주요 트렌드이다. 건강 분야는 치료와 자연 트렌드가 주도하고 있다. 2008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천연, 교양, 오감 자극 분야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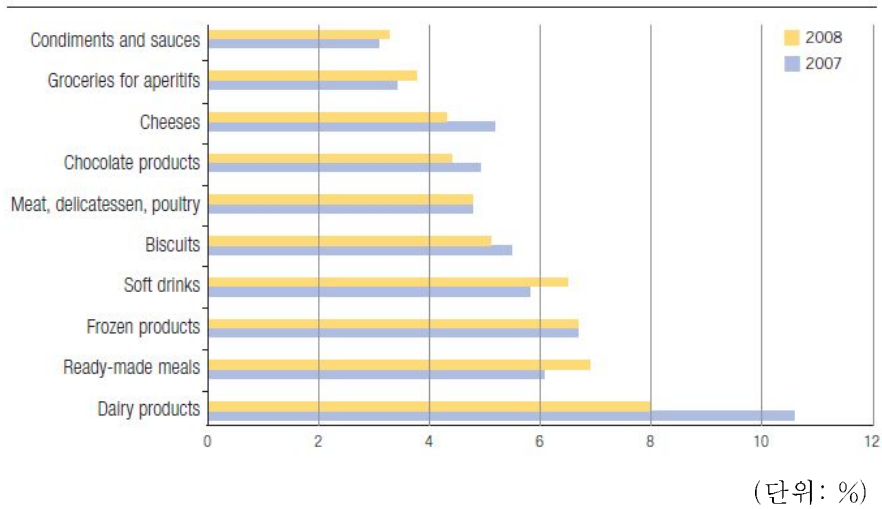
< 그림 2-5 > 유럽 식품 개발 트렌드 변화(2007-2008)



자료 : Source: XTC world innovation. Copyright XTC 2009  
 (www.xtcworldinnovation.com)

연구 개발이 활성화된 10대 품목은 < 그림 11 > 과 같으며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이 이뤄진 품목은 유제품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개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늘어난 품목은 소프트드링크와 즉석식품 분야로 파악된다.

< 그림 2-6 > 10대 R&D 활성화 품목(2007-2008)



자료 : Source: XTC world innovation. Copyright XTC 2009  
 (www.xtcworldinnovat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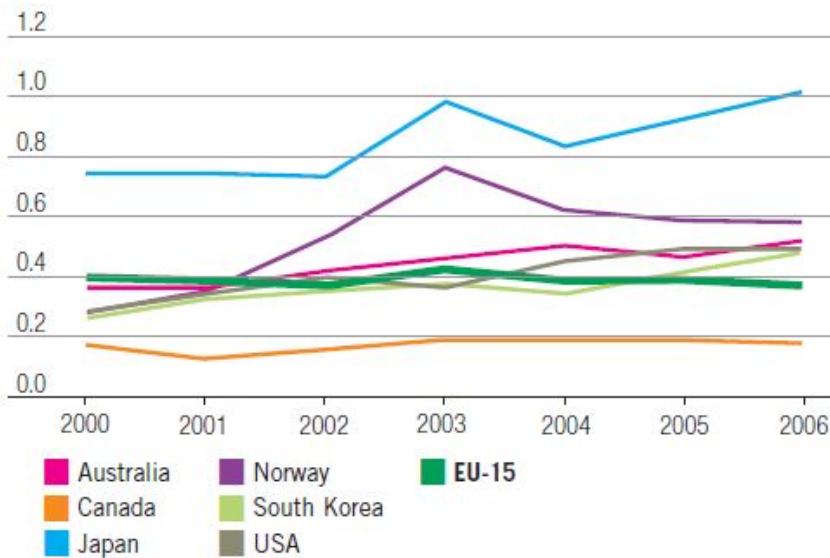


세계적으로도 식품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별 식품산업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높은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일본,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순이며 2006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ECD에서는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대한 R&D 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로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을 지목했으며 반면 EU 15개국은 2006년 0.37%로 전년 0.38%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그림 2-7 > 국가별 식음료산업 매출액 대비 R&D 비율

(단위 : %)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2009

---

## 제 2 장

# 미국 식품산업 동향

---



## 제2장 미국 식품산업 동향

### 제 1 절 음료제품제조업<sup>2)</sup>

#### 1.1 출하동향

음식료제품제조업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출하액은 '00년에 11.3%에서 '08년도에는 13.5%, 부가가치는 10.5%에서 12.9%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의 경우 '00년 7.7%에서 '08년 9.1%로 조금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00년 9.5%에서 '08년 1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식료제품제조업이 고용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음식료제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0	11.3	10.5	9.5	7.7
2006	11.7	11.5	11.3	8.2
2008	13.5	12.9	12.3	9.1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8년도 음식료제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총 7,387억달러로 이중 식료품 출하액이 6,499억 달러로 8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료품 출하액으로 888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음식료제품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00년 4,742억 달러에서 '08년 7,387억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6.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의 경우도 '00년 2,071억 달러에서 '08년 2,913억 달러로 연평균 5.0%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분석에서는 사료제조업 미포함

식료품의 출하액은 '00~'08년 기간동안 연평균 5.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여 음료산업보다 식료품 산업이 더 큰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율을 보면 '00년 43.7%에서 '08년에는 39.4%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은 '00년 43.1%에서 '08년 37.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0년 47.5%에서 '08년 50.4%로 음료산업의 부가가치가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미국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



자료 :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 1.2 산업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6,499억 달러로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이 22.9%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낙농제조업이 13.1%, 곡물 및 유지작물제조업이 12.7%, 기타음식료품제조업이 10.8%,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음료품 출하액은 888억 달러로 음식료품제조업의 1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이 6.3%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맥주제조업 2.8%, 와인제조업 1.8%, 증류주 제조업 1.0%순으로 나타났다.

&lt;표 2-5&gt;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

	2000		2004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4,742	100.0	5,553	100.0	7,387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4,110	86.7	4,804	86.5	6,499	87.9
곡물 및 유지작물	448	9.5	589	10.6	940	12.7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257	5.4	267	4.8	266	3.6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503	10.6	533	9.6	633	8.5
낙농제품 제조업	608	12.8	734	13.2	975	13.1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1,194	25.2	1,418	25.5	1,699	22.9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85	1.8	92	1.6	100	1.3
빵류 제조업	480	10.1	516	9.3	587	7.9
기타 식품 제조업	535	11.3	646	11.6	800	10.8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632	13.3	748	13.5	888	12.0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350	7.4	401	7.2	472	6.3
맥주 제조업	165	3.5	203	3.7	207	2.8
와인 제조업	75	1.6	96	1.7	133	1.8
증류주 제조업	42	0.9	47	0.8	74	1.0

자료 :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0년도와 비교할 경우 식료품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이 감소한데 반해 곡물 및 유지작물제조업과 낙농제품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음료제조업의 비중보다 식료품제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2,465억 달러로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이 508 억달러로 17.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음식료품제조업이 14.9%, 빵류제조업이 11.7%, 곡물 및 유지작물제조업이 9.9%,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9.6%를 기록하고 있다.

<표 2-6>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현황

(단위 : 억 달러 %)

	2000		2004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2,071	100.0	2,524	100.0	2,913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1,771	85.5	2,123	84.1	2,465	84.6
곡물 및 유지작물	178	8.6	218	8.6	288	9.9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137	6.6	142	5.6	130	4.5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259	12.5	277	11.0	279	9.6
낙농제품 제조업	201	9.7	246	9.7	269	9.2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356	17.2	478	18.9	508	17.4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30	1.4	36	1.4	40	1.4
빵류 제조업	310	15.0	341	13.5	341	11.7
기타 식품 제조업	300	14.5	375	14.9	433	14.9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300	14.5	401	15.9	447	15.3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138	6.7	180	7.1	195	6.7
맥주 제조업	99	4.8	133	5.3	119	4.1
와인 제조업	39	1.9	58	2.3	80	2.7
증류주 제조업	24	1.1	29	1.1	52	1.8

자료 :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8년도 음료품제조업 부가가치는 447억 달러로 1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이 6.7%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맥주 제조업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00년 43.1%에서 '08년에는 37.9%로 감소하였지만, 음료품은 '00년 47.5%에서 '08년 0.45%로 증가하였다.

<표 2-7>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

	2000	2002	2004	2006	2008
음식료품제조업	46.9	48.3	47.4	45.6	39.4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43.7	45.5	45.5	44.7	37.9
곡물 및 유지작물	43.1	44.8	44.2	43.5	30.7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39.6	37.4	37.1	35.1	49.0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53.3	53.1	53.3	55.8	44.2
낙농제품 제조업	51.4	55.2	52.1	49.4	27.7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33.0	33.7	33.5	32.1	29.9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29.8	33.1	33.7	35.3	40.5
빵류 제조업	35.1	37.1	39.4	39.9	58.1
기타 식품 제조업	64.7	65.4	66.4	63.4	54.1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56.1	59.3	58.2	55.5	50.4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47.5	49.9	53.6	52.0	41.3
맥주 제조업	39.4	40.6	45.1	42.4	57.7
와인 제조업	60.1	61.4	65.7	63.8	60.4
증류주 제조업	52.8	55.2	60.0	60.6	70.2

자료 :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8년도 기준 식료품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빵류 제조업으로 58.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커피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음식료품제조업 54.1%,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49.0%,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44.2%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낙농제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27.7%에 불과하여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음료품의 경우 증류주 제조업이 70.2%, 와인 제조업이 60.4%, 맥주 제조업이 57.7%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은 41.3%를 나타냈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제외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감소하였으나 음료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29,810개이고 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25,760개로 사업체수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빵류제조업이 10,427개로 35.0%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체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으로서 12.6%를 차지하고 으며 '0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음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는 4,050개로 비중은 13.6%를 차지하고 있고 '00년에 비해 사업체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와인제조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3.1%에서 7.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는 1,605,667명이며 그 중에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수는 1,467,458명으로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제조업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 종사자수 비중이 3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빵류제조업 17.9%, 기타음식료품제조업 10.5%,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 등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과 낙농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축산부문의 종사자수 비중이 약 40%로 고용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lt;표 2-8&gt;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2000		2004		2008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27,439	100.0	28,208	100.0	29,810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24,691	90.0	24,986	88.6	25,760	86.4
곡물 및 유지작물	913	3.3	818	2.9	798	2.7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1,689	6.2	1,842	6.5	1,816	6.1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796	6.5	1,777	6.3	1,629	5.5
낙농제품 제조업	1,769	6.4	1,620	5.7	1,583	5.3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4,032	14.7	3,985	14.1	3,757	12.6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854	3.1	734	2.6	663	2.2
빵류 제조업	10,644	38.8	11,051	39.2	10,427	35.0
기타 식품 제조업	2,994	10.9	3,159	11.2	3,290	11.0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2,748	10.0	3,222	11.4	4,050	13.6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1,289	4.7	1,323	4.7	1,259	4.2
맥주 제조업	538	2.0	387	1.4	424	1.4
와인 제조업	856	3.1	1,432	5.1	2,249	7.5
증류주 제조업	65	0.2	80	0.3	118	0.4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음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38,206명으로 음식료품제조업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4.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고용측면에서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lt;표 2-9&gt;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2000		2004		2008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1,557,390	100.0	1,565,428	100.0	1,605,667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1,417,453	91.0	1,433,233	91.6	1,467,458	91.4
곡물 및 유지작물	59,853	3.8	53,206	3.4	58,431	3.6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84,106	5.4	79,137	5.1	68,912	4.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66,650	10.7	164,091	10.5	165,116	10.3
낙농제품 제조업	132,017	8.5	134,627	8.6	134,221	8.4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491,111	31.5	501,577	32.0	501,386	31.2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41,770	2.7	38,102	2.4	33,323	2.1
빵류 제조업	293,331	18.8	302,965	19.4	286,970	17.9
기타 식품 제조업	148,615	9.5	159,528	10.2	168,142	10.5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139,937	9.0	132,195	8.4	138,209	8.6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69,874	4.5	74,094	4.7	71,497	4.5
맥주 제조업	5,396	0.3	26,476	1.7	26,009	1.6
와인 제조업	5,032	0.3	26,094	1.7	34,020	2.1
증류주 제조업	32,122	2.1	5,531	0.4	6,683	0.4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 제 2 절 외식산업

### 2.1 산업동향

미국의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08년 4,581억 달러로 '00년 이후 연평균 5.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00년 482,560개소에서 '08년 573,520개로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수의 경우도 '00년 이후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나타내 '08년에는 약 1000만명에 달하였다.

<표 2-10> 미국의 외식산업 성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개 명 %)

	2000	2003	2005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매출액	305,461	349,693	393,314	433,401	458,161	5.2
사업체수	482,560	514,085	540,933	568,586	573,520	2.2
종사자수	8,113,141	8,635,903	9,171,410	9,657,310	9,950,103	2.6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Retail Trade Survey」, 「2007 Economic Census」

미국의 경우도 외식업계를 둘러싼 금융위기, 최저 가치분소득 증가율, 실업률 증가 등의 환경변화가 외식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은 미국 노동시장의 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의 주요 취업집단중의 하나로서 일자리 제공에 커다란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식업계의 향후 트렌드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건강식, 소량, 유기식품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 메뉴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녹색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2 산업구조

미국의 외식산업 업태별 사업체수 비중을 서비스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완전서비스음식점 비중이 '03년 39.0%에서 '08년 38.6%로 조금 감소하였으며 제한서비스음식점의 비중은 '03년 45.6%에서 '08년 46.9%로 증가하였다.

<표 2-11> 미국의 외식산업 업태별 사업체수 비중

(단위 : 개 %)

구 분	2003		2005		2008	
음식점 및 주점업	514,085	100.0	540,933	100.0	573,520	100.0
완전서비스 음식점	200,371	39.0	210,223	38.9	221,202	38.6
제한서비스 음식점	234,374	45.6	250,305	46.3	269,152	46.9
제한서비스 음식점	190,674	37.1	200,829	37.1	210,730	36.7
카페테리아, 뷔페	6,377	1.2	6,567	1.2	7,208	1.3
스낵 및 음료 전문점	37,323	7.3	42,909	7.9	51,214	8.9
기타음식점	31,290	6.1	33,214	6.1	38,092	6.6
위탁급식업	19,881	3.9	20,775	3.8	25,552	4.5
출장음식업	9,007	1.8	10,111	1.9	10,556	1.8
이동음식업	2,402	0.5	2,328	0.4	1,984	0.3
주점업	48,050	9.3	47,191	8.7	45,074	7.9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제한서비스음식점 중에서는 스낵 및 음료전문점의 비중이 '03년 7.3%에서 '08년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음식점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이 '03년 3.9%에서 '08년 4.5%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점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03년 9.3%에서 '07년 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종사자수 비중을 서비스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수의 47.3%가 완전서비스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서비스음식점에는 41.6%, 기타음식점에는 6.6%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2-12&gt; 미국의 외식산업 업태별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3		2005		2008	
	명	%	명	%	명	%
음식점 및 주점업	8,635,903	100.0	9,171,410	100.0	9,950,103	100.0
완전서비스 음식점	4,091,133	47.4	4,340,155	47.3	4,707,921	47.3
제한서비스 음식점	3,640,644	42.2	3,927,204	42.8	4,136,741	41.6
제한서비스 음식점	3,168,503	36.7	3,392,145	37.0	3,516,944	35.3
카페테리아, 뷔페	128,755	1.5	122,486	1.3	154,837	1.6
스낵 및 음료 전문점	343,386	4.0	412,573	4.5	553,269	5.6
기타음식점	552,810	6.4	552,139	6.0	660,719	6.6
위탁급식업	428,324	5.0	420,734	4.6	518,509	5.2
출장음식업	114,713	1.3	121,951	1.3	135,031	1.4
이동음식업	9,773	0.1	9,454	0.1	7,179	0.1
주점업	351,316	4.1	351,912	3.8	356,413	3.6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제한서비스음식점에서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제한서비스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낵 및 음료전문점, 카페테리아 및 뷔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음식점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 음식점의 5.2%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출장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03년 이후 업태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외식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종사자수 4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중은 '00년 33.1%에서 '08년에는 31.2%로 영세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인 규모의 사업체수와 10-19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수의 비중은 '00년 17.2%에서 '08년 118.1%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3> 미국의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규모별	2000		2003		2006		2008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0-4인	33.1	3.2	32.7	3.1	31.9	5.1	31.2	2.8
5-9인	14.7	5.8	15.1	6.0	15.0	5.0	14.9	5.3
10-19인	12.9	10.2	12.8	10.3	13.6	9.1	13.8	9.9
20인 미만	60.7	19.3	60.6	19.4	60.5	19.2	59.9	17.9
20-99인	15.9	30.6	15.6	30.4	15.6	28.8	15.8	26.9
100-499인	6.1	14.5	6.4	15.0	6.1	13.7	6.1	14.0
500인 미만	82.8	64.4	82.6	64.8	82.3	61.7	81.9	58.7
500인 이상	17.2	35.6	17.4	35.2	17.7	38.3	18.1	41.3

자료 : 상무성, 「Statistics of U.S. Businesses」

### 제 3 절 식품유통업

#### 3.1 산업동향

미국의 음식료품도매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8년 기준 33,002개소로 '02년에 비해 연평균 2.5% 감소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도매업에 종사하는 인력현황을 보면 '08년도 기준 795,690명으로 나타났으며 '02년에 비하면 연평균 1.3% 감소하였고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14.7%에서 '08년에는 1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도매업 판매액은 '08년도의 경우 약 6,904억 달러이며 '02년도와 비교하여 연평균 5.1% 증가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미국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달러 %)

	2002		2005		2008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사업체수	38,550	8.8	33,867	7.9	33,002	7.7
종사자수	861,427	14.7	764,404	12.8	795,690	12.9
판매액	511,438	11.0	574,098	11.1	690,414	11.2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Wholesale Trade」, 「Economic Census」

음식료품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08년 143,675개소로 '02년도에 비하여 연평균 1.3% 감소하였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13.9%에서 '08년 1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08년 2,861,854명으로 '02년에 비해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고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20.2%에서 '08년 18.3%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소매업 매출액은 '08년에 약 5,736억 달러로 '02년에 비해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14.9%에서 '08년 14.5%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2-15> 미국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달러 %)

	2002		2004		2008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	155,677	13.9	152,521	13.6	143,675	13.0
종사자수	3,004,410	20.2	2,957,236	19.3	2,861,854	18.3
판매액	445,666	14.9	494,966	14.2	573,619	14.5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Wholesale Trade」, 「Economic Census」

### 3.2 산업구조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은 크게 식료품 소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및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으로 구분되는데 '08년도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음식료품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가 62.0%인 89,054개소로 가장 많고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이 21.4%인 30,714개소, 가공식품 소매업이 16.6%인 23,907개소로 나타났는데 '02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 소매업과 가공식품 소매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업종별로 보면 2008년도의 경우 슈퍼마켓 및 기타식품 소매업이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 21.4%, 편의점이 17.9%,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이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02년과 비교할 때 슈퍼마켓 및 기타식품 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6>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2002		2004		2008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155,677	100.0	152,521	100.0	143,675	100.0
식료품 소매업	97,166	62.4	96,130	63.0	89,054	62.0
슈퍼마켓 및 기타식품 소매업	62,934	40.4	67,219	44.1	63,384	44.1
편의점	34,232	22.0	28,911	19.0	25,670	17.9
가공식품 소매업	29,345	18.8	27,032	17.7	23,907	16.6
육류 소매업	6,467	4.2	5,989	3.9	5,861	4.1
수산식품소매업	2,238	1.4	2,151	1.4	2,044	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3,569	2.3	3,210	2.1	2,917	2.0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17,071	11.0	15,682	10.3	13,085	9.1
맥주, 와인 및 주류 소매업	29,166	18.7	29,359	19.2	30,714	21.4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2008년도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2,861,854명으로서 이를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89.8%, 가공식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5.1%,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5.1%로 식료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2년과 비교할 때 가공식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줄어들었다.

이를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슈퍼마켓 및 기타식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점,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종사자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편의점 종사자수가 연평균 6.5%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표 2-17>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2002		2004		2008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2,883,997	100.0	2,957,236	100.0	2,861,854	100.0
식품 소매업	2,569,351	89.1	2,660,804	90.0	2,570,754	89.8
슈퍼마켓 및 기타식품 소매업	2,387,828	82.8	2,511,498	84.9	2,450,033	85.6
편의점	181,523	6.3	149,306	5.0	120,721	4.2
가공식품 소매업	176,845	6.1	154,138	5.2	145,236	5.1
육류 소매업	41,765	1.4	39,747	1.3	42,361	1.5
수산식품소매업	9,771	0.3	10,714	0.4	9,732	0.3
과실 및 채소 소매업	21,580	0.7	20,211	0.7	19,653	0.7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103,729	3.6	83,466	2.8	73,490	2.6
맥주, 와인 및 주류 소매업	137,801	4.8	142,294	4.8	145,864	5.1

자료 :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08년도 매출액은 약 5,736억 달러이며 그 중에서 식품 소매업이 약 5,139억 달러로 89.6%,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이 약 401억 달러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02년도에 비해 식품 소매업의 매출액 비중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18&gt;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 천 달러 %)

	2002		2007		2008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456,942,288	100.0	539,523,919	100.0	573,619,000	100.0
식료품 소매업	415,613,872	91.0	486,975,874	90.3	513,847,000	89.6
슈퍼마켓 및 기타식료품 소매업	395,233,897	86.5	466,364,689	86.4	489,217,000	85.3
편의점	20,379,975	4.5	20,611,185	3.8	-	-
가공식품 소매업	13,081,990	2.9	16,376,764	3.0	-	-
육류 소매업	4,423,938	1.0	5,627,331	1.0	-	-
수산식품소매업	1,501,257	0.3	1,846,990	0.3	-	-
과실 및 채소 소매업	2,770,917	0.6	3,413,486	0.6	-	-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385,878	1.0	5,488,957	1.0	-	-
맥주, 와인 및 주류 소매업	28,246,426	6.2	36,171,281	6.7	40,085,000	7.0

자료 : 상무성, 「Annual Wholesale Trade」, 「2007 Economic Census」

## 제 4 절 식품수출입

### 4.1 수출입 동향

2009년도 미국의 가공식품 수출은 48,327백만 달러, 수입은 66,832백만 달러로 수입초과가 18,50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입은 '00년 39,132백만 달러에서 '09년에는 66,832백만 달러로 연평균 6.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의 수출은 '00년 26,245백만 달러에서 '09년 48,327백만 달러로 연평균 7.0%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6년 26,972백만 달러로 최대 적자를 보인 후 감소하여 '09년에는 18,50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이 무역수지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의 증가세보다는 수출의 증가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미국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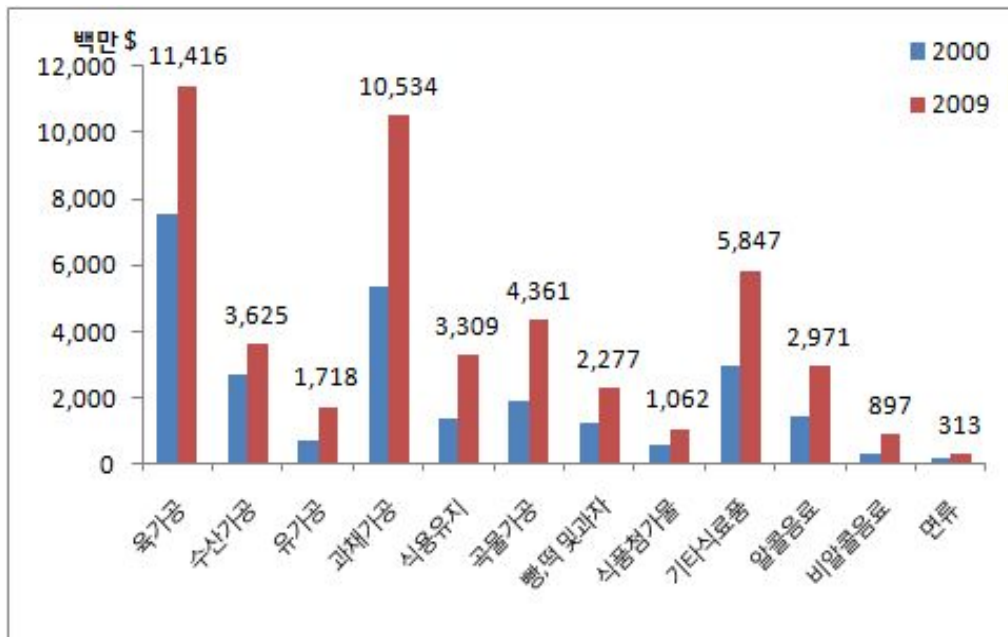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4.2 수출입 구조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44,462백만 달러, 음료품이 3,868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92.0%이다.

식료품 중에서는 육가공품이 11,416백만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채가공품이 10,534백만 달러로 21.8%, 기타식료품이 5,847백만 달러로 12.1%, 곡물가공품이 4,361백만 달러로 9.0%, 수산가공품이 3,625백만 달러로 7.5%, 식용유지가 3,309백만 달러로 6.8%, 빵·떡·과자가 2,277백만 달러로 4.7%, 유가공이 1,718백만 달러로 3.6%, 식품첨가물이 1,062백만 달러로 2.2%, 면류가 313백만 달러로 0.6%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미국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2,971백만 달러로 전체 음료식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이고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0%이며 비알콜음료는 897백만 달러로 전체 음료식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음료식품제조업 수출구조를 보면 2000~2009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유가공과 식용유지로서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곡물가공품이 9.8%, 면류가 8.4%, 과채가공품이 7.9%, 식품첨가물이 7.8%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미국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기타 조제식료품이 약 30억 달러로 수출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1위 품목이었던 가금류가 2위를 기록하였으며 쇠고기(신선, 냉장)가 3위, 6, 7위가 돼지고기(냉동), 돼지고기(신선, 냉장), 11위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등으로 육가공품의 수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미와 아몬드가 약 14억 달러로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되었다.

2009년도 음료식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52,960백만 달러, 음료품이 13,871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과채가공품이 12,006백만 달러로 전체 음료식품제조업 수입의 18.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수산가공품이 11,950백만 달러로 17.9%, 기타식료품이 8,439백만 달러로 12.6%, 빵·떡·과자가 6,615백만 달러로 9.9%, 육가공품이 4,591백만 달러로 6.9%, 식용유지가 3,769백만 달러로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입은 알코올음료가 12,244백만 달러로 전체 음료식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음료식품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알콜음료는 1,627백만 달러로 전체 음료식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lt;표 2-19&gt; 미국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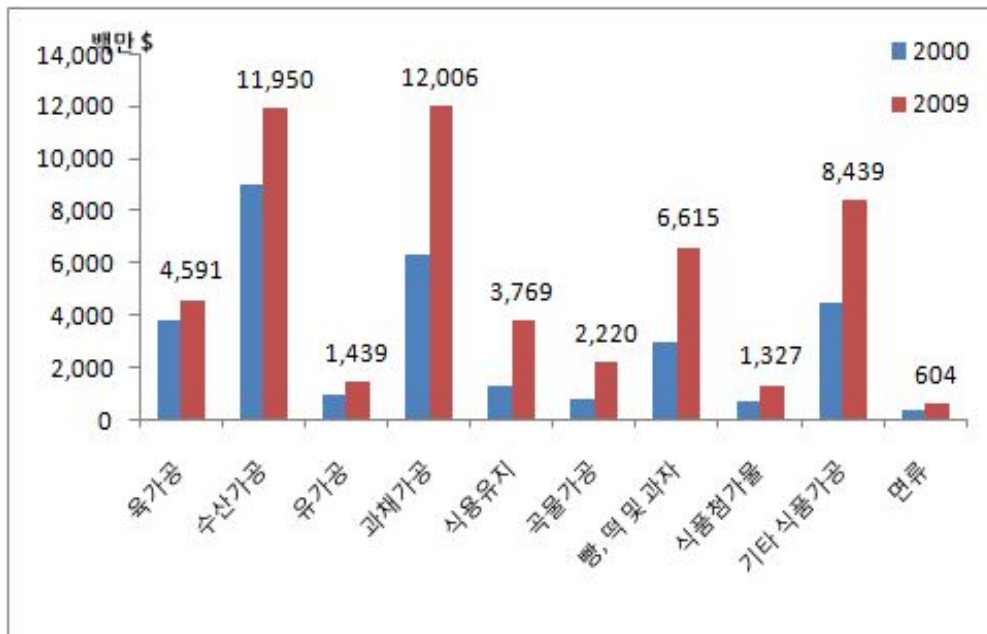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2,978,840
2	020714	가금류(냉동: 절단, 식용설육)	2,972,644
3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1,425,887
4	100630	정미(연마 여부 불문)	1,425,842
5	080212	아몬드(신선,건조;탈각)	1,424,530
6	020329	돼지고기(냉동: 기타)	1,416,014
7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1,166,381
8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 (실링웨이퍼,성찬용 웨이퍼, 제약용 빈캡슐)	926,884
9	150710	대두유 조유	880,414
10	220830	위스키	813,831
11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기타)	719,360
12	20041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감자(냉동: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713,502
13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636,236
14	080250	피스타치오(신선,건조)	604,807
15	210390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586,199
16	040210	밀크와 크림(지방분1.5% 이하)	519,985
17	150200	소·면양 또는 산양 지방(비가공, 정제유)	496,700
18	090121	커피(볶은 것:카페인비제거)	484,338
19	120810	대두 분과 조분	483,361
20	03041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465,311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0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입구조를 보면 2000~2009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입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식용유지로서 연평균 1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곡물가공 부문 11.9%, 빵·떡·과자 부문 9.2%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0.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음료의 경우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1> 미국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현황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 기준 미국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맥주가 약 34억 달러로 수입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약 33억 달러를 수입하는 포도주가 차지하였으며 11위 위스키, 18위 리큐르류 및 코디얼 등 알코올음료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커피(안 볶은 것; 카페인 비제거)가 약 31억 달러로 3위, 새우와 보리새우(냉동)가 약 28억 달러로 4위에 랭크되었다.

종합하면 미국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구조는 가금육, 돼지고기 및 쇠고기 등 축산물과 대두유 조유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육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미국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 천 달러)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220300	맥주	3,353,533
2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3,305,967
3	090111	커피(안볶은것:카페인비제거)	3,076,939
4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2,775,700
5	03042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2,286,894
6	080300	바나나(신선, 건조: 플랜틴 포함)	1,576,838
7	210690	기타 조제식품	1,350,989
8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웨이퍼,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 빈캡슐)	1,316,623
9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기타)	1,289,363
10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1,178,525
11	220830	위스키	1,165,714
12	220210	물(감미, 가향)	1,104,060
13	170490	기타 설탕 과자류(코코아 첨가하지 않은 것)	1,061,870
14	030419	기타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신선,냉장)	1,008,120
15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조제,저장처리한 것)	980,515
16	040690	기타 치즈	922,163
17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916,692
18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832,868
19	170111	사탕수수당(원당: 향미료, 착색제 무첨가)	782,972
20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버니투우(조제,저장처리한 것)	768,626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2008년도 미국가계의 연간소비지출은 50,486달러로 이 중에서 보험이나 연금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전체 지출액의 85.5%인 43,144달러가 소비지출로 사용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주거에 지출하는 비중이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 17.0%, 음식료품비 13.6%, 보험 및 연금 1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t;표 2-21&gt; 미국 전가구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달러 %)

구 분	2000		2003		2005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간지출액	40,238	100.0	42,742	100.0	46,409	100.0	50,486	100.0
식료품	5,435	13.5	5,593	13.1	5,931	12.8	6,443	12.8
주류	423	1.1	442	1.0	426	0.9	444	0.9
주거	12,527	31.1	13,653	31.9	15,167	32.7	17,109	33.9
의류 및 신발	2,004	5.0	1,744	4.1	1,886	4.1	1,801	3.6
교통	7,568	18.8	8,041	18.8	8,344	18.0	8,604	17.0
보건의료	2,120	5.3	2,495	5.8	2,664	5.7	2,976	5.9
오락/문화서비스	1,958	4.9	2,155	5.0	2,388	5.1	2,835	5.6
개인이용서비스	595	1.5	559	1.3	541	1.2	616	1.2
도서/기타인쇄물	156	0.4	133	0.3	126	0.3	116	0.2
교육	636	1.6	792	1.9	940	2.0	1,046	2.1
담배	333	0.8	307	0.7	319	0.7	317	0.6
기타	832	2.1	658	1.5	808	1.7	840	1.7
기부	1,344	3.3	1,458	3.4	1,663	3.6	1,737	3.4
보험 및 연금	4,308	10.7	4,710	11.0	5,204	11.2	5,605	11.1
엔겔계수	14.6		14.1		13.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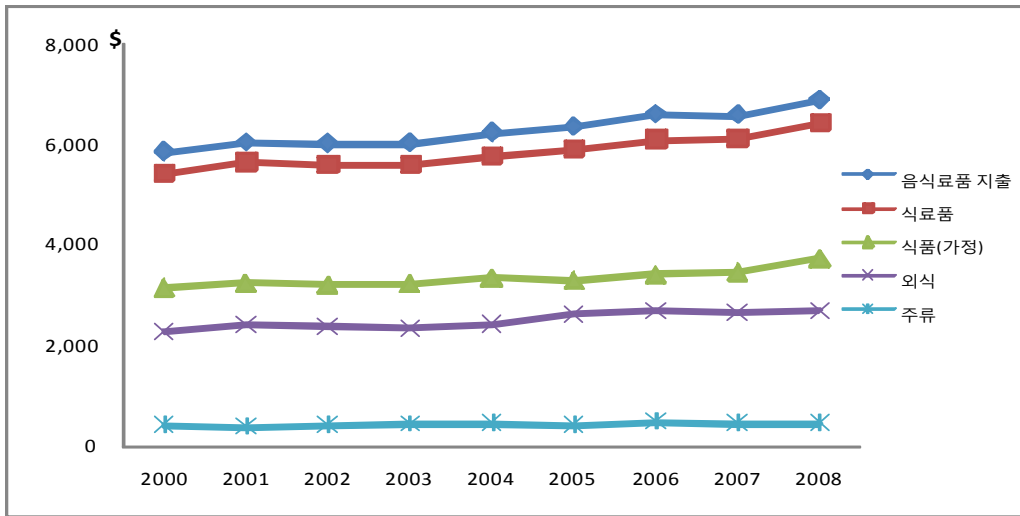
자료 :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00~'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보면 연간지출액은 연평균 2.9%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오락 및 문화서비스 4.7%, 보건의료 4.3%, 주거 4.0% 등의 순으로 지출 증가율이 높으며 음식료품비 지출 증가율은 2.7%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00년 14.6%에서 '08년에는 1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00년 3,154달러에서 '08년에는 3,744달러로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0%에서 54.3%로 감소하고 있다. 외식은 '00년 2,280달러에서 '08년 2,698달러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은 38.9%에서 39.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미국의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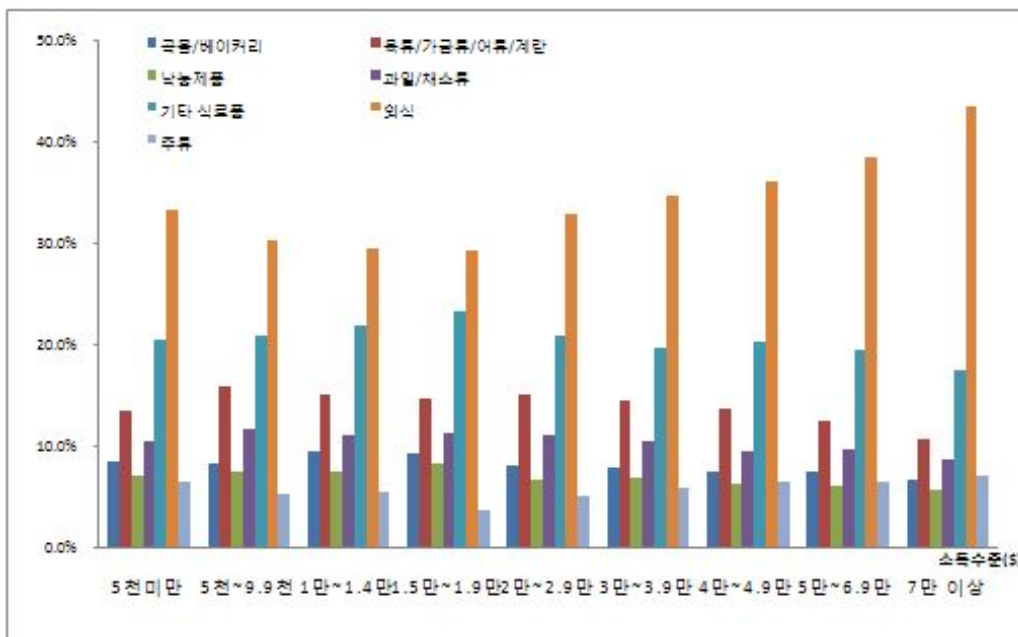
자료 :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2008년도 미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 계층에 걸쳐 외식에 지출하는 비중이 29.3~4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탕, 식용유지 및 음료가 포함된 기타식료품 17.5~23.3%, 육류/가금류/어류/계란 10.7~16.0%, 과일/채소류 8.7~11.6%, 곡물/베이커리 6.8~9.4%의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및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지출비중을 보면 1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는 비중이 증가하고 그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육류/가금류/어류/계란에 대한 지출은 2만 달러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농제품에 대한 지출 비중도 2만 달러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출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과일/채소류에 대한 지출비중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식에 대한 지출 비중은 2만 달러까지 가구는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2만 달러 이상부터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출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7만 달러 이상가구의 경우 음식료품비 지출의 43.6%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미국의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비중(2008)



자료 :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

# 제 3 장

## 일본 식품산업 동향

---



## 제3장 | 일본 식품산업 동향

### 제 1 절 음료제품제조업<sup>3)</sup>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종사자수의 경우 '00년 13.3%에서 '08년에는 13.1%로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소폭 감소했지만 사업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측면에서 식품산업이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출하액의 비중은 '00년 10.3%에서 '08년 8.8%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00년 10.6%에서 '08년 10.1%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연도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0	10.3	10.6	13.3	12.8
2008	8.8	10.1	13.1	13.5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 1.1 출하동향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총 29조 7천억 엔으로 이 중 식료품 생산이 23.5조 엔으로 79.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료품 생산으로 약 6.2조 엔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03년 29조 3천억 엔에서 '08년 29조 7천억 엔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03년 11조 1백억 엔에서 '08년 10조 3천억 엔으로 연평균 0.1%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내지는 감소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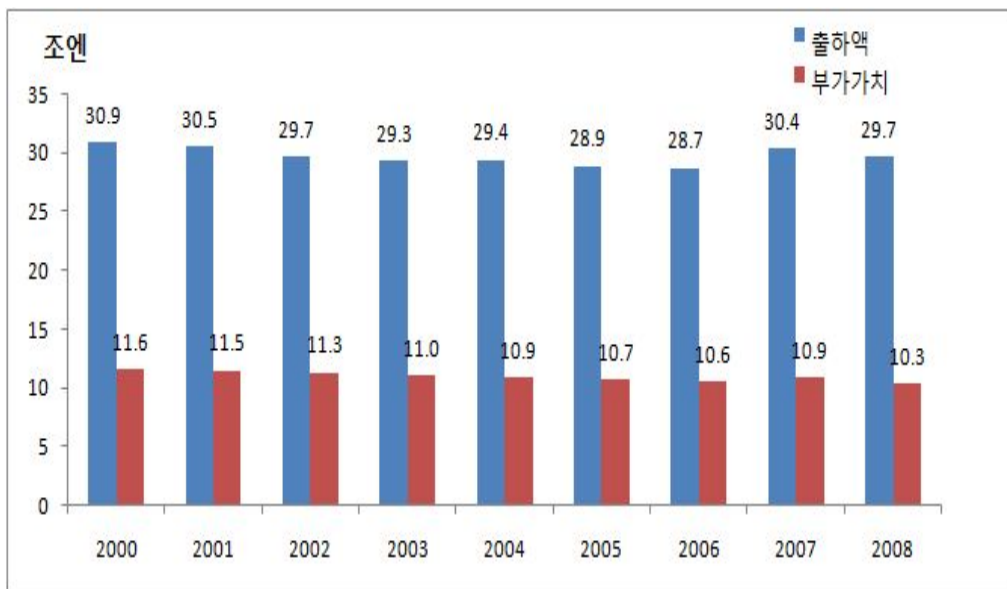
3) 본 분석에서는 사료제조업 미포함



식료품의 출하액은 '03~'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0.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료품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1%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료산업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음료산업이 경기불황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율을 보면 '03년 37.7%에서 '08년에는 34.7%로 조금 감소하였으며 이를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은 '00년 38.2%에서 '08년 34.6%로 3.6% 하락하였으며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3년 35.9%에서 '08년 35.2%로 0.7% 하락하여 식료품의 부가가치율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4>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08년도 일본식품산업에서 제품소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첫째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 특히 제로 타입 제품에 대한 소비가 큰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제로타입 제품에는 칼로리 제로, 탄수화물 제로, 지방 제로 제품 등이

포함된다. '07년도에 코카콜라와 펩시회사는 칼로리 제로의 음료를 출시해서 커다란 매출신장을 기록했는데 '08년도에는 알코올음료 그 중에서도 맥주, 저알코올 칵테일음료에 대한 붐이 일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음료에서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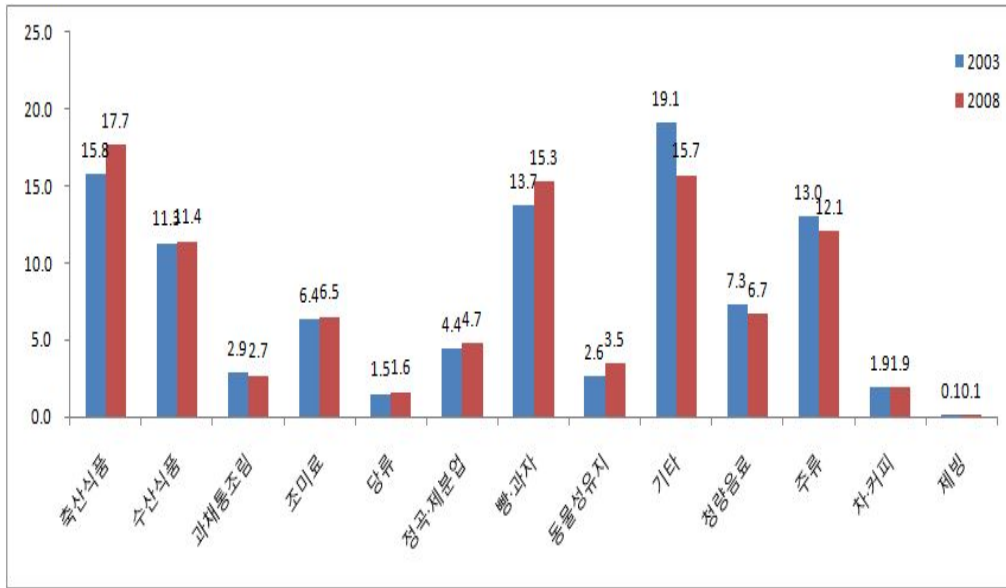
두 번째 경향은 퓨전이다. '08년도 가장 성공적인 퓨전제품으로는 환타에서 출발한 Furufuru Shaker 시리즈로서 젤리 디저트와 탄산음료와의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캔을 열기 전에 내용물의 조직감을 바꾸기 위하여 캔을 흔들어서 먹는 제품이다. 또 다른 퓨전제품은 인스턴트 스프제품으로 색다른 조직감을 위하여 국수대신에 오코게를 함유한 제품이다. 이와 같이 기존 제품에 새로운 것을 첨가한 퓨전제품 출시 경향이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2 산업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축산식품이 5조 3천억 엔으로 1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면류 및 반찬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료품 부문이 4조 7천억 엔으로 15.7%, 떡·빵·과자류가 4조 5천억 엔으로 15.3%, 주류가 3조 5천억 엔으로 12.1%, 수산식품이 3조 4천억 엔으로 11.4%, 청량음료가 2조 엔으로 6.7%, 조미료가 1조 9천억 엔으로 6.5%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과채통조림, 청량음료, 차·커피 및 주류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량음료 및 주류 등 음료 부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5>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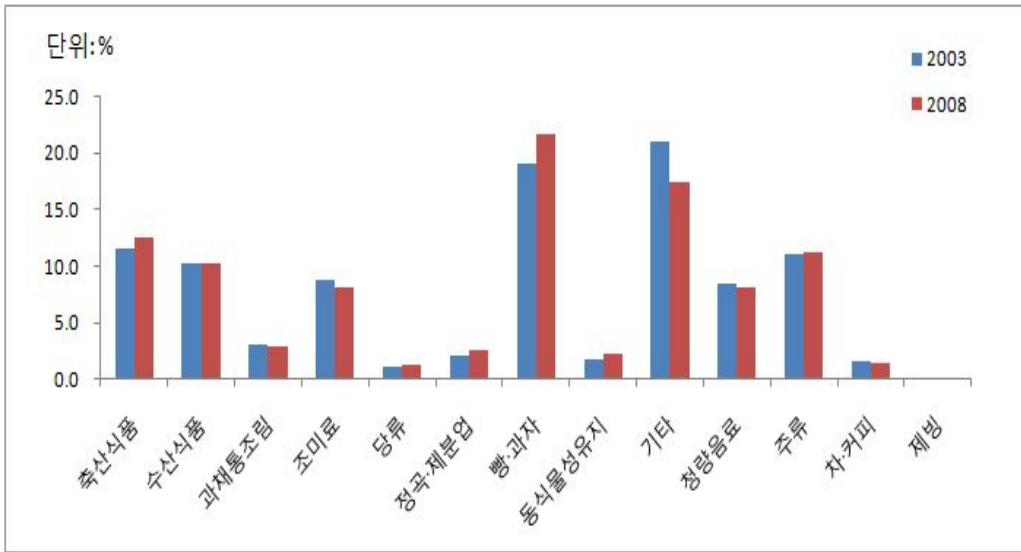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떡·빵·과자류가 2조 2천억 엔으로 21.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면류 및 반찬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료품 부문이 1조 8천억 엔으로 17.4%, 축산식품이 1조 3천억 엔으로 12.5%, 주류가 1조 2천억 엔으로 11.3%, 수산식품이 1조 천억 엔으로 10.3%, 청량음료가 8천 4백억 엔으로 8.2%, 조미료가 8천 3백억 엔으로 8.1%를 차지하여 비중이 높는데 특히 떡·빵·과자류 부문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03년 38.3%에서 '08년에는 34.6%, 음료품은 '03년 36%에서 '08년 35.2%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곡·제분업과 주류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그림 2-16&gt;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한편 '08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제빙업으로서 62.1%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빵·과자제조업 49.2%, 조미료제조업 43%, 청량음료제조업 42.2%로 부가가치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기타식품제조업이 38.4%,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식품제조업도 37.2%로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 30.2%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곡·제분업이 18.3%로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축산식품제조업 24.5%, 당류 제조업 28.0%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4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35,726개소로 이 중 식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88.8%인 31,727개소이고 음료품 업체가 전체의 11.2%인 3,999개소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면류 및 반찬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식품이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빵·과자류제조업 24.7%, 수산가공업이 15.7%, 축산식품제조업 13.2%, 조미료제조업 5.1%,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식품제조업 4.9%, 주류제조업 3.5%, 차·커피제조업 1.7%, 정곡·제분업 1.4% 순으로 비중이 높다.

&lt;표 2-23&gt;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3	2005	2007	2008
제조업	36.7	36.0	35.2	32.3	30.2
음식료품제조업	37.7	37.8	37.1	36.0	34.7
식료품제조업	38.2	38.3	37.6	36.0	34.6
축산식료품제조업	28.4	27.8	26.7	25.6	24.5
수산식료품제조업	32.8	34.3	33.9	32.5	31.2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식료품제조업	41.0	41.2	41.8	39.5	37.2
조미료제조업	49.2	51.8	49.7	44.5	43.0
당류제조업	31.7	28.5	27.8	24.8	28.0
정곡·제분업	17.1	17.2	16.7	17.5	18.3
빵·과자 제조업	52.4	52.4	51.9	49.8	49.2
동식물성유지제조업	33.3	25.7	26.6	25.5	23.0
기타식료품제조업	41.9	41.5	40.8	39.8	38.4
음료제조업	35.9	36.0	35.4	35.7	35.2
정량음료제조업	43.1	43.6	41.7	41.6	42.2
주류제조업	32.7	32.1	32.7	33.0	32.4
차·커피제조업	30.0	32.3	30.2	30.1	26.7
제빙업	62.5	69.0	66.7	67.6	62.1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음식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식료품 부문이 39,395개소에서 35,726개소로 9.3%, 음료품이 4,440개소에서 3,999개소로 10.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43,835개소에서 35,726개소로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곡·제분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0	2008	2000	2008
축산식품	6.4	7.4	11.4	13.2
수산식품	20.7	20.7	16.2	15.7
농산보존식품	5.8	5.9	5.2	4.9
조미료	4.3	4.9	4.5	5.1
당류	0.4	0.4	0.7	0.5
정곡·제분	2.0	2.3	1.3	1.4
빵·과자류	17.2	18.2	20.9	24.7
동식물성유지	0.5	0.6	0.6	0.9
기타식품	32.7	28.5	31.8	25.5
청량음료	1.3	1.6	1.9	2.7
주류	4.6	4.8	3.8	3.5
차·커피	3.7	4.2	1.5	1.7
제빙	0.6	0.5	0.2	0.2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음식료품제조업의 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종업원 4인 이상 9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43.4%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가 음식료품제조업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하고 또 종업원 10~50인 이하의 사업체수는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42.2%, 즉 종업원 규모에서 하위 85%의 음식료품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3.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7.1%에 불과한 종업원 100인 이상인 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음식료품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08년 현재 1,099,674명으로 '03년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식료품 산업이 전체 고용의 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기타식품 부문이 27.8%, 빵·과자류 부문이 26.8%, 수산식품 부문이 17.1% 순으로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식품 부문도 14.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5>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8)

(단위 : %)

구 분	사업체수	출하액	종사자수
4 ~ 9명	43.4	2.8	7.9
10 ~ 19명	22.7	5.4	9.5
20 ~ 29명	12.9	7.5	9.7
30 ~ 49명	6.6	7.9	8.0
50 ~ 99명	7.4	17.5	15.8
100 ~ 199명	4.2	23.3	17.6
200 ~ 299명	1.4	12.9	10.5
300 ~ 499명	1.0	14.6	11.5
500 ~ 999명	0.4	6.6	7.0
1,000명 이상	0.1	1.6	2.5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 제 2 절 외식산업

### 2.1 산업동향

일본의 외식시장 규모는 2007년도 기준 24조 7천억 엔으로 '01년도 이후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소비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수의 경우에도 '01년 794,890개에서 '06년 724,559개로 연평균 1.8% 감소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사자수도 '01년 약 429만명에서 '06년 412만명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외식시장은 감소 내지는 정체상태에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6> 외식산업 성장 추이

(단위 : 조 ¥, 개 명 %)

	2001	2003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01-'07)
매출액	25.9	24.6	24.6	24.7	-0.8
사업체수	794,890	-	724,559	-	-1.8
종사자수	4,292,529	-	4,120,914	-	-0.8

자료 : 외식산업총합연구센터, 「외식산업통계자료집 2009」

### 2.2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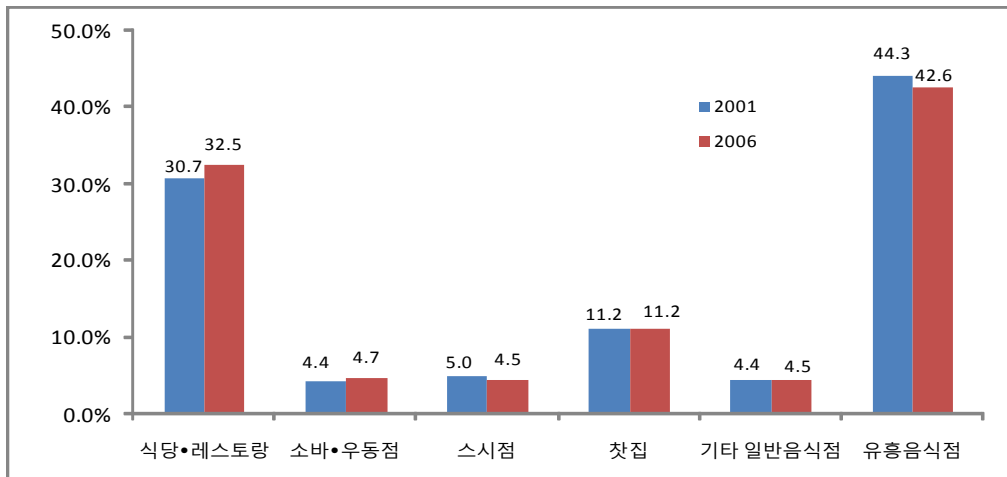
2006년도 기준 외식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유흥음식점이 전체 외식업체의 42.6%인 308,84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당·레스토랑이 32.5%, 찻집이 11.2%, 소바·우동점이 4.7%, 스시점과 기타 일반음식점이 각각 4.5%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도와 비교할 경우 식당·레스토랑과 소바·우동점이 전체 외식업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식당과 서양



요리점을 제외한 일본요리점과 그 밖의 식당·레스토랑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유흥음식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외식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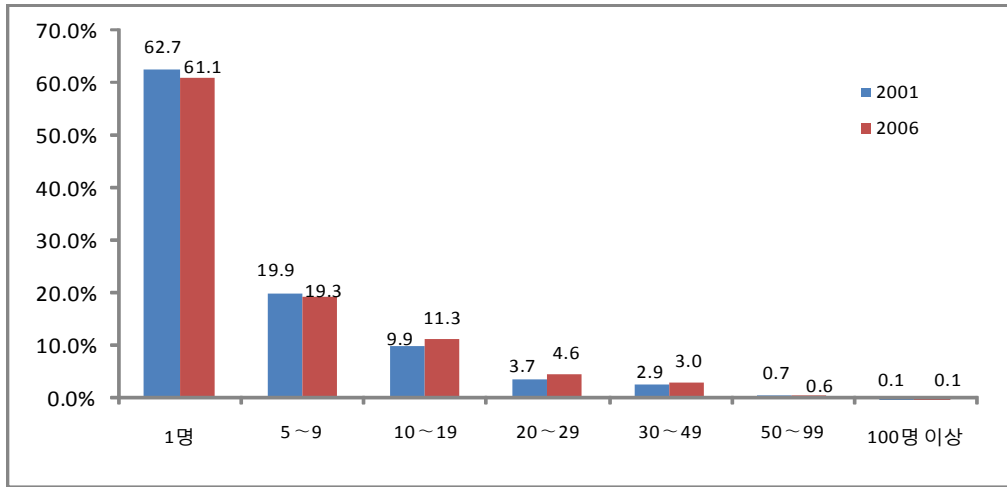
자료 :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종사자수가 1명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6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9인 종사자의 외식업체가 19.3%로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80.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0.1%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도 외식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외식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1년도와 비교할 경우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10~49인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증가하여 외식업체의 규모가 조금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당·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4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흥음식점이 30.3%, 찻집이 7.8%, 기타 일반음식점이 7.1%, 스시점이 5.3%, 소바·우동점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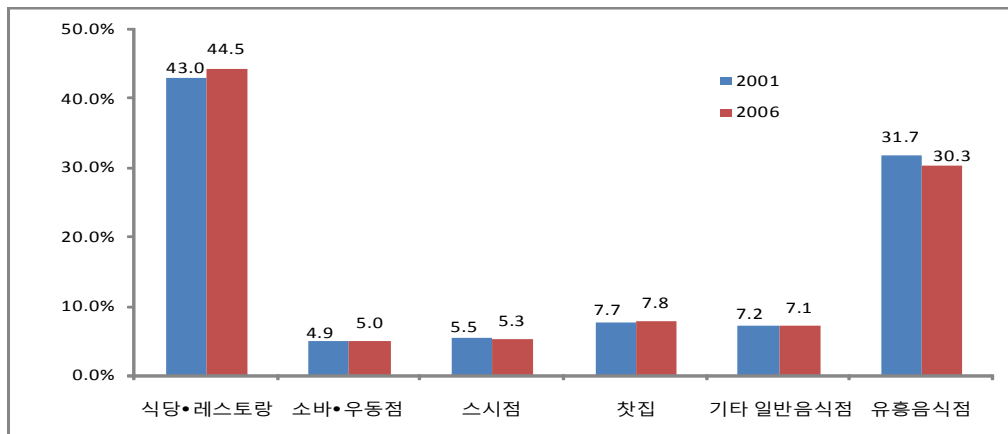
<그림 2-18>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자료 :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2001년도와 비교할 경우 식당·레스토랑, 소바·우동점, 스시점 및 찻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기타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2-19> 외식산업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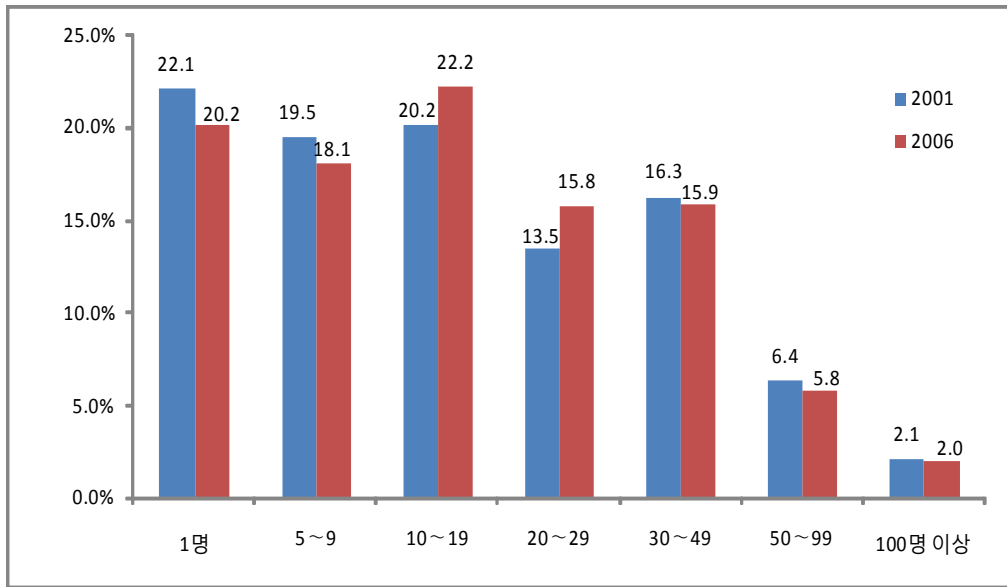
자료 :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2006년도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10~19인 규모의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2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명 규모의

업체 20.2%, 5~9인 규모 18.1%, 30~49인 규모 15.9%, 20~29인 규모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와 비교할 때 10~29인 규모의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9인 이하 규모의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0>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자료 :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 제 3 절 식품유통업

#### 3.1 산업동향

일본의 음식료품도매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7년 기준 76,058개로 '02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9.0% 감소하였으나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에서 22.7%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음식료품도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820,011명으로 '02년도 918,242명에 비해 10.7% 감소하였지만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서 23.3%로 조금 증가하였다.

음식료품도매업의 매출액은 '07년의 경우 7조 5,649억 엔이며 '02년도와 비교하더라도 10.2% 감소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일본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단위 : 개 명 억 ¥ %)

	2002		2004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사업체수	83,595	22.0	84,539	22.5	76,058	22.7
종사자수	918,242	22.9	887,159	23.3	820,011	23.3
매출액	84,274	20.4	86,390	21.3	75,649	18.3

자료 :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산업편)」

음식료품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07년에 389,832개로 '02년도에 비해 16.5% 감소하였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9%에서 3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은 '07년도 3,082,562명으로서 '02년도에 비해 2.5% 감소하였지만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에서 40.7%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4조 813억 엔으로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였다.

<표 2-28> 일본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단위 : 개, 명, 억 ¥ %)

	2002		2004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	466,598	35.9	444,596	35.9	389,832	34.3
종사자수	3,160,832	39.6	3,151,037	40.6	3,082,562	40.7
매출액	41,226	30.5	41,334	31.0	40,813	30.3

자료 :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산업편)」

### 3.2 산업구조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를 보면 '07년의 경우 편의점 및 우유소매점 등을 포함하는 기타음식료품소매업이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과자·빵소매업이 17.0%, 주류소매업이 12.2%, 각종 식료품 소매업이 8.8%, 야채·과실소매업이 6.1%, 생선소매업이 5.1% 등의 순이었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사업체수가 16.5%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류소매업, 미곡류소매업, 생선소매업, 식육소매업이 20%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기타음식료품소매업에 속한 편의점은 '02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구성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4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각종 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가 28.3%, 과자·빵 소매업이 11.1%, 주류소매업이 4.4%, 야채·과실소매업이 2.8%, 생선소매업이 2.2%를 기록하였다.

&lt;표 2-29&gt;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 개 %)

	2002		2004		2007		증감률 (07/02)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466,598	100.0	444,596	100.0	389,832	100.0	-16.5
각종 식료품소매업	36,615	7.8	38,531	8.7	34,486	8.8	-5.8
주류소매업	65,097	14.0	60,191	13.5	47,696	12.2	-26.7
식육소매업	17,215	3.7	14,824	3.3	13,682	3.5	-20.5
생선소매업	25,485	5.5	23,021	5.2	19,713	5.1	-22.6
야채·과실소매업	29,820	6.4	27,709	6.2	23,950	6.1	-19.7
과자·빵소매업	76,914	16.5	77,653	17.5	66,205	17.0	-13.9
미곡류소매업	22,620	4.8	20,956	4.7	16,769	4.3	-25.9
기타	192,832	41.3	181,711	40.9	167,331	42.9	-13.2
편의점	40,843	8.8	42,372	9.5	42,644	10.9	4.4

자료 :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2002년과 비교할 경우 주류소매업, 미곡류소매업, 생선소매업 종사자수가 20%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각종 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는 14.0%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편의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도 5.9%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30&gt;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 명 %)

	2002		2004		2007		증감률 (07/02)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3,160,832	100.0	3,151,037	100.0	3,082,562	100.0	-2.5
각종 식료품소매업	764,841	24.2	855,820	27.2	871,959	28.3	14.0
주류소매업	193,771	6.1	177,264	5.6	137,143	4.4	-29.2
식육소매업	67,269	2.1	58,962	1.9	56,055	1.8	-16.7
생선소매업	87,046	2.8	79,147	2.5	68,774	2.2	-21.0
야채·과실소매업	106,334	3.4	103,774	3.3	87,721	2.8	-17.5
과자·빵소매업	362,259	11.5	367,005	11.6	342,196	11.1	-5.5
미곡류소매업	58,303	1.8	53,216	1.7	41,766	1.4	-28.4
기타	1,521,009	48.1	1,455,849	46.2	1,476,948	47.9	-2.9
편의점	587,567	18.6	600,851	19.1	622,377	20.2	5.9

자료 :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 제 4 절 식품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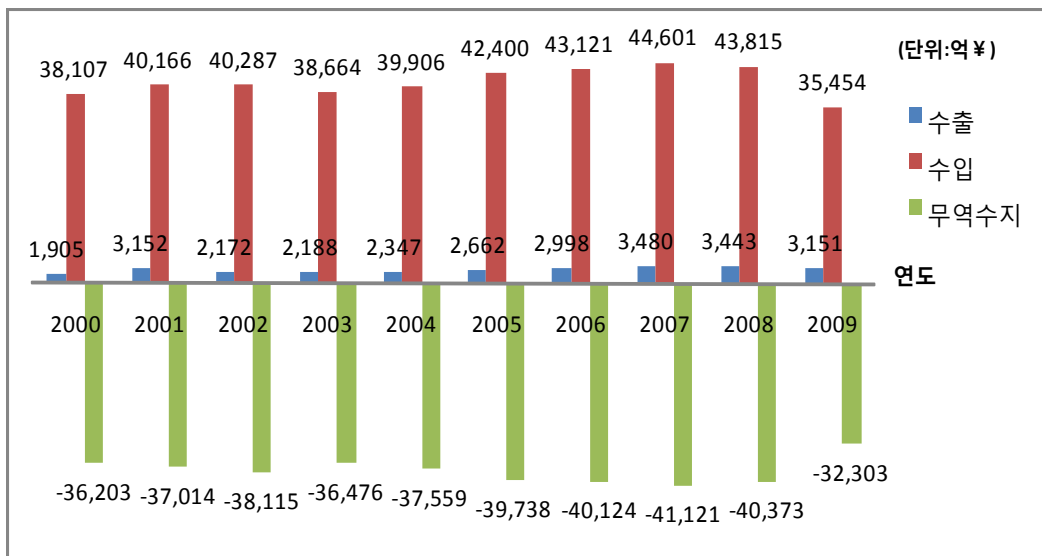
### 4.1 수출입 동향

2009년도 일본의 가공식품의 수출은 3,151억엔, 수입은 3조 5,454억 엔으로 수입초과가 3조 2천303억 엔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은 '00년 1,905억 엔에서 '09년에는 3,151억 엔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00년 3조 8,107억 엔에서 '09년 3조 5,454억 엔으로 연평균 0.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0년 3조 6,203억 엔에서 2009년 3조 2,303억 엔으로 연평균 1.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식품 수출입이 불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1> 일본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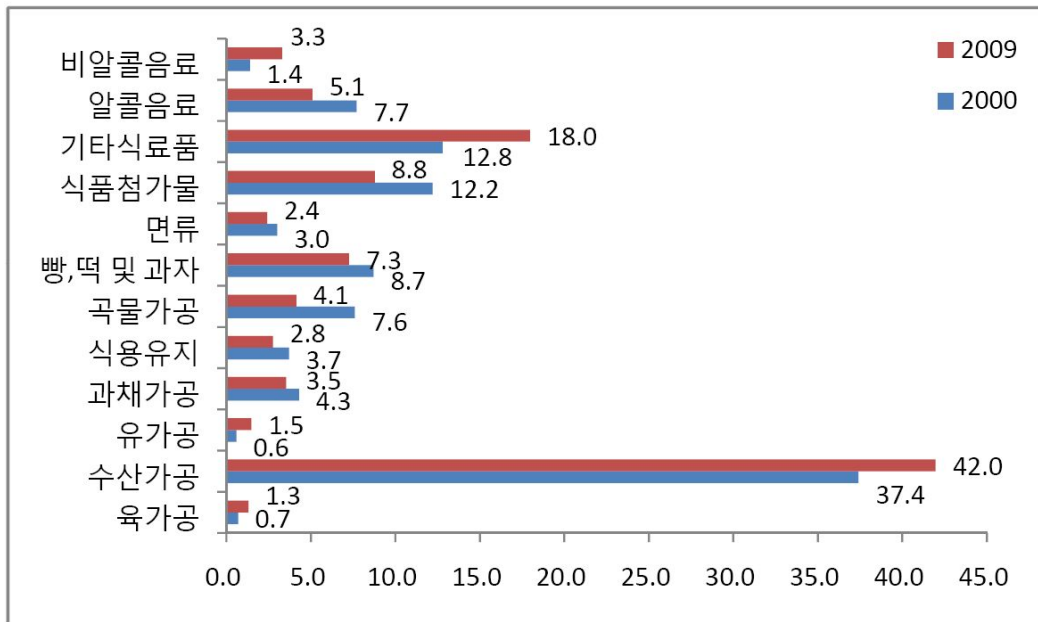
## 4.2 수출입 구조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3,150억 엔, 음료품이 264억 엔으로 식료품이 91.5%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이 1,322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식료품이 566억 엔으로 18.0%, 식품첨가물이 276억 엔으로 8.8%, 빵·떡·과자가 228억 엔으로 7.3%, 곡물가공이 130억 엔으로 4.1%, 과채가공이 111억 엔으로 3.5%, 식용유지가 86억 엔으로 2.8%, 면류가 76억 엔으로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161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이고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이며 비알콜음료는 104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22>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3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출구조를 보면 2003~2009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육가공으로서 연평균 26.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가공이 25.9%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식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수산가공이 6.5%, 빵·떡·과자가 4.8%, 과채가공이 3.2%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5.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일본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고등어, 다랑어 등 냉동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이 9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첨가물인 소스와 간장, 빵·떡·과자류인 케이크 및 비스킷, 알코올음료인 사과술과 배술, 비알콜음료인 과일주스 등이 상위 20개 품목에 속하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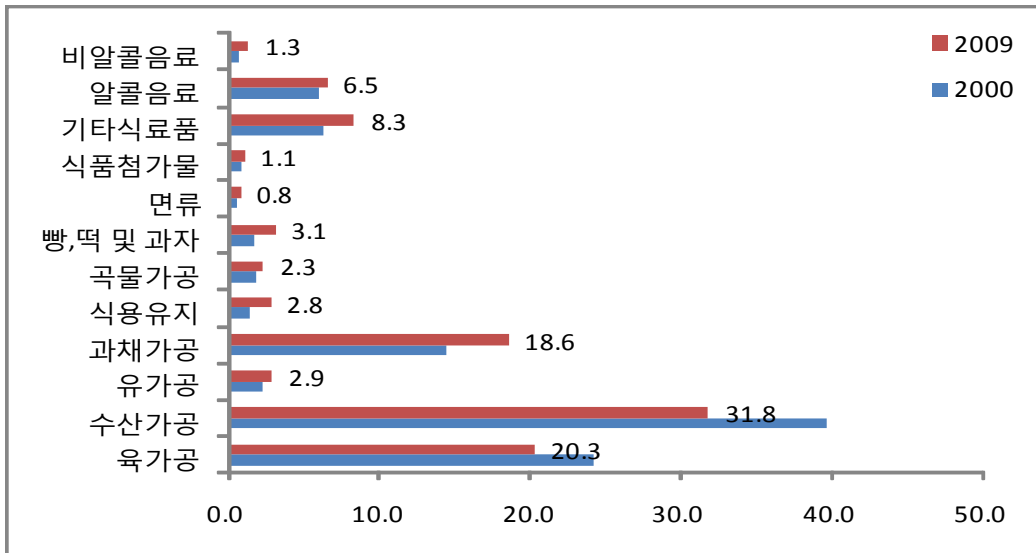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3조 5,453억엔, 음료품이 2,797억 엔으로 식료품이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수입의 3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육가공품이 719억 엔으로 20.3%, 과채가공품이 6,581억 엔으로 18.6%, 기타식료품이 2,952억 엔으로 8.3%, 유가공은 1,027억 엔으로 2.9%, 곡물가공품은 1,098억 엔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의 경우 알코올음료가 2,321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알콜음료는 476억 엔으로 1.3%를 기록하고 있다.

음료품 수입은 알코올음료가 2,321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0%로 높으며 비알콜음료는 476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0%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입구조를 보면 2003~2009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입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식용유지로서 연평균 4.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식료품 부문이 3.2%, 식품첨가물 부문은 2.9%, 과채가공

부문이 2.5%의 연평균 증가세를 보였으며 육가공 부문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4%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6%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알코올음료의 경우 연평균 0.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3>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 기준 일본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냉동)가 약 2,457억엔으로 수입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약 1,619억엔의 수입을 기록한 새우와 보리새우가 차지하였으며 3위 피레트(냉동), 4위 닭고기 및 설육, 5위 돼지고기(신선), 6위 쇠고기(신선, 냉장), 11위 쇠고기(냉동), 12위 가금류(냉동), 19위 눈다랑어 등 육가공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일본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구조는 고등어, 다랑어, 조개 등 수산가공품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수산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돼지고기(냉동, 냉장), 쇠고기(냉장), 새우(보리새우) 및 눈다랑어 등 육가공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31&gt; 일본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천 ¥)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020329	돼지고기(냉동: 기타)	245,716,150
2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61,952,256
3	03042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138,843,335
4	160232	조제,저장처리한 닭고기와 설육	128,997,353
5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121,802,615
6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107,939,989
7	090111	커피(안볶은것:카페인비제거)	100,609,727
8	090411	후추(파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것)	100,609,727
9	080300	바나나(신선,건조: 플랜틴 포함)	92,636,662
10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78,352,731
11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기타)	77,454,835
12	020714	가금류(냉동: 절단, 식용설육)	76,151,390
13	020724	칠면조(신선, 냉장: 비절단)	76,151,390
14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72,214,984
15	030499	기타 어류의 어육(냉동)	62,863,445
16	030379	기타어류(냉동)	56,803,113
17	160419	기타 어류(조제,저장처리한 것)	56,201,643
18	100630	정미(연마 여부 불문)	52,720,329
19	030344	눈다랑어(냉동: 터너스 오베서스)	52,636,694
20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조제,저장처리한 것)	51,523,07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2008년도 일본 전가구의 연평균 월별소비지출은 296,932엔으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교제비, 이·미용비 등 제잡비에 지출하는 기타부문 비중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비 23.2%, 교통·통신비 13.2%, 교양 및 오락비 1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t;표 2-32&gt; 일본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3		2005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비지출	317,328	100.0	301,841	100.0	300,531	100.0	296,932	100.0
식료	73,954	23.3	69,910	23.2	68,699	22.9	69,001	23.2
주거	20,522	6.5	20,027	6.6	19,254	6.4	16,897	5.7
광열·수도	21,628	6.8	20,922	6.9	21,492	7.2	22,762	7.7
가구·가사용품	11,024	3.5	10,329	3.4	10,047	3.3	9,984	3.4
피복 및 신발	16,140	5.1	13,868	4.6	13,339	4.4	12,523	4.2
보건의료	11,354	3.6	12,441	4.1	13,020	4.3	12,649	4.3
교통·통신	36,386	11.5	37,417	12.4	38,717	12.9	39,147	13.2
교육	13,921	4.4	13,009	4.3	12,475	4.2	12,727	4.3
교양·오락	32,036	10.1	29,915	9.9	30,729	10.2	31,372	10.6
기타	80,364	25.3	74,002	24.5	72,759	24.2	69,869	23.5
엔겔계수	23.3		23.2		22.9		23.2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00~'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보면 연간지출액은 연평균 0.8%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 피복 및 신발구입에 지출한 비용이 연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비 지출액이 2.4%, 기타 1.7%, 교육 1.1%, 음식료품비 0.9% 등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와 광열수도비도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00년 23.3%에서 '08년에는 23.2%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가구의 음식료품비 식품류별 지출 추이를 보면 어개류가 '00년 8,659엔에서 '08년 6,891엔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8%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일본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곡류	7,280	6,874	6,927	6,279	6,582	-1.3
어개류	8,659	8,126	7,385	7,163	6,891	-2.8
육류	6,525	6,039	5,967	6,061	6,511	0.0
유제품	3,753	3,619	3,399	3,297	3,244	-1.8
야채·해조류	9,013	8,721	8,642	8,353	8,264	-1.1
과일	3,067	2,947	2,786	2,610	2,624	-1.9
유지류 및 조미료	3,213	3,120	3,104	3,033	3,232	0.1
과자류	4,885	4,862	4,769	4,813	5,027	0.4
조리식품	8,000	8,059	8,013	8,202	7,926	-0.1
음료	3,530	3,525	3,629	3,638	3,615	0.3
주류	3,660	3,434	3,375	3,228	3,367	-1.0
외식	12,370	11,882	11,644	11,434	11,716	-0.7

자료 :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그 다음으로 과일 1.9%, 유제품 1.8%, 곡류 1.3%, 야채·해조류 1.1%, 주류 1.0%, 외식 0.7%씩 감소하였으며 과자류, 음료, 유지류 및 조미료 지출비가 조금 증가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음식료품비 지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일본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월별소비지출은 324,929엔으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교제비, 이·미용비 등 제잡비에 지출하는 기타 부문 비중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비 21.9%, 교통·통신비 14.9%, 교양 및 오락비 1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전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34>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 %)

	2000		2003		2005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비지출	341,896	100.0	326,566	100.0	329,499	100.0	324,929	100.0
식료	75,174	22.0	71,394	21.9	70,947	21.5	71,051	21.9
주거	21,716	6.4	22,222	6.8	21,839	6.6	19,156	5.9
광열·수도	21,282	6.2	20,718	6.3	21,328	6.5	22,666	7.0
가구·가사용품	11,268	3.3	10,427	3.2	10,313	3.1	10,501	3.2
피복 및 신발	17,195	5.0	15,444	4.7	14,971	4.5	14,263	4.4
보건의료	10,901	3.2	11,603	3.6	12,035	3.7	11,593	3.6
교통·통신	43,632	12.8	44,730	13.7	46,986	14.3	48,259	14.9
교육	18,261	5.3	17,857	5.5	18,561	5.6	18,789	5.8
교양·오락	33,796	9.9	32,181	9.9	32,847	10.0	33,390	10.3
기타	88,670	25.9	79,991	24.5	79,671	24.2	75,260	23.2
엔겔계수(%)	22.0		21.9		21.5		21.9	

자료 :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00~’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보면 연간지출액은 연평균 0.6%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 피복 및 신발구입에 지출한 비용이 연평균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부문 지출이 2.0%, 주거비가 1.6%, 가사·가사용품비 0.9%, 음식료품비 0.7% 등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통·통신비는 연평균 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비와 광열·수도비가 0.8%, 교육비가 0.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가구와 비교할 경우 교통·통신비의 지출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00년 22%에서 '08년에는 21.9%로 거의 변동이 없으나 전국 전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 %)

	2000	2002	2004	2006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곡류	7,328	6,976	7,044	6,341	6,683	-1.1
어개류	7,854	7,376	6,575	6,262	5,995	-3.3
육류	6,727	6,437	6,321	6,333	6,832	0.2
유제품	3,846	3,716	3,480	3,332	3,336	-1.8
야채·해조류	8,520	8,263	8,111	7,715	7,745	-1.2
과일	2,702	2,612	2,381	2,183	2,214	-2.5
유지류 및 조미료	3,212	3,126	3,089	2,960	3,207	0.0
과자류	5,246	5,298	5,238	5,210	5,500	0.6
조리식품	8,266	8,347	8,383	8,472	8,208	-0.1
음료	3,706	3,747	3,866	3,746	3,812	0.4
주류	3,625	3,396	3,398	3,161	3,341	-1.0
외식	14,142	14,141	14,049	13,688	14,178	0.0

자료 :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일본 근로자가구의 음식료품비 식품류별 지출 추이를 보면 어개류가 '00년 7,854엔에서 '08년 5,995엔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3%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야채·해조류가 1.2%, 곡류가 1.1% 감소하였으며 외식은 변동이 거의 없으며 육류만이 0.2% 증가하여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가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료품비 지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가계의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육류 및 유제품, 과자류, 조리식품, 음료 및 외식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식비 지출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351만엔 미만 가구에 비하여 862만엔 이상 가구의 외식비 지출이 23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일본 전가구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

	351만엔 미만	351~473만엔	473~627만엔	627~862만엔	862만엔 이상
곡류	5,652	6,064	6,565	7,023	7,607
어개류	6,325	6,552	6,509	6,841	8,227
육류	4,835	5,546	6,389	7,348	8,438
유제품	2,549	2,922	3,223	3,511	4,015
야채·해조류	7,256	7,768	7,887	8,533	9,878
과일	2,468	2,589	2,396	2,527	3,141
유지류 및 조미료	2,767	2,945	3,167	3,398	3,882
과자류	3,690	4,324	5,007	5,598	6,518
조리식품	6,370	6,889	7,873	8,537	9,962
음료	2,761	3,151	3,628	3,985	4,553
주류	2,672	3,028	3,421	3,727	3,989
외식	5,615	8,229	11,412	14,426	18,897

자료 :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

## 제 4 장

# 유럽연합(EU27) 식품산업 동향

---



## 제4장 유럽연합(EU27) 식품산업 동향

### 제 1 절 음료제품제조업<sup>4)</sup>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0년 13.5%에서 '07년에는 13.0%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출하액 비중도 '00년 11.8%에서 '07년에는 11.7%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에서 음료제품제조업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 12.0%에서 '07년 12.8%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부가가치 비중도 '00년 10.0%에서 '07년 10.2%로 증가하는 등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음료제품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7> 유럽연합 음료제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2000	13.5	12.0	11.8	10.0
2007	13.0	12.8	11.7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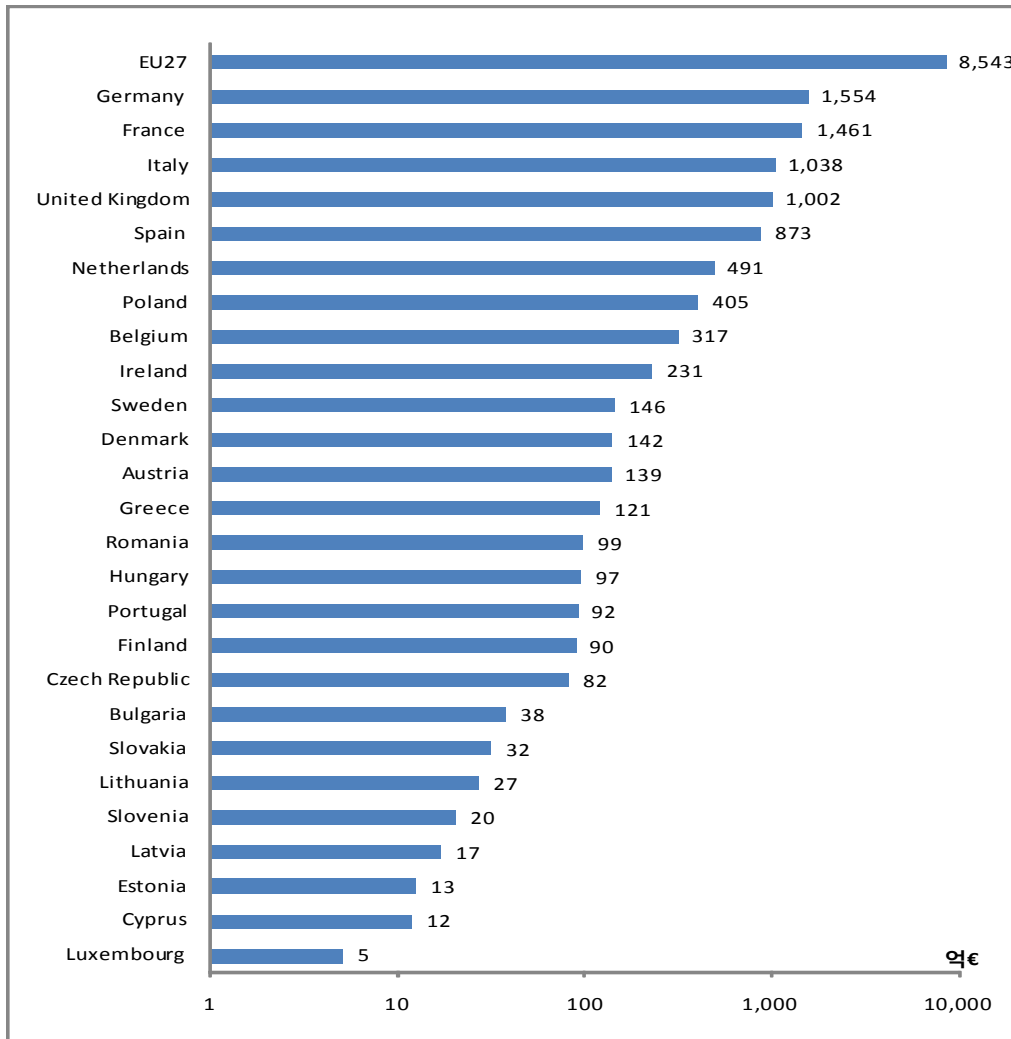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1.1 출하동향

유럽연합국가의 2007년도 음료제품제조업 출하액은 총 8,543억 유로로 이 중 식품 생산이 7,179억 유로로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료 생산으로 약 1,364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체 음료제품제조업의 출하액은 '00년 6,735억 유로에서 '07년 8,543억 유로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00년 1,548억 유로에서 '07년 1,879억 유로로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유럽연합 국가의 음료제품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본 분석에서는 사료 및 담배제조업 미포함

<그림 2-24> 음식료품제조업 국가별 출하액 현황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국가별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을 보면 독일이 1,554억 유로로 유럽연합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의 18.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프랑스로서 17.1%인 1,461억 유로, 이탈리아 1,038억 유로로 12.2%, 영국 1,002억 유로로 11.7%, 스페인 873억 유로로 10.2%를 차지하는 등 이들 5개 국가의 출하액 비중이 69.4%로 유럽연합 국가사이에 편중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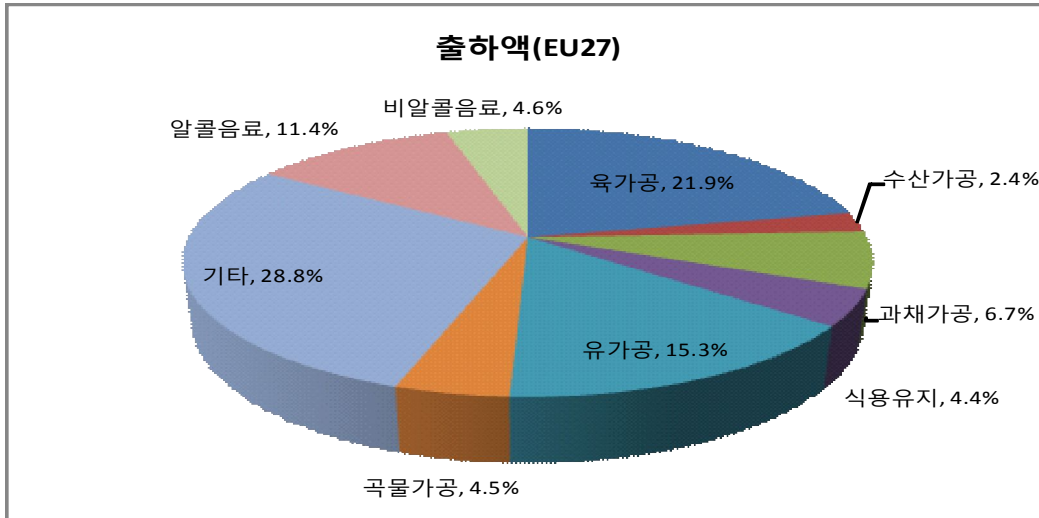
식료품의 출하액은 '0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음료품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산업구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빵류 및 설탕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료품 부문이 2,463억 유로로 2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1,871억 유로로 21.9%, 유가공 부문이 1,304억 유로로 15.3%, 알코올음료가 972억 유로로 11.4%, 과채가공 부문이 약 577억 유로로 6.7%, 비알콜음료와 식용유지가 각각 4.6%, 4.4%, 수산가공 부문이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육가공 및 유가공 부문이 각각 23.4%, 17.9%로 높고, 프랑스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육가공 및 유가공 부문이 각각 24.5%, 18.2%로 여러 산업부문이 합쳐진 기타식료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육가공 및 유가공 부문이 각각 19.6%, 16.0%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음료부문이 2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스키를 위시한 알코올음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육가공 부문도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육가공 부문이 21.9%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료부문이 20.0%를 기록하였다.

<그림 2-25>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비중(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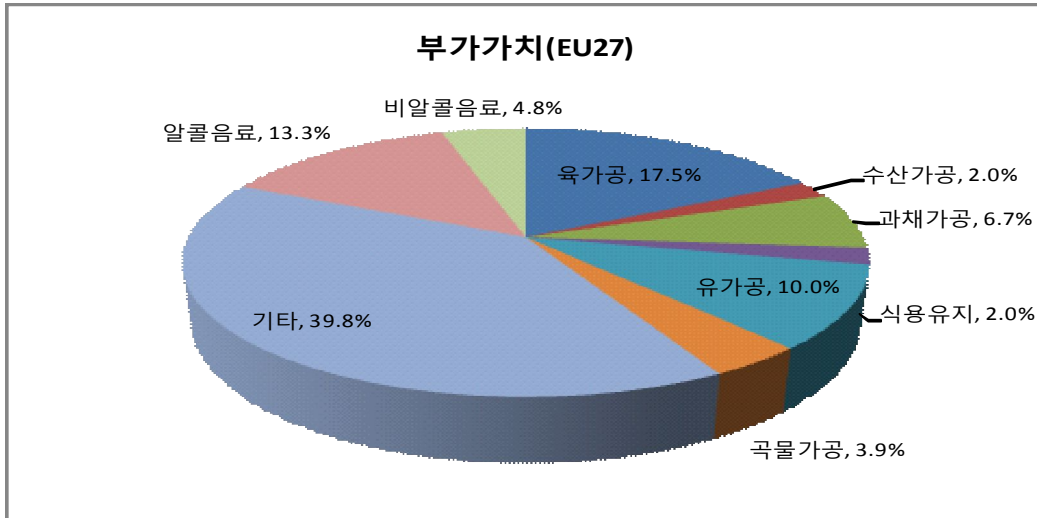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빵류, 면류 등을 포함한 기타 식료품제조업 부문이 747억 유로로 3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328억 유로로 17.5%, 알코올음료 부문이 250억 유로로 13.3%, 유가공 부문이 187억 유로로 10.0%, 과채가공 부문이 126억 유로로 6.7%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빵류, 면류 등을 포함한 기타 식료품제조업 부문이 4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20.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타식료품 부문, 육가공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영국은 기타식료품제조업, 주류를 포함한 음료제조업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은 음료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식료품제조업, 육가공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6>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2007)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율을 보면 '00년 23.0%에서 '07년에는 22.0%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은 '00년 21.9%에서 '07년 21.4%로 조금 하락하였으며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0년 28.5%에서 '07년 24.9%로 음료품의 부가가치율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7년 동안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든 부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도 기준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기타음식료품제조업으로서 30.3%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빵류, 과자류, 면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음료산업으로 24.9%, 과채가공 부문은 21.9%였으며 식용유지가 10.0%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었다.



&lt;표 2-38&gt;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

	2000	2003	2005	2007
음식료품제조업	23.0	23.5	23.1	22.0
식료품제조업	21.9	22.7	22.3	21.4
육류 및 육제품 생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7.7	19.1	17.8	17.5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8.7	19.5	19.3	18.8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2.4	22.1	22.3	21.9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	12.3	11.6	10.0
낙농제품 제조업	14.8	15.2	14.7	14.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9.0	19.5	20.8	18.8
기타 식품 제조업	30.9	32.0	31.7	30.3
음료제조업	28.5	27.4	26.9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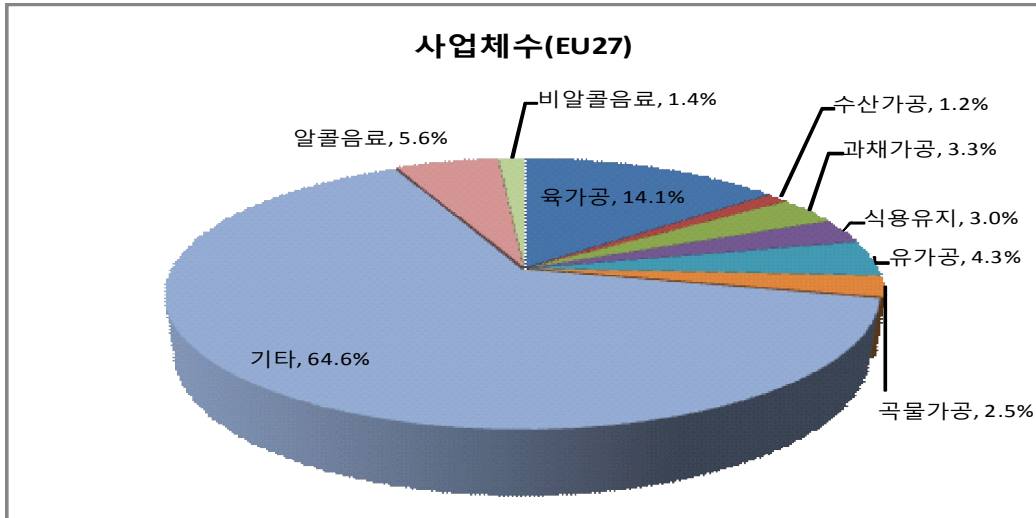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303,109개로 '00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93%인 281,877개소이고 음료품 업체가 전체의 7%인 21,232개소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기타식료품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14.1%, 알코올음료 부문이 5.6%, 유가공 부문이 4.3%, 과채가공 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육가공, 수산가공 및 곡물가공 부문은 각각 20.6%, 11.1%, 15.9%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과채가공 및 식용유지 부문은 각각 16.9%, 18.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07년 기준 빵류, 과자류 및 면류를 포함한 기타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50%를 넘는 국가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17개 국가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문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육가공 부문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그림 2-27&gt; 유럽연합의 음료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비중(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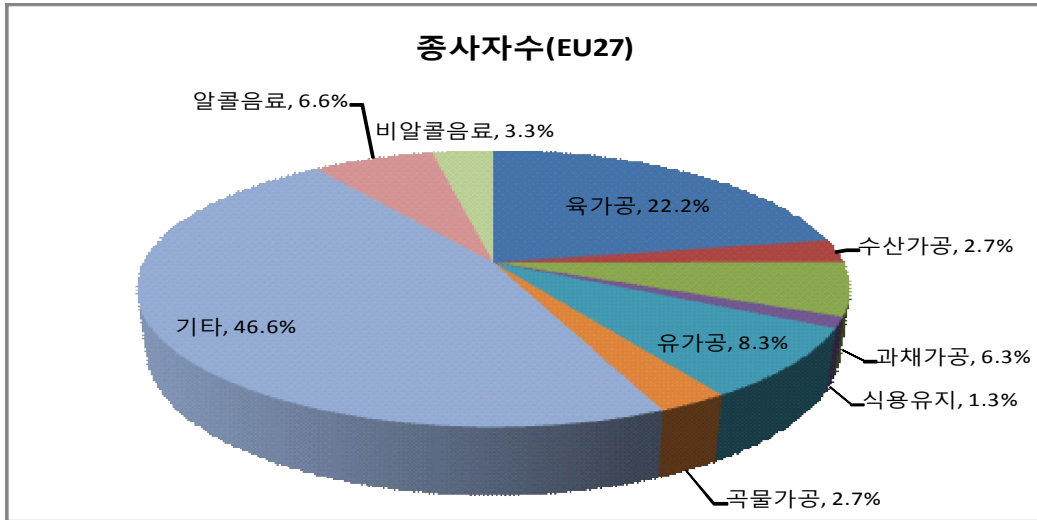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유럽연합의 2007년도 음료제조업 종사자수는 4,452,587명으로 '00년도와 비교할 때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90.1%인 4,009,815명이고 음료품 업체가 전체의 9.9%인 442,772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기타식료품이 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 22.2%, 유가공 부문 8.3%, 알코올음료 부문 6.6%, 과채가공 부문 6.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0년과 비교할 경우 수산가공 및 식용유지 부문은 각각 0.9%, 0.4%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과채가공 및 알코올음료 부문은 각각 21.2%, 11.0%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07년 기준 빵류, 과자류 및 면류를 포함한 기타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50%를 넘는 국가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8개 국가에 불과해 사업체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중이 20% 이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를 포함하여 16개 국가이며 그 중에서 30%를 넘는 국가는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이다. 또한 음료제조업이 10% 이상인 국가도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17개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8>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비중(2007)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음식료품제조업의 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종업원 1인 이상 9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79.2%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가 음식료품제조업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또 종업원 10~19인 이하의 사업체수는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10.7%이고 매출액 비중은 5.5%로 나타났는데 즉 종업원 규모 19인 이하 사업체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업원 50~249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중은 3.6%인데 이들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26.9%, 종업원 250인 이상의 사업체수는 0.9%인데 매출액 비중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1인 이상 9인 이하의 업체 비율이 유럽연합 비율 79%보다 높은 국가는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50인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네델란드, 덴마크, 체코를 포함한 8개 국가로 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t;표 2-39&gt;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6)

(단위 :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9명	79.2	16.5	6.5
10~19명	10.7	9.8	5.5
20~49명	5.6	11.6	9.7
50~249명	3.6	25.2	26.9
250명이상	0.9	37.0	51.3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제 2 절 외식산업

### 2.1 산업동향

유럽연합 국가의 외식시장 규모는 2007년도 기준 3,170억유로로 '00년도 이후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의 경우에도 '00년 1,259천개에서 '07년 1,457천개로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사자수도 '00년 약 5,589천명에서 '07년 7,210천명으로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외식시장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0> 외식산업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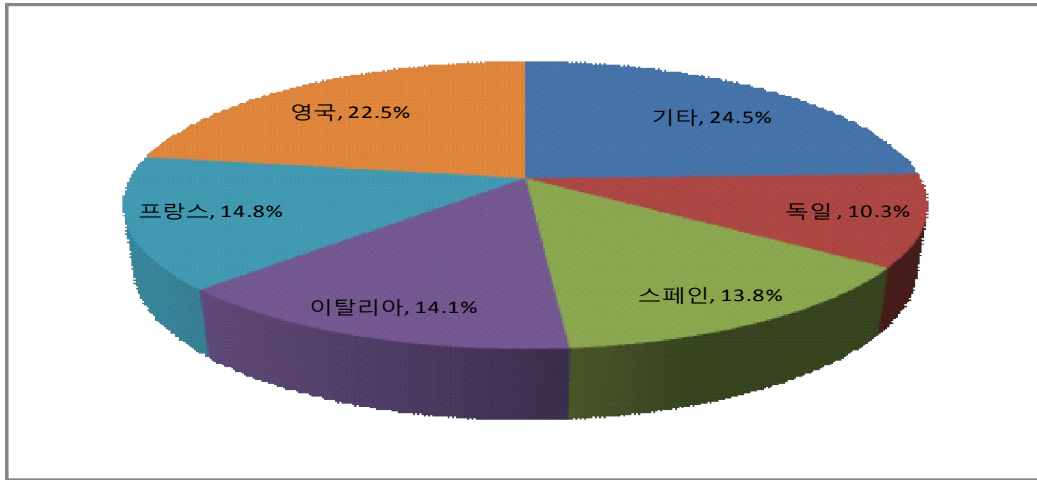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천개 천명 %)

	2000	2003	2005	2007	연평균 증가율 ('00-'07)
매출액	231	254	279	317	4.6
사업체수	1,259	1,264	1,392	1,457	2.1
종사자수	5,589	6,128	6,663	7,210	3.7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유럽연합 국가별 외식시장 규모를 보면 영국이 유럽연합 국가 시장의 22.5%인 약 713억 유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14.8%인 약 469억 유로, 이탈리아가 14.1%인 약 448억 유로, 스페인이 13.8%인 약 436억 유로, 독일이 10.3%인 약 326억 유로로 나타나 이 들 5개 국가의 시장규모가 전체 유럽연합 국가시장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 선·후진국 간에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9>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매출액 비중(2007)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2.2 산업구조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종사자수가 2~9인 이하의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인 종사자의 외식업체 비율이 36%로 높게 나타나는 등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연합 국가도 외식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외식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 국가를 보면 체코 64.6%, 포르투갈 62.2%, 스웨덴 57.8%, 핀란드 53.6%, 프랑스 51.8%, 벨기에 48.2%, 덴마크 47.9%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1인 종사자 업체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2~9인 이하 업체의 비중이 늘어 전체적으로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변동이 없으나 종사자수 10인 이상 외식업체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41&gt;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2003		2005		2007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합계	1,339,526	100.0	1,389,751	100.0	1,454,852	100.0
1명	488,143	36.4	513,595	37.0	524,209	36.0
2~9명	744,362	55.6	773,005	55.6	815,311	56.0
10~19명	67,351	5.0	74,394	5.4	83,492	5.7
20~49명	20,196	1.5	22,674	1.6	24,915	1.7
50~249명	4,388	0.3	4,943	0.4	5,889	0.4
250명 이상	662	0.05	708	0.05	810	0.06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업원수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2~9인 이하의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5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이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19인 이하 업체 종사자수의 비중은 15.4%, 20~49인 이하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7.4%이다.

한편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10인 미만 업체와 250명 이상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10인 이상 249명 이하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2~9인 이하의 외식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 외식업체의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5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로서 매출액 비중은 20.5%이다. 10~19인 이하 업체는 14.4%, 20~49인 이하 업체는 10.3%이고 1인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7.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2-42>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

	2003		2005		2007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합계	6,325,373	100.0	6,654,942	100.0	7,200,797	100.0
1명	496,268	7.8	518,342	7.8	530,501	7.4
2~9명	2,739,768	43.3	2,875,952	43.2	3,073,165	42.7
10~19명	868,883	13.7	979,708	14.7	1,108,014	15.4
20~49명	588,405	9.3	666,688	10.0	728,847	10.1
50~249명	389,435	6.2	441,735	6.6	508,433	7.1
250명 이상	1,110,017	17.5	1,152,812	17.3	1,215,375	16.9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한편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1인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10인 이상 249명 이하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

	2003년		2005년		2007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합계	259,085	100.0	278,348	100.0	316,675	100.0
1명	20,633	8.0	21,825	7.8	22,636	7.1
2~9명	103,415	39.9	110,973	39.9	126,595	40.0
10~19명	33,447	12.9	36,667	13.2	45,473	14.4
20~49명	24,114	9.3	27,913	10.0	32,502	10.3
50~249명	15,916	6.1	20,332	7.3	23,612	7.5
250명 이상	53,757	20.7	60,151	21.6	64,975	20.5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제 3 절 식품유통업

### 3.1 산업동향

유럽연합의 음식료품도매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7년 기준 208,479개소로 '00년과 비교할 때 10.7% 증가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서 1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음식료품도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1,822,491명으로 '00년도 1,509,971명에 비해 20.7% 증가하였지만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서 17.8%로 조금 감소하였다.

음식료품도매업의 매출액은 '07년의 경우 7,936억 유로이며 '00년도와 비교할 때 30.7% 증가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도매업의 부가가치를 보면 '07년도의 경우 779억 유로로 '00년엔 비해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이 없다.

<표 2-44> 유럽연합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단위: 개, 백만€, 명 %)

	2000		2003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사업체수	188,268	12.3	209,085	12.6	208,479	11.9
매출액	607,308	17.8	668,361	18.2	793,639	16.0
부가가치	53,378	13.7	62,913	14.5	77,861	13.7
종사자수	1,509,971	18.5	1,741,576	18.6	1,822,491	17.8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음식료품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07년에 429,845개소로 '00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7%에서 1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고용 인력은 '07년도 1,295,375명으로서 '00년도에 비해 15.5% 증가하였지만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서 7.2%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130억 유로로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였으며 부가가치는 232억 유로로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에 비해 0.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국가별 음식료품소매업 매출액 비중을 보면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전체의 1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페인 15.1%, 영국 14.2%, 프랑스 12.7%, 독일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5> 유럽연합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단위 : 개, 백만€, 명 %)

	2000		2003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	436,052	12.7	459,280	12.3	429,845	11.4
매출액	84,245	4.9	99,434	5.0	113,042	4.8
부가가치	16,634	5.2	20,818	5.6	23,257	5.3
종사자수	1,122,005	7.8	1,303,029	7.8	1,295,375	7.2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3.2 산업구조

2007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이 전체 음식료품소매업의 28.3%인 121,68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타식료품 소매업이 21.8%, 과일 및 채소 소매업 16.9%, 빵/과자류 소매업 15.5%, 주류 및 음료소매업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사업체수가 1.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빵류 및 과자류 소매업이 1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 9.4%, 주류 및 음료 소매업 9.2%의 증가율로 사업체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표 2-46>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2000		2003		2007		증감률 (07/00)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436,052	100.0	459,280	100.0	429,845	100.0	-1.4
과실/채소 소매업	71,079	16.3	75,976	16.5	72,553	16.9	2.1
육류/육제품 소매업	134,231	30.8	131,144	28.6	121,680	28.3	-9.4
수산물 소매업	35,736	8.2	36,758	8.0	34,594	8.1	-3.2
빵/과자류 소매업	56,503	13.0	65,448	14.3	66,493	15.5	17.7
주류/음료 소매업	35,529	8.2	36,829	8.0	38,796	9.0	9.2
기타 식료품 소매업	97,487	22.4	102,567	22.3	93,787	21.8	-3.8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구성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빵 및 과자류 소매업이 20.8%, 기타 식료품 소매업이 20.6%, 과실 및 채소 소매업이 1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종사자수가 15.5%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타식료품 소매업 종사자수가 48.2%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빵 및 과자류 소매업 종사자수가 28.5%, 과실 및 채소 소매업 12.9%, 수산물 소매업 11.9%의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47&gt;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 명 %)

	2000		2003		2007		증감률 (07/00)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1,122,005	100.0	1,303,029	100.0	1,295,375	100.0	15.5
과실/채소 소매업	144,524	12.9	167,732	12.9	163,206	12.6	12.9
육류/육제품 소매업	361,135	32.2	365,260	28.0	366,812	28.3	1.6
수산물 소매업	68,525	6.1	77,724	6.0	76,652	5.9	11.9
빵/과자류 소매업	209,412	18.7	246,433	18.9	269,065	20.8	28.5
주류/음료 소매업	130,793	11.7	135,765	10.4	135,014	10.4	3.2
기타 식료품 소매업	180,168	16.1	269,071	20.7	266,933	20.6	48.2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이 29.0%인 328억 유로로 가장 매출액이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식료품 소매업으로 21.6%인 244억 유로, 주류 및 음료 소매업이 180억 유로로 15.9%, 빵 및 과자류 소매업이 11.9%인 134억 유로, 과실 및 채소 소매업이 11.5%인 130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34.2%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타식료품 소매업 매출액이 60.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빵 및 과자류 소매업 매출액이 48.9%, 주류 및 음료 소매업이 22.9%, 수산물 소매업이 21.9%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lt;표 2-48&gt;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 백만€ %)

	2000		2003		2007		증감률 (07/00)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84,245	100.0	99,434	100.0	113,042	100.0	34.2
과실/채소 소매업	11,006	13.1	11,919	12.0	12,965	11.5	17.8
육류/육제품 소매업	28,678	34.0	29,830	30.0	32,807	29.0	14.4
수산물 소매업	5,576	6.6	6,180	6.2	6,795	6.0	21.9
빵/과자류 소매업	9,019	10.7	11,232	11.3	13,425	11.9	48.9
주류/음료 소매업	14,646	17.4	15,206	15.3	17,996	15.9	22.9
기타 식료품 소매업	15,243	18.1	19,576	19.7	24,413	21.6	60.2

자료 :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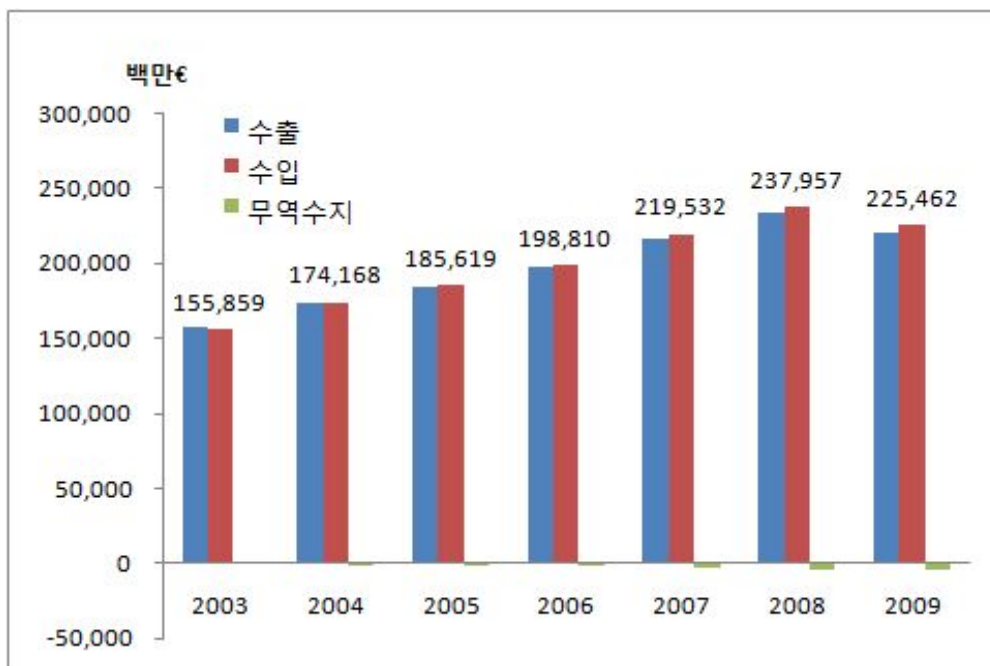
## 제 4 절 식품수출입

### 4.1 수출입 동향

2009년도 유럽연합의 가공식품 수출은 2,207억 유로, 수입은 2,255억 유로로 수입초과가 48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은 '03년 1,575억 유로에서 '09년에는 2,207억 유로로 연평균 5.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03년 1,559억 유로에서 '09년 2,255억 유로로 연평균 6.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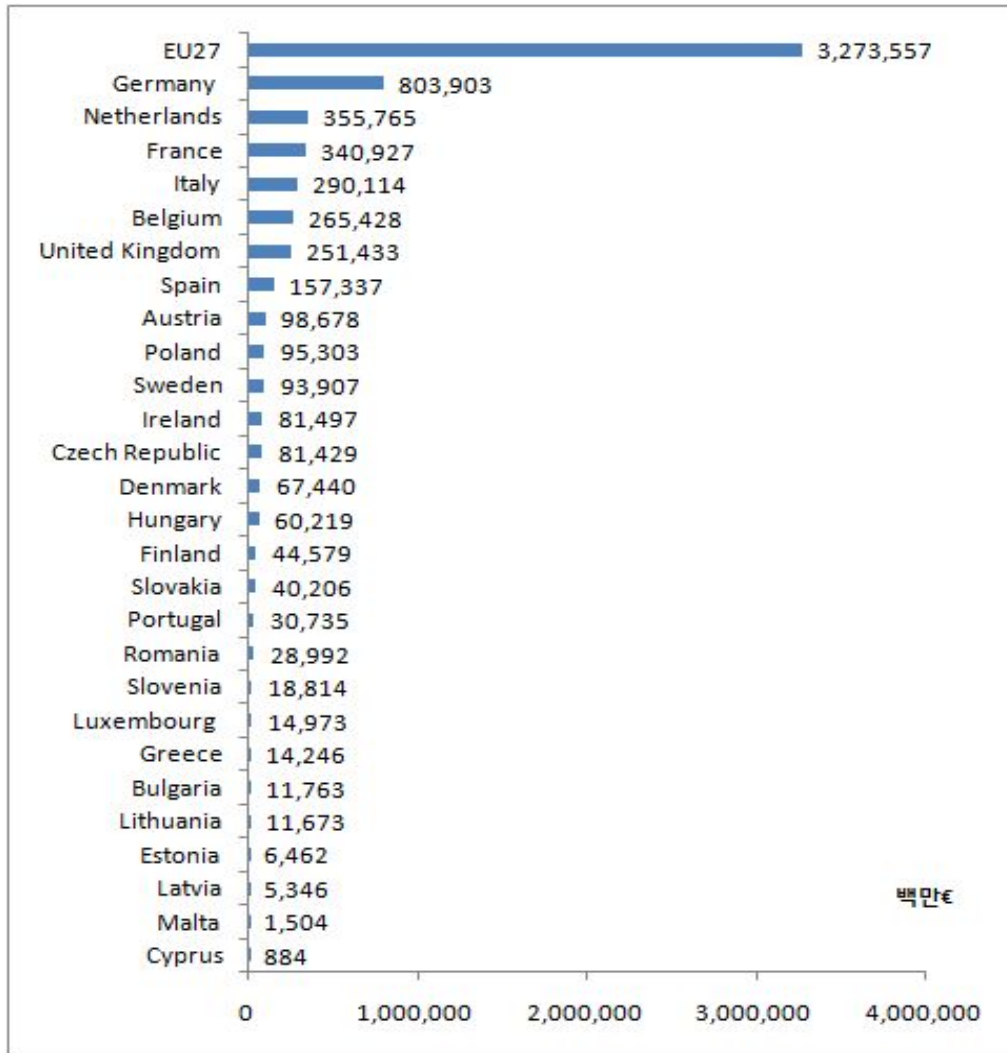
<그림 2-30> 유럽연합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독일이 유럽연합 전체 수출의 24.6%인 8,039억 유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10.9%인 3,558억 유로, 프랑스가 10.4%인 3,409억 유로, 이탈리아가 2,901억 유로, 벨기에가 2,654억 유로, 영국이 2,514억 유로, 스페인이 1,573억 유로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7개국의 수출 비중이 약 75.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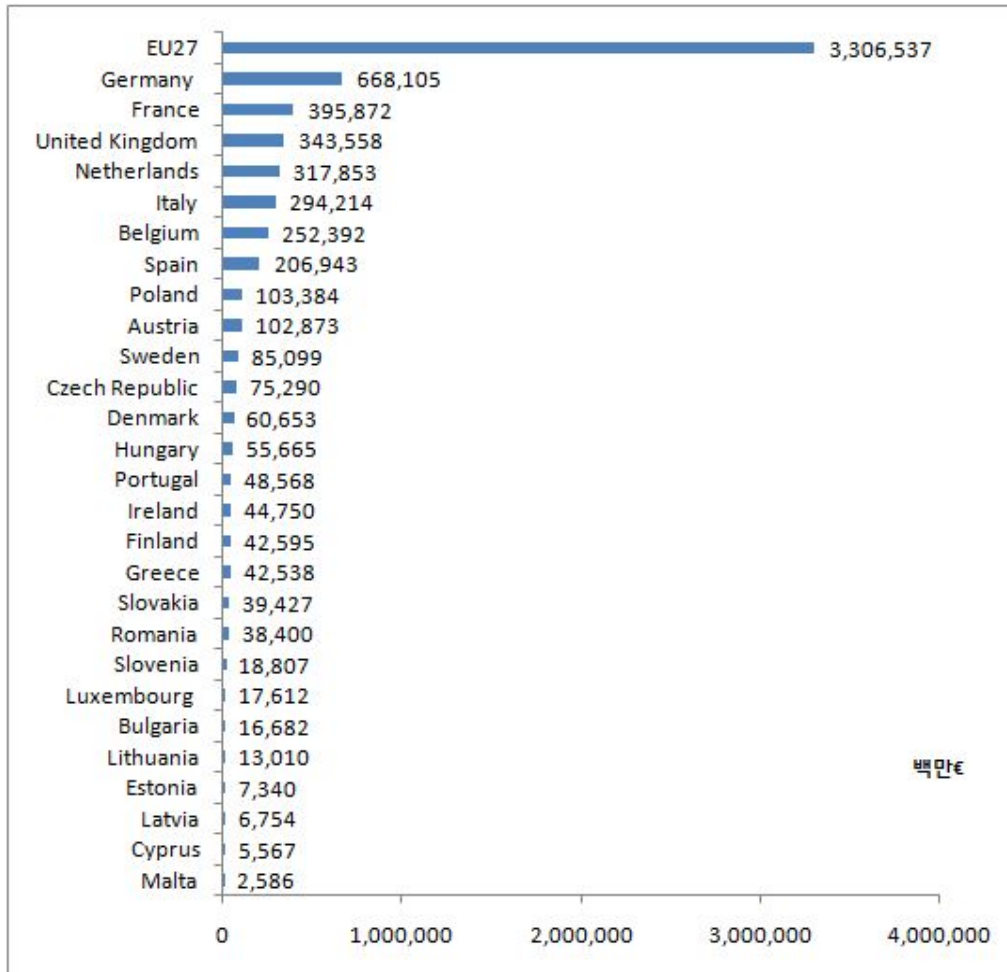
〈그림 2-31〉 유럽연합 국가별 수출현황(2009)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 국가별 수입현황을 보면 독일이 유럽연합 전체 수입의 20.2%인 6,681억 유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12.0%인 3,959억 유로, 영국이 10.4%인 3,436억 유로, 네델란드가 9.6%인 3,179억 유로, 이탈리아가 8.9%인 2,942억 유로, 벨기에가 2,524억 유로, 스페인 2,069억 유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 상위 7개국의 수입 비중이 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 국가로의 수출시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2> 유럽연합 국가별 수입현황(2009)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4.2 수출입 구조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4,026억 유로, 음료품이 388억 유로로 식료품이 82.4%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육가공이 371억 유로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이고 그 다음으로 과채가공이 289억 유로로 13.1%, 기타식료품이 285억 유로로 12.9%, 유가공이 276억 유로로 12.5%, 빵·떡·과자가 206억 유로로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317억

유로로 전체 음료제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 비알콜음료는 71억 유로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49> 유럽연합 음료제품제조업 부문별 수출 현황

(단위 : 천€ %)

	2003		2006		200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음료제품제조업	157,450,393	100.0	197,213,005	100.0	220,708,743	100.0
육가공	23,855,775	15.2	32,035,117	16.2	37,097,134	16.8
수산가공	9,500,518	6.0	11,841,398	6.0	11,633,447	5.3
유가공	21,846,472	13.9	25,678,865	13.0	27,564,890	12.5
과채가공	20,767,028	13.2	25,370,616	12.9	28,946,427	13.1
식용유지	8,282,982	5.3	10,712,265	5.4	12,321,413	5.6
곡물가공	5,819,144	3.7	6,952,080	3.5	8,490,040	3.8
빵·떡·과자	14,705,453	9.3	17,424,543	8.8	20,600,568	9.3
식품첨가물	1,760,927	1.1	2,114,936	1.1	2,766,515	1.3
기타 식품가공	2,518,710	1.6	3,052,353	1.5	3,960,191	1.8
알코올음료	17,176,539	10.9	24,568,707	12.5	28,526,045	12.9
비알콜음료	26,319,290	16.7	30,495,283	15.5	31,746,558	14.4
면류	4,897,555	3.1	6,966,842	3.5	7,055,515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3년 이후 음료제품제조업 수출구조를 보면 2003~2009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기타 식료품 부문으로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식품첨가물 및 면류가 7.8%, 육가공이 7.6%, 식용유지가 6.8%, 곡물가공이 6.5%, 빵·떡·과자류가 5.8%, 과채가공이 5.7%, 유가공이 4.0%, 수산가공이 3.4%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6.2%, 알코올음료도 3.2%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9년 기준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포도주가 약 92억 유로로 수출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5위 맥주, 7위 위스키, 13위 발포성 포도주가 랭크되었으며, 2위 품목은 약 83억 유로를 수출하는 기타 치즈가 차지하였으며 8위 돼지고기, 12위 돼지고기 등 주류, 육가공 및 유가공 품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1,987억 유로, 음료품이 268억 유로로 식료품이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과채가공품이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수입의 1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육가공품이 350억 유로로 15.5%, 기타식품가공품이 302억 유로로 13.4%, 유가공이 228억 유로로 1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의 경우 알코올음료가 213억 유로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알콜음료는 55억 유로로 2.5%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입구조를 보면 2003~2008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입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기타식품가공품으로 연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용유지 부문이 9.8%, 식품첨가물 부문이 9.7%, 면류 부문이 8.5%, 곡물가공 부문이 7.8%, 육가공 부문이 7.3, 빵·떡·과자류 부문이 6.3%, 과채가공 부문이 5.3%, 유가공 부문이 3.5%, 수산가공 부문이 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9.0%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음료의 경우도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lt;표 2-50&gt;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2009)

(단위: 천€)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9,237,006
2	040690	기타 치즈	8,330,030
3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8,314,980
4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웨이퍼,성찬용 웨이퍼, 제약용 빈캡슐)	5,943,660
5	220300	맥주	4,603,322
6	18069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식품	4,474,253
7	220830	위스키	4,221,266
8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4,129,922
9	220210	물(감미, 가향)	3,354,657
10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3,344,685
11	170199	사탕수수, 사탕무(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기타)	3,077,378
12	020329	돼지고기(냉동: 기타)	3,055,673
13	220410	발포성 포도주	2,713,821
14	020120	쇠고기(신선,냉장(뼈채절단: 도체와 이분도체 제외))	2,709,398
15	170490	기타 설탕 과자류(코코아 첨가하지 않은 것)	2,633,048
16	040120	밀크와 크림(지방분1%~6%,비농축,무가당)	2,478,517
17	190531	스위트 비스킷	2,423,166
18	220290	비알코올성 음료(물 과일 야채 주스 제외)	2,398,506
19	040610	신선 치즈(유장치즈와 커드 포함)	2,298,212
20	150910	올리브 버진 오일	2,291,731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lt;표 2-51&gt;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현황

(단위 : 천€ %)

	2003		2006		2009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155,859,240	100.0	198,810,398	100.0	225,462,416	100.0
육가공	22,854,054	14.7	30,374,112	15.3	34,950,716	15.5
수산가공	17,713,483	11.4	22,429,603	11.3	21,702,423	9.6
유가공	18,560,706	11.9	21,327,225	10.7	22,757,651	10.1
과채가공	27,768,057	17.8	34,171,794	17.2	37,916,572	16.8
식용유지	8,582,159	5.5	13,430,998	6.8	15,070,020	6.7
곡물가공	5,309,436	3.4	6,559,474	3.3	8,350,583	3.7
빵,떡 및 과자	14,887,525	9.6	17,136,804	8.6	21,487,165	9.5
면류	1,373,836	0.9	1,691,756	0.9	2,243,404	1.0
식품첨가물	2,302,994	1.5	3,032,536	1.5	4,010,761	1.8
기타식료품	16,976,969	10.9	24,435,904	12.3	30,172,904	13.4
알콜음료	16,225,700	10.4	19,580,590	9.8	21,268,105	9.4
비알콜음료	3,304,321	2.1	4,639,602	2.3	5,532,112	2.5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9년 기준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기타치즈가 약 73억 유로로 수입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기타 조제식료품, 3위 포도주로 2008년과 같은 순위에 랭크되었으며, 2위 기타 조제료 식품을 비롯, 5위 커피(안볶은것 : 카페인비제거), 11위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식품, 12위 사탕수수, 사탕무(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기타), 19위 커피(볶은 것 : 카페인비제거)등의 기타 식료품 및 8위 쇠고기(신선, 냉장(뼈없는것)), 10위 돼지고기(신선, 냉장: 기타), 16위 쇠고기(신선, 냉장(뼈채 절단: 도체와 이분도체 제외)), 20위 돼지고기(신선, 냉장: 넓적다리 와 어깨 및 그들의 절단육(뼈채 절단))등의 육가공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52&gt;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입 상위 20개 품목(2009)

(단위: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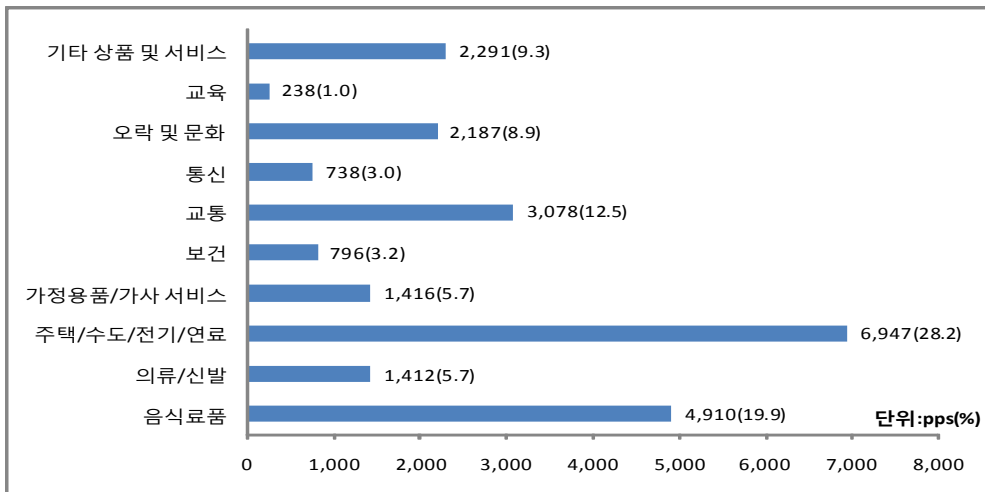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040690	기타 치즈	7,310,835
2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7,306,336
3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6,752,291
4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웨이퍼,성찬용 웨이퍼, 제약용 빈캡슐)	5,306,740
5	090111	커피(안볶은것:카페인비제거)	5,232,644
6	080300	바나나(신선,건조: 플랜틴 포함)	4,443,819
7	03042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4,098,278
8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3,617,697
9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3,601,236
10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3,594,592
11	18069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식품	3,343,867
12	170199	사탕수수, 사탕무(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기타)	2,714,389
13	220210	물(감미, 가향)	2,652,356
14	220300	맥주	2,652,035
15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2,569,558
16	020120	쇠고기(신선,냉장(뼈채절단: 도체와 이분도체 제외))	2,342,206
17	170490	기타 설탕 과자류(코코아 첨가하지 않은 것)	2,221,002
18	040120	밀크와 크림(지방분1%~6%,비농축,무가당)	2,198,549
19	090121	커피(볶은 것:카페인비제거)	2,187,126
20	020312	돼지고기(신선,냉장: 넓적다리,어깨 및 그들의 절단육(뼈채절단))	2,137,189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 5 절 식품소비지출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연간소비지출은 24,667pps(purchasing power standard : 구매력평가단위)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비가 6,947pps로 전체 지출의 28.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비 19.9%, 교통비 12.5%, 기타상품 및 서비스가 9.3%, 오락 및 문화비가 8.9%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 유럽연합 가계지출 현황(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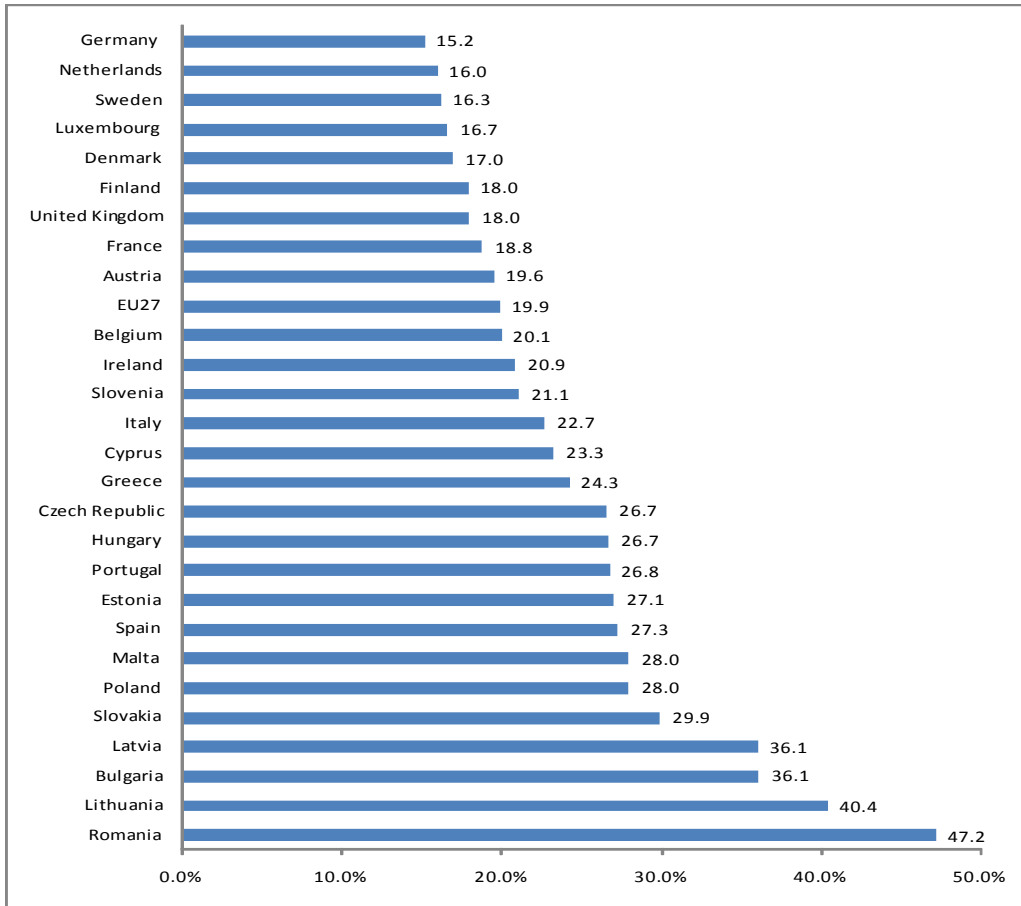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앵겔계수는 19.9%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1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은 국가들을 보면 네델란드 16.0%, 스웨덴 16.3%, 룩셈부르크 16.7%, 덴마크 17.0%, 핀란드 18.0%, 영국 18.0%, 프랑스 18.8%, 오스트리아 19.6%로 나타났다.

반면 앵겔계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서 전체 지출의 절반인 47.2%를 음식료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투아니아 40.4%, 불가리아와 라트비아가 3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그림 2-34&gt; 유럽연합 국가별 식료품비 지출 비중(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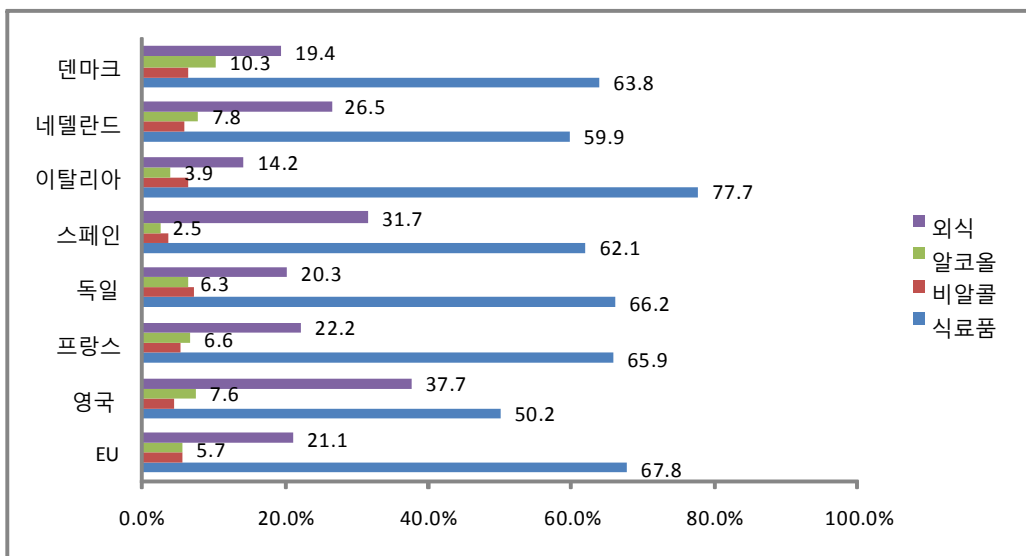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류별 지출 비중을 보면 식료품 부문에 지출하는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외식부문 지출 비중은 21.1%, 알코올 부문과 비알코올부문의 지출 비중은 각각 5.7%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식품류별 지출 비중을 보면 영국은 식료품 부문 지출 비중이 50.2%, 외식부문 37.7%로 다른 국가에 비해 외식비 지출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5.9%로 높고 외식비 지출 비중은 22.2%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6.2%, 외식비 지출 비중은 20.3%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유럽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2.1%, 외식비 지출 비중이 31.7%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고 이탈리아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77.7%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델란드는 외식비 비중이 26.5%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 덴마크의 경우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3.8%로 높고 알코올 부분의 지출 비중이 10.3%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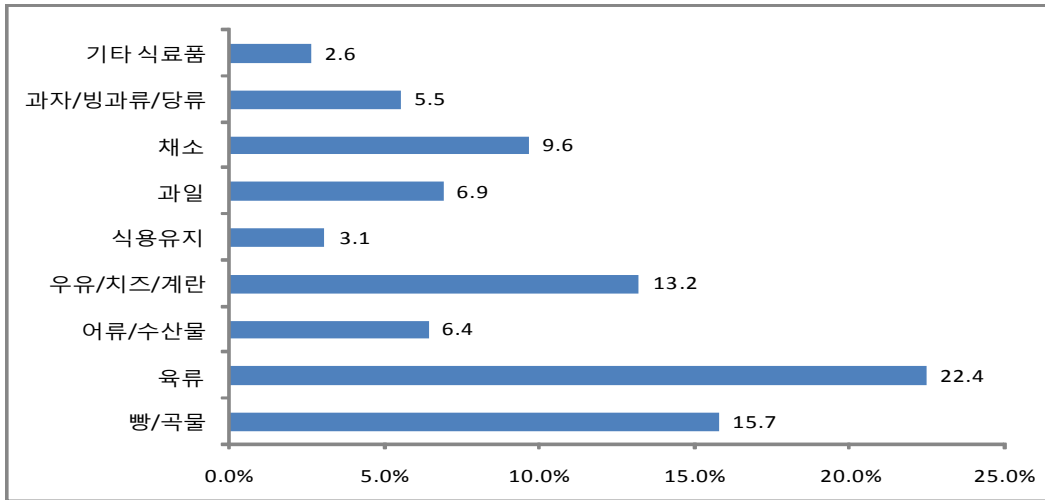
<그림 2-35>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품류별 지출 비중(2005)



자료 :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육류에 지출하는 비중이 2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빵 및 곡물에 지출하는 비중이 15.7%, 우유, 치즈 및 계란에 지출하는 비중은 13.2%로 유럽의 식생활문화와 관련된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6〉 유럽연합 국가의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자료 :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영국의 경우 육류 지출 비중이 2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빵 및 곡물이 1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채소에 지출하는 비중이 15.2%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육류 지출 비중이 2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빵 및 곡물 21.2%, 우유, 치즈 및 계란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소의 비중도 10.2%에 달하였다. 스페인의 경우도 육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어류 및 수산물 비중이 14.7%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과일의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도 육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과자, 빙과류 및 당류의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앵겔계수가 가장 높은 루마니아의 경우도 육류의 지출 비중이 2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빵 및 곡물 20.6%, 우유, 치즈 및 계란 18.1%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고 채소 지출 비중도 14.9%로 영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53&gt;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단위 : %)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빵/곡물	19.0	21.2	15.1	18.8	18.7	17.7	20.6
육류	24.3	27.1	27.5	25.1	23.1	24.4	28.2
어류/수산물	4.9	6.7	14.7	9.6	3.2	4.6	2.6
우유/치즈/계란	14.0	15.3	13.9	15.2	16.4	15.2	18.1
식용유지	2.2	2.4	3.4	4.1	2.6	2.7	4.4
과일	8.9	6.8	9.3	9.5	8.1	7.9	5.4
채소	15.2	10.2	10.0	9.9	12.7	11.9	14.9
과자/빙과류/당류	6.8	6.7	3.5	6.8	7.5	12.3	4.6
기타 식료품	4.7	3.5	2.5	1.0	7.7	3.3	1.3

자료 :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 2010 식품산업동향

---

2011년 5월 인쇄

2011년 5월 발행

편 저 한국식품정보원·벨류에드

발 행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TEL: 02)6300-1397 FAX: 02)6300-1615

---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02-6300-13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